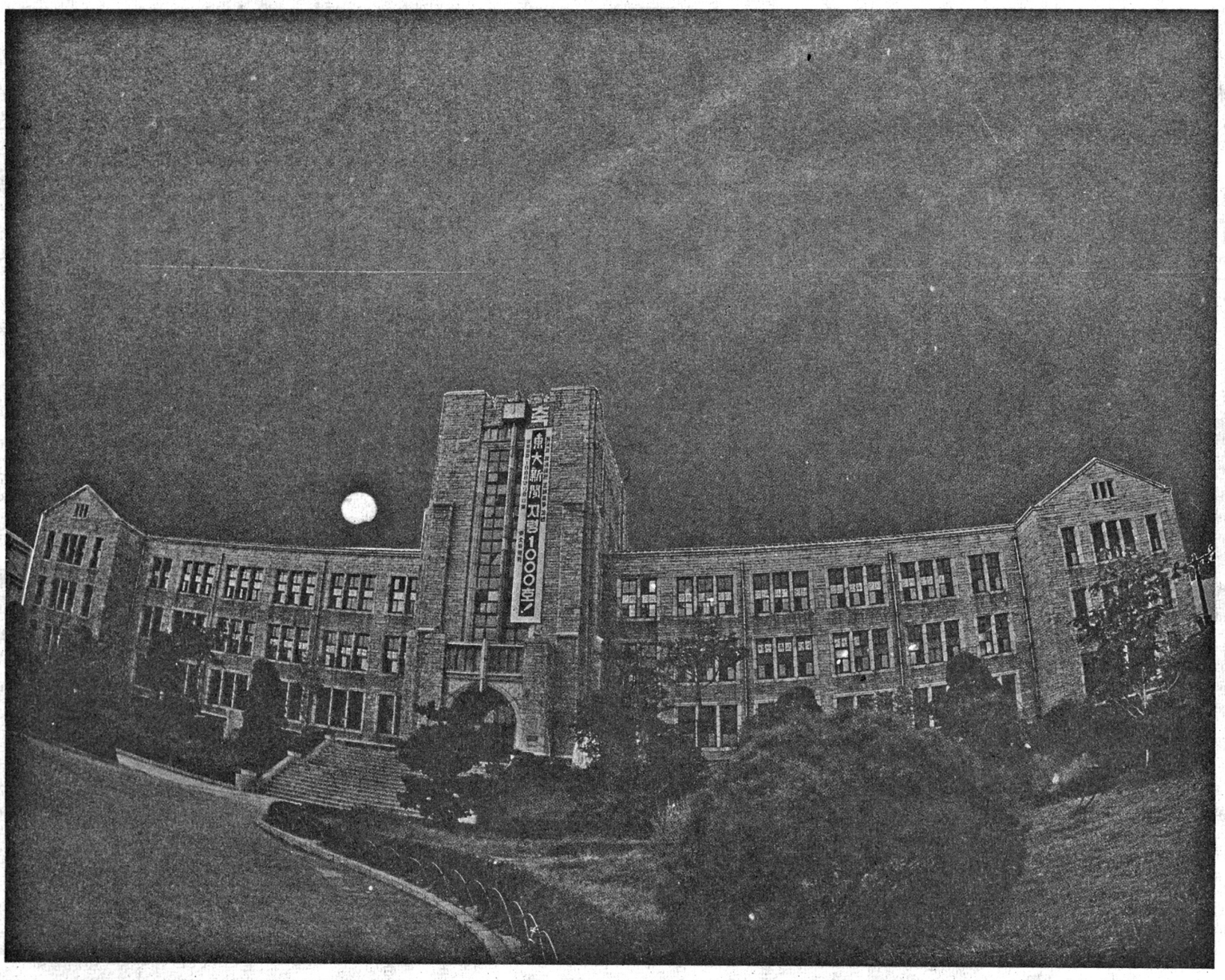


영원히 타오를 正義와 眞理의 햇살이여

東大新聞 1천호는 '역사의 지침'이다

高 銀 〈시인〉

우리 남산 소나무 숲 기슭 동국대학교는
서천축 반야 진리로 열렸나니
그러나 이 땅의 칼칼한 밤 지새워
이 땅의 진리 열렸나니
그 진리의 기관 세워
돌을 쌓아 영원케 하였나니
동대신문 너 태어나
젊은 선언 쉴 줄 몰라
모색의 진리여 고뇌의 진리여 저항의 진리여
수렴과 결단의 진리여 원융의 진리여

진리가 어찌 연면하여 오늘에 이르렀나니
진리가 어찌 휴식처럼 쉬운 것인가
진리가 어찌 연애의 한 순간으로 달콤한 것인가
아냐 진리는 편안한 것인가
이 세상에 드러나며 피 흘린 자 켜켜이 쌓여
진리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여
그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동대신문 1천호가 그얼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동대신문 1천호의 날 빛나라
우리 모여 남산이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노래 불러라
큰 사위 열고 닫으며 춤추어라
떠들썩 떠덩실 춤추어라
동대신문 1천호의 힘찬 잔치 춤추어라

오늘에 이르러 험한 세월 젊은 진리의 대변자
동대신문 1천호의 영광에 취하지 말지어다
동대신문 2천호를 향하여
진리가
모든 문제로부터 태어남으로
3천호의 내일 가득히
꽃이 되고
열매로 터져 쏟아지거라

그러나 남산 기슭의 소리 한데 모여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이 땅의 진리의 소리 하나로 뭉쳐
언덕바지의 소리 한데 모여
진리에 동참할지어다 동참 불공할지어다

이렇게 연면하여 동대신문 1천호의 날 빛나라
동대신문 1천호의 영광에 취하지 말지어다
동대신문 2천호를 향하여
진리가
모든 문제로부터 태어남으로
3천호의 내일 가득히
꽃이 되고
열매로 터져 쏟아지거라

그리하여 동대신문 1천호의 날 빛나라
이 땅의 역사 최고의 회열 쟁취할 때
우리 남산 기슭의 소리
계립 언덕바지의 소리 한데 모여
이 땅의 진리에 동참할지어다 동참 불공할지어다

그리하여 동대신문 1천호의 날 빛나라
이 땅의 역사 최고의 회열 쟁취할 때
우리 남산 기슭의 소리
계립 언덕바지의 소리 한데 모여
이 땅의 진리에 동참할지어다 동참 불공할지어다

오늘에 이르러 험한 세월 젊은 진리의 대변자
동대신문 1천호의 영광에 취하지 말지어다
동대신문 2천호를 향하여
진리가
모든 문제로부터 태어남으로
3천호의 내일 가득히
꽃이 되고
열매로 터져 쏟아지거라

그러나 남산 기슭의 소리 한데 모여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이 땅의 진리의 소리 하나로 뭉쳐
언덕바지의 소리 한데 모여
진리에 동참할지어다 동참 불공할지어다

우리는 반야의 씨 죽을지라도
1천호 축배 들지 않을 수 없나니
반야의 씨 죽어 다시 새로운 무명의 씨로 태어나
진리를 찾아헤매는 자 될지어다
그리하여 진리만나 이 세상 끝간데 모르는 바 빛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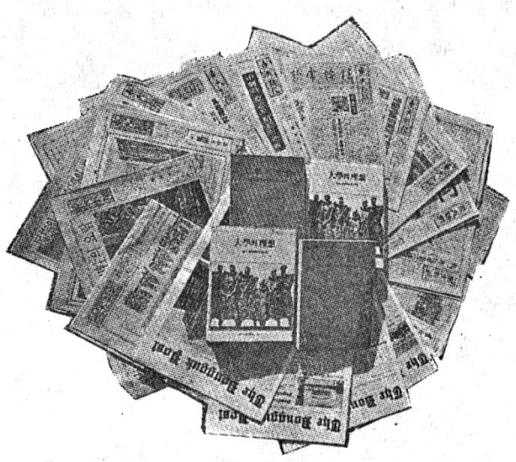
오 동대신문 1천호의 날 빛나라
우리는 반야의 씨 죽을지라도
1천호 축배 들지 않을 수 없나니
반야의 씨 죽어 다시 새로운 무명의 씨로 태어나
진리를 찾아헤매는 자 될지어다
그리하여 진리만나 이 세상 끝간데 모르는 바 빛나라

東大新聞
發行人 李智冠
編輯人 宋在雲
印刷人 李揆行
主幹 林英正
編輯局長 申寬浩
編輯長 盧建煥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715
서울시 中區筆洞 3街26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780—350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전화 경주 2—0131~6
每週 火曜日 發行

진리(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의 더러움을 떠났기 때문이고, 진리에는 자아(我)가 없으니 자아의 더러움을 떠났기 때문이다.
〈維摩經〉

지면안내

▲2면: 사설·시사논단·학생시론
▲3면: 기사·보리수
▲4면: 기념사·다시보는 창간사·휘호·약사
▲5면: 東大新聞에 바라는 각계의 소리
▲6면: 특집좌담—분단상황과 언론
▲7면: 대학신문의 편집방향
▲8·9면: 지령1천호기념 설문조사
▲10면: 민중정당의 활로·기획시리즈②
▲11면: 박종근씨 의문의 죽음·노동운동
▲12: 특별취재—언론노조
▲13면: 북한불교의 실상
▲14면: 사진으로 본 80년대 학생운동
▲15면: 다시보는 창간된 그 해 6월에
▲16면: 데스크의 辯
▲17면: 단편소설
▲18면: 교포문학·신문및 교지경연대회 심사평
▲19면: 기사·회전무대·카메라 댁상
▲20면: 본지 소장자 인터뷰·김기창 화백 祝畵



東大新聞 1천호 기념사업

1. 축쇄판 제1권 제작
1~101호까지를 축쇄판으로 제작

2. 컬럼選集「달 하나 千江에」발간
보리수·대학한화·메아리·녹야원 중 지성과 양심의 글 총 329편 수록

3. 제3회「동대문학상」작품 모집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소설·평론부문 작품을 모집

4. 전국고교신문·교지 경연대회
고교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신문부분과 교지부문으로 나누어 실시

5. 각종전시회
① 전국대학신문전시회
② 서울캠퍼스 제5회 보도사진전
③ 경주캠퍼스 설립10주년기념 사진전
④ 고교신문·교지 전시회

東大新聞

東國과 함께해온 正論直筆 38년

1950년 4월 15일에 창간된 東大新聞이
38년의 연륜 속에서 대학의 이상실현과 東國史의 산 증인으로
마침내 지령 1천호의 위업을 이룩했읍니다.
창간된 그 해 6월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6·25를 겪어야 했던 東大新聞은
이후 4·19, 5·16, 6·3, 5·18, 6·29 등등
실로 엄청난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함께 겪어야만 했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東大新聞은
대학문화의 창조자로
우리시대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왜곡된 현실을 바로 세우고
민족이 나아가야 할 진로를 깨우치며
正論을 펼쳐나왔읍니다.
東大新聞.
그대 있음으로 해서 '진실'이 있고,
그대 있음으로 해서 '대학'과 '민족'의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자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읍니다.
그래서 東大新聞은 지금 그 정신 그 전통으로
감히 대학언론의 선봉에 설 것을 다시 다짐합니다.
하나의 촛불이 스스로를 불살라 어둠을 몰아내듯이
東大新聞 또한 스스로를 밝혀
우리의 東國과 우리 민족을 위한 환한 예지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東大新聞社

社說

正道걷는 大學의 公器로

——지령 1千號에 붙여

이번호로 東大新聞은 지령1천호를 맞는다。 東國과 더불어 38년 1동대신문은 이제 그스스로가 걸다면 긴역사를 지나게되었다。 특히 이 장정은 다만 흘러간 시간의 축적이었다기보다는 봇을 든 지성들이 고난을 감내하고 역경을 이기며 이끌어온 값진 기록이었음을 확인할수있다。

사실 동대신문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대내외적 제약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우리 대학에 처음 신문이 나오게된 때는 1949년9월이었으나 미처 학생들에게 배부하기도 전에 차압되는 불행을 겪은 날이 몇번인 1950년4월15일에야 창간호를 정식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기쁨도 잠깐이었고 피난지 부산임시교사에서 온갖 어려움속에 제2호를 속간했으나 다시 배부중지되는 홍역을 부터 가시발길이었던것이다。 이후 동대신문은 4·19、5·16、6·3、5·18、6·29등 실로 열정단 우리민족의 현대사와그 괘를 함께하며 여러차례 같은 비운을 겪어야했으며、최근의제 999호까지도 파문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처럼 신문의 한호 한호가 나온다는 것은 헤아릴수 없이 많은 고통과 격디기어렵군 고뇌가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장애들이 있었던 엎전간에 그래도 신문은 제때에 나와야하고、또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대학신문을 대학문화의 창조자요、시대적 양심의 파수꾼이라고말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학신문이 서있는 자리는 어디이고、또 서 있어야할 올바른 자리는 어디며、아울러 대학신문밖의 환경이나 조건은 어떠하며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모습인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오늘의 대학신문은 학교신문이나、학생신문이냐로 그 성격에서부터 도전을받고있다。 이러한 격해차이로이해 결국 대학신문은 학교당국으로 부터는 不미쁜不미遞의 성가신 존재로、학생들로부터는 반목과 불신의 대상으로、또 대학외부로부터는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고있기도하다。

그럼가운데도 그간의 정치·사회적 여러 외압때문에 자율성이 신장되었다고 하는것은 크게 자위할수있는 대목이다。

그 기능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은 저널적 역할을、학교당국은 아카데미즘 구현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신문이 저널리즘에 깊이 치우치면 일반신문과 다를 바없고、또 아카데미즘에 깊이 빠지면 학술지가 되고만다는 주장들이어서 결코 어느편에도 소홀히 할수없는 이의 조화에 합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질한 것은 성급한 진보만을、또는 느슨한 보수에 안주하는등의 특정의 목소리만을 대변할수는 없다。 오히려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대학인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동대신문이 그 사명을 충실히 다해왔다는 독자들이 평가하고 채찍질할 일이다。 다만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간에 이제 그 자체의 기능으로 동대신문은 역사와 함께 또도히 흘러가면서 동국의 학문과 정신、전통과 이념을 형성전개하는데 더욱 열정을 쏟고자 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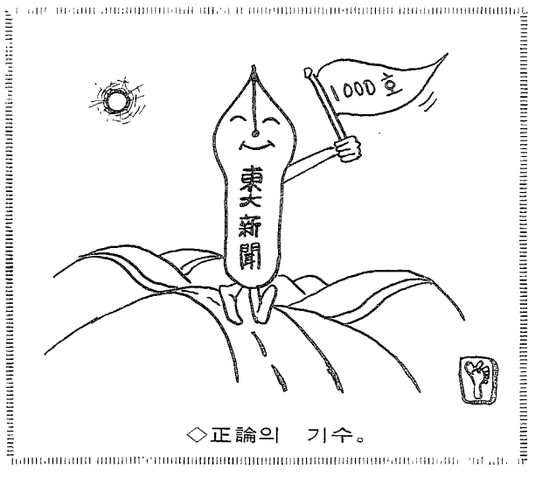
이러한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 동대신문은 앞으로도 첫째、긍지를 지니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둘이 발낮으로 쉬지않고 흘러가며 모든 생명을 길러주면서도 그 공을 자랑하지 않듯이 동대신문 또한 부단히 자기위치를 확인해가는데 긍지를 가져야 할것이다。

그것은 대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의첫 목표로 하고 있는 신문이다。 또 진리나 진실을 위한 이론 탐구의 모체가는 제자리에 서게된다。 따라서 대학인의 대다수가 원하는 바가 통인이라든가、민족화라든가、부정불의의 배격이라면 대학신문이라는 물줄기도 그 길잡이가 되어야할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이상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위해서는 무엇보다 흐르는 물처럼 모든것이 자유로와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치체계가 세워지고 스스로의 한계가 극복되어진다면 대학신문도 이제 사상이나 외곡된 실험대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는 1천호를 맞은 동대신문의 사명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이며 거듭태어나기를 요청받고 있다。

바라건대 지령 2천호、아니 3천호로 이어질때마다 가장 상적인 정론지로서 자리매김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正論의 기수。

時事論壇

「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할 때

「군사문화」가 사회발전에 역행

자주화·민주화·통일의 열기에 순응해야

김 진 철

<사회과학대학장·국제정치>

Ⅰ、한국군의 성격

우리의 현대사를 점철하고 있는 제모순과 부정·비리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획득한 1945년~1948년、흔히 「해방공간」이라고 불리워지는 시기에 형성되었다。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꿈분단과 또 다른 예속을 갖다준 비극의 계기였다。 당시 막갑했던 제국주의세력의 국제분할술책과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 3년동안의 미·소의 남북점령은 단절과 철산으로 남북한 단일 민족국가를 형성시키려는 민족의 염망을 저지했으며 분단의 씨앗을 잉태시켰다。

한국군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맹아가 1946년에 발족된 「남조선국방경비대」로 나타났다。 즉 한국군은 반공의 보루로서 남한의 군사력 강화라는 미국의 정책구도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제잔재의 보수세력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출발부터 미국에 예속되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군의 주요 지휘관은 주로 일본군 출신으로 충원되었는데 결국 일본군의 군사전통과 본위기를 띠는 내부분는 이후 한국군의 반민주적 핸태를 규정하게 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군의 지휘권에 있어서도 53년의 「UN군의 작전지휘권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국의 지휘권이 누차 확인되면서 한국군의 자주권이 상실된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군은 예속적、반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이는 5·16군부쿠데타、12·12사태、5·18광주항쟁、그리고 최근의 오홈부장 테러사건등을 통해 유감없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Ⅱ、군부의 정치개입

기존의 제3세계 정치이론을 살펴보면 군부의 정치개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즉 군부는 대변화적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그러한 개입원인이 소멸되었을때 즉시 물러난다는 것이다。 또한 제3세계에서는 종간계층의 기반이 허약하여 보호해야 할 종합적 사회적 이익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 군부정권이 오히려 진보적인 사회적 힘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들은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서 일어난 군부쿠데타가 일시적 위기상황에서 일어난 군부개입이 아니라 지속적 권력을 갖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권위주의체제의 모습을 나타냈을때、그리고 새로이 등장한 군부정권이 안보라는 명목으로 시민권과 민중운동을 억압하고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파시즘의 전형으로 귀착될때 그 견해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는 한국군의 예속성·반민주성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지며 『군사문화』라는 어감상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말까지 통용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속한 정치발전의 계기에 쐐기를 박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첫째 분단구조에서 국제적으로 조성되었던 냉전기류와 반공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국군이 계속정으로 증강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군의 막강한 물리력과 군 자체의 특수한 조직체계로 인해 독재권력에 대한 민중의 거센 저항은 군부의 동원으로 쉽게 진압되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對韓정책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남한이 일제잔재의 보루로서 남한 군사력 강화를 미국의 정책목표로 등장한 미국은 자국중심의 세계질서의 유지를 위해 제3세계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왔고 그 통로는 통상 군부를 선택했다。

특히 한반도는 미국에게 「사활적 이해」가 결린 지역이며 「대소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남한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정착보다는 군부의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두었으며 군을 제1차적으로 근대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부는 그 역할이 제도화되었고 자연스럽게 정치적이라는 특징을 띨수 있었다。

Ⅲ、군의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개입은 일부분으로 이상의 세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세가지 원인이 해소됨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다。 즉 한국정치사의 근본적인 과제는 자주화、민주화、통일로 집약될 수 있으며 이 세가지 과제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동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도 변화의 흐름속에 있다。 어차피 군도 우리의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집단 중의 일부분인 이상 사회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주화、민주화、통일의 열기를 거역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지 않을수 없다。 자본주의 군사정권의 정당성 위기는 군부내부의 잘못된 「남조선국방경비대」로 나타났다。 즉 한국군은 반공의 보루로서 남한의 군사력 강화라는 미국의 정책구도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제잔재의 보수세력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출발부터 미국에 예속되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군의 주요 지휘관은 주로 일본군 출신으로 충원되었는데 결국 일본군의 군사전통과 본위기를 띠는 내부분는 이후 한국군의 반민주적 핸태를 규정하게 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군의 지휘권에 있어서도 53년의 「UN군의 작전지휘권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국의 지휘권이 누차 확인되면서 한국군의 자주권이 상실된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군은 예속적、반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이는 5·16군부쿠데타、12·12사태、5·18광주항쟁、그리고 최근의 오홈부장 테러사건등을 통해 유감없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Ⅱ.군부의정치개입

기존의 제3세계 정치이론을 살펴보면 군부의 정치개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즉 군부는 대변화적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그러한 개입원인이 소멸되었을때 즉시 물러난다는 것이다。 또한 제3세계에서는 종간계층의 기반이 허약하여 보호해야 할 종합적 사회적 이익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 군부정권이 오히려 진보적인 사회적 힘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들은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서 일어난 군부쿠데타가 일시적 위기상황에서 일어난 군부개입이 아니라 지속적 권력을 갖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권위주의체제의 모습을 나타냈을때、그리고 새로이 등장한 군부정권이 안보라는 명목으로 시민권과 민중운동을 억압하고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파시즘의 전형으로 귀착될때 그 견해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김 진 철

<사회과학대학장·국제정치>

즉 군부는 대변화적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그러한 개입원인이 소멸되었을때 즉시 물러난다는 것이다。 또한 제3세계에서는 종간계층의 기반이 허약하여 보호해야 할 종합적 사회적 이익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 군부정권이 오히려 진보적인 사회적 힘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들은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서 일어난 군부쿠데타가 일시적 위기상황에서 일어난 군부개입이 아니라 지속적 권력을 갖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권위주의체제의 모습을 나타냈을때、그리고 새로이 등장한 군부정권이 안보라는 명목으로 시민권과 민중운동을 억압하고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파시즘의 전형으로 귀착될때 그 견해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는 한국군의 예속성·반민주성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지며 『군사문화』라는 어감상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말까지 통용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속한 정치발전의 계기에 쐐기를 박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첫째 분단구조에서 국제적으로 조성되었던 냉전기류와 반공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국군이 계속정으로 증강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군의 막강한 물리력과 군 자체의 특수한 조직체계로 인해 독재권력에 대한 민중의 거센 저항은 군부의 동원으로 쉽게 진압되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對韓정책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남한이 일제잔재의 보루로서 남한 군사력 강화라는 미국의 정책목표로 등장한 미국은 자국중심의 세계질서의 유지를 위해 제3세계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왔고 그 통로는 통상 군부를 선택했다。

특히 한반도는 미국에게 「사활적 이해」가 결린 지역이며 「대소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남한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정착보다는 군부의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두었으며 군을 제1차적으로 근대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부는 그 역할이 제도화되었고 자연스럽게 정치적이라는 특징을 띨수 있었다。

Ⅲ、결 론

운동의 발전을 위해 견지해야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규봉운동을 적극화 하여 대중투쟁을 촉발케 하는것」 이다。

이는 주관적희망이나 개인적 의사에의해 투쟁하는것이 아닌 근로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히 근거해야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각인케한다。

만복올림픽은 단어 그자체가 상징하는 것 이외에 『민족의 영원한분단과 예속』이라는 명에를 그본상으로 우리 애국민중에게 요구할것이며、그것은 오직 투쟁으로、전민항쟁으로 부쉬질것이다。

윤 남 진

〈사회과학대·경찰행정학과〉

민중민주운동의 향후 과제

반미투쟁과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Ⅰ、서 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람통신의 개조를 수행하는 싹앞은 오랜 역사와 힘겨운 투쟁속에서 전진을 거듭해왔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있는 문제만을 제기한다。』

인간은 역사속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수많은 업적과 논리속에서도 반드시 정의의 길 이외에는 가본적이 없다。

이는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그리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근로대중이 가장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때로부터 더욱더 그 진보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우리는 실천의 발환과 정세를 살필때 바로 이점에 주목해야 하며 따라서 근로대중에 근거한、그들에 기초한 판단과 발환만이 세계관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것이다。

Ⅱ、본 론

정치정세나 투쟁의 흐름을 설정하는데 나서는 가본적 요구는 『운동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주체적 준비정도—의식화、조직화 정도—를 기본에 두고 일체적、다면적으로 파악하여 그 중심고리를 찾아내는데』 있다。 이러한 기본관점에 충실하여 객관적 정세와 주체의 실천강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1、84년~88년의 시기규정과 올림픽

84~88년을 규정할때 『식민지 안정적 재편기』로 봐야한다。

그것은 첫째、식민지 독재정권의 안정화를 기하는 것으로、현 노태우정권의 안정성·강화와 경제적으로는 전면적 수입개방의 관철로 금융시장(보험·증권시장)으로부터 생산구조의 원천적이며 구조적 수탈구조를 확립하는것、군사적으로는 『미제의 군사적 지배강화(이는 현재 미국에게 전시상태에 대한 판단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와 한·미·일 삼자 군사동맹체제의 강화로 나타난다。

둘째、모든것은 그동안 미국과 노태우파 쇼를처배는 틀이 애지중지 키워온 올림픽으로、그것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둘째、식민지 남한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와 완전한 식민지화의 종요한 초하나의 축으로 투개의 정부정책、분단고착화의 측면이다。 이것은 올림픽의 단독개최를 통해 분단국가를 기정사실화 해내고 UN동시가입、교차승인의 현실으로 제2의 5·10단정을 꾀하는 것으로 실현될 것이다。

2、올림픽과 그 이후

올림픽을 때개로한 애국·매국、통일·

東大新聞 지령1千號의 기쁨을 함께 합니다

홍대 한대 이대 외대 연대 숙대 세대 성대 성대 서대 서대 서강 상명 국민 단대 대대 대대 대대 명대

건대 경대 고대 국대 단대 대대 대대 대대 대대 대대 대대 대대 대대 대대 대대 대대 대대 대대 대대

신문 보문 문보 보문 문보 문보 보문 문보 문보 문보 문보 문보 문보 문보 문보 문보 문보 문보 문보

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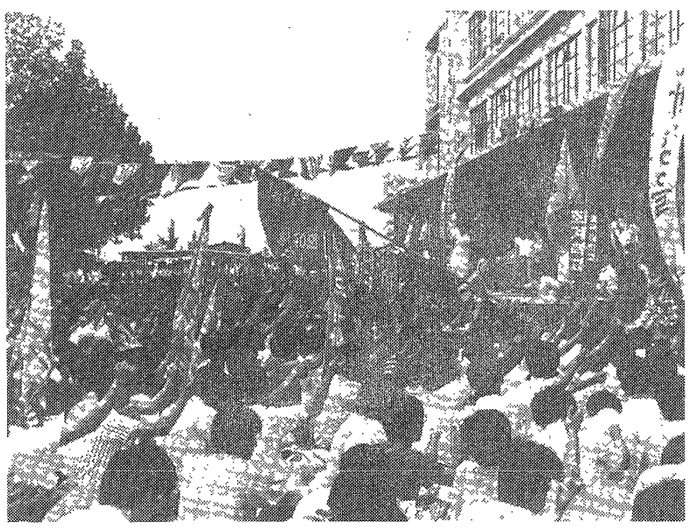
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회

학자투·휴교령 관련집회 잇달아

학생총회·최후통첩 선포식등 열려

동창회비 납부거부 통과

15일 비상총회서 「파업」결의할 듯



◇「88학년도 제2학기 정기학생총회」가 「학자투완수·휴교령 저지」를 기치로 지난 31일 열렸다.

제2학기 정기학생총회가 지난달31일 열린것을 필두로 학자투 완수와 휴교령 저지를 위한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

…… 정기학생총회 ……

88학년도 제2학기정기학생총회가 총학생회주최로 총 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2시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총학생회 1학기 사업보고와 학자투 8개항 사수및 휴교령 저지 등을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학자투위원장·연문4) 군은 경과보고를 통해 『학자투의 구체전제로 교과과정 재편위가 종오하게 대두됨에 따라 각단대별 조직역량을 강화, 기필코 쟁취하고야 말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8개항 사수를 위한 휴교령저지와 동참회비를 등록금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표결에 부쳐 △휴교저지안은 찬성1천7백32표 반대93표 △동참회비 납부거부는 찬성1천7백37표 반대34표로 두건 모두 통과되었다.

한편, 총학생회장 최재성(불교4) 군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학자투는 반드시 쟁취해야하며 8개항사수를 위해 휴교령도 분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위한 대동단결투쟁을 촉구했다.

…… 경주 비상총회 ……

경주캠퍼스 비상학생총회가 지난12일 오후1시 학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관 중정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88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 사업일정을 미칠 수있는 정예서클의 존속을 보고 ▲학민투성과 ▲발족준비위 구성 ▲휴교령 저지를 위한 학생총회의 결의 ▲동참회비 납부거부 ▲제2캠퍼스 연합건설준비위원회 준비사업보고 ▲올림픽 휴교령반대선언문으로 이어졌다.

…… 최후통첩 선포식 ……

「총장과의 간담회 보고 및 최후통첩 선포식」이 오늘(13일) 오후 1시 도서관 앞에서 열린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12일 총학생회에서 李鳳寬총장과 최재성 총학생회장이 「학자투, 휴교저지 어떻게 할것인가」란 내용의 집회가 지난 2일 오후1시 총학생회 주최로 학생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총학생회 기획부장 김태현(철학4)군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학자투위원장·이승민(영문3)군은 지난 27·28일 경주 도큐호텔에서 열린 전체교수회의내용을 보고했다. 이자리에서 李군은 『교수회의를 작성한 5인소위를 꽁개할 것과 합의사항을 담보하지 않은 교수회의 전면 거부, 지난6월 각종 루머를 퍼뜨리며 학자투와 해공작을 펼쳤던 오국근(영문과) 교수의 회장직 사퇴, 학자투 8개사항의 재서명, 장학금의 완전 공개, 휴교령 철폐 공동투쟁에 서명할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회부장 윤남신(경행4) 군은 『올림픽기간 중에 내려질 휴교령에 대비하여 교수회의 결의사항을 시행하고 학생회 학술부 연합회에 의해 각각 열렸다.

◇지난 10일 연대회」시상식 장면。

本紙1000호 자축연

주간·동인등에 공로및 감사패 전달

지난달 1일 밤위병으로 근무하던중 의문의 화재사고로 숨진 박종근(한의과 88졸) 동문의 「사인진상조사 경과보고및 은폐조작 규탄대회」가 지난8일 낮12시 30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학생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관중정에서 열렸다. 〈관련기사11면〉

총학사회부장 전찬송(경영3) 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규탄대회에서 총학생회장 길동선(중문3) 군은 인사말을 통해 『군사문화와 권위주의의 의해 무참하게 죽어간 고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폐조작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민당의 김부겸 의원이 경주지구위원장이 등단, 국회진상조사단 파견요청등의 결과보고를 가졌다.

이어서 조영미(생물1) 양의 조사날짜과 방식의 어머니 고금숙(53) 씨의 호소연설이 있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경과보고를 통해 『사인진상규명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은폐조작사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치고 가두시위에 들어간 80여명의 학생들은 성진동 4거리에서 평화시위를 전개하며 경주시민에게 조작은폐되고 있는 사건의 경위를 알리는 전단을 배부했다.

本紙1000호 자축연

주간·동인등에 공로및 감사패 전달

숙명(신문) 거제고(교지) 최우수상

「고교 신문·교지경연대회」 시상마쳐

「東大新聞 1천호기념 전국고교신문교지경연대회」 시상식이 지난10일 오전11시 李鳳寬총장, 邢基柱교무처장 宋在璨학생처장 尹鎭燁총무처장 睦楨培비서실장 林英正본사주간및 수상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장실에서 있었다.

건강한 고교문화창달을 목적으로한 이번 대회의 부문별 입상교 및 표제는 다음과 같다.

〈신문부문〉

▲최우수상=숙명여고 「숙란」 ▲특별상=단장고 「인창」 ▲우수상=대전여고 「해광」 ▲장려상=전주상고 「전주상고학보」, 홍천내면고 「석하산」

〈교지부문〉

▲최우수상=거제고 「새물결」 ▲특별상=산업상고 「부월」 ▲우수상=전주여고 「옥잔화」 ▲장려상=논산양촌고 「薰陶」, 서울영남고 「城南」

오는16일 기념행사

한편 東大新聞지령1천호 기념자축연이 오는 16일 오후6시30분 앰배서더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本紙발전에 공이 큰 역대 주간 및 동인회장, 현직 학생기자들에 대해 공로패및 감사패 전달이 있게 된다.

이번 행사의 공로패 감사패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공로패 대상자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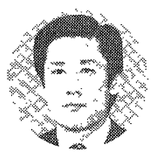
▲金鎭福(제2대 주간) ▲金炳敏(초부간사·12년근속) ◇감사패 대상자 (10명)

▲李相直(제3대 동인회장) ▲黃命(제5대 동인회장) ▲盧建煥(학생기자대표·본사 편집장) ▲尹青光(동인·동국출판사 사장) ▲李昌植(동인·MBC-TV본국장) ▲宣元彬(동인·법보신문 편집국장) ▲鄭政樹(동인·동아일보기자) ▲金炳吉(동인·중앙경제신문 기자) ▲朴先俊(주)애드젠사장 ▲金澤根(동인·경향신문 기자) ▲金鎭福(동인·중앙경제신문 차장)

도서관장에 李順龍씨

학교당국은 지난7일자로 일부 보직교수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에따라 대학원장이 겸임하고 있던▲행정대학원장에 朴昌鎬(행정학과) ▲경상대학장에 鍾燦(국어국문학과) ▲연합신문학과 학생담에 劉永祥(가정교육학과) ▲도서관장에 李順龍(경영학과)교수가각각보직을맡게됐다.



◇朴 행정대학원장

◇李 경상대학장

◇韓 사범대학장

◇李 도서관장

일부 보직 인사 단행

경주 제5대 총학생회·써클연합회도 출범

지난 1일 단대학생회·써클연합회 출범

결주캠퍼스 제5대총학생회·4개단대 학생회, 써클연합회등의 학생회연합출범식이 지난달31일과 지난1일 양일간 교내 일원에서 열렸다.

각단대별로 가진 이번 연합출범식은 첫날 낮12시 인문과학대가 원효관 중정에서 자연과학대가 도서관앞에서, 법정대와 상경대가 진흥관앞 동일광장에서 각각 행사를 가졌다. 이어 2시에는 상경대가 주관한 문화행사 민중가요 강습회가 녹야원에서 약1시간동안 있었다.

또 同장소에서는 여학생회가 주최한 김안숙 (대구여성회) 씨 초청강연회가 「올바른 여성상」이란 주제로 열렸다. 4시30분부터는 탈패공연을 시작으로 써클 연합회가 출범식을 가진뒤 공연앞으로 나가 풋어진 설조기를 함께그리는 대동예술마당이 펼쳐졌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인 1일에는 낮12시 써클연합회의 깃붙이를 동문의 「이땅 청년학도의 할 일」에 대한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제5대 총학생회 출범식은 閔丙天부총장을 비롯 학생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의례, 먼저가신 선배들에 대한 묵념, 5代 길동선(중문3) 회장 인사말, 閔부총장 축사, 서울캠퍼스 20代총학생회장 축사, 단구지역 대학생 대표자 형의회 (의장=입채도·경북대) 의장축사, 한의대 학생회장의 발족준비위원장 의문사 진상조사 경과보고에 이은 이창복 (국문3) 부회장의 투쟁선언문 낭독의 순으로 이어져 모든 출범식 행사를 마쳤다.

출범식을 모두 마치고난 뒤 50여명의 학생들은 박종근동문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교문밖으로 진출하여 경대교에서 약1시간동안 연좌농성을 벌이고 밤8시30분부터 다시 학생30여명이 규탄대회에서 총학생회장 길동선(중문3) 군은 지난달 1일 밤위병으로 근무하던중 의문의 화재사고로 숨진 박종근(한의과 88졸) 동문의 「사인진상조사 경과보고및 은폐조작 규탄대회」가 지난8일 낮12시 30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학생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관중정에서 열렸다. 〈관련기사11면〉

총학사회부장 전찬송(경영3) 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규탄대회에서 총학생회장 길동선(중문3) 군은 인사말을 통해 『군사문화와 권위주의의 의해 무참하게 죽어간 고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폐조작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민당의 김부겸 의원이 경주지구위원장이 등단, 국회진상조사단 파견요청등의 결과보고를 가졌다.

이어서 조영미(생물1) 양의 조사날짜과 방식의 어머니 고금숙(53) 씨의 호소연설이 있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경과보고를 통해 『사인진상규명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은폐조작사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치고 가두시위에 들어간 80여명의 학생들은 성진동 4거리에서 평화시위를 전개하며 경주시민에게 조작은폐되고 있는 사건의 경위를 알리는 전단을 배부했다.

"차군은 군사문화의 희생양"

경주캠퍼스서 경과보고및 은폐조작 규탄대회

학술초청 강연회

14일 동국사학회 추최

동국사학회 (회장 曺永祿 「학술초청강연회」가 오는 14일 오후3시30분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중국 경제사에 있어서의 동양학과 日本九州大 교수와 川勝守(미국Texas大) 교수가 각각 발표하게 된다.

학생증 도서기증

趙昌郁 경주에

상경대 趙昌郁(경영학과) 교수가 지난1일 경주캠퍼스 도서관에 일본역사서등 일본교양도서 96권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도서는 평소 소장하고 있던 책으로 경영학전공도서를 비롯, 일본역사서, 소설류, 역사자료집, 사전류등으로 일어일문학과학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것으로 보인다.

孫海睦 교수

형사법학회회장 피선

본교 孫海睦(법학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강릉 유스호스텔에서 학계인사 법조인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형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피선됐다.

고시委·CPA 장학생 명단발표

고시위도위원회(위원장 韓相範협대학장)와 공인회계사법위도위원회(위원장 李順龍경상대학장)는 88학년도 제2학기 장학생을 선발, 각각 지난5일과 7일, 그 명단을 발표하였다.

교과과정 재편위 정외과 심포지엄 열려

정치외교학과의 「교과과정 재편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1일 오후3시 본교및 타교생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국관 (L301)에서 열렸다.

6월학자투에서 성취한 교과과정재편위원회의 선도자 발족인 윤영돈 정치학도들의 한국사회비판의 올바른 커리큘럼구현을 목적으로 교과과정재편위와 관련, 처음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경과보고, 기조발표, 정치학의 발전설정, 자유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표에서 교과과정재편위원장 이영순(3) 군은 『최우선 목표를 어용·무능교수와 민주·진보적 교수와의 세대교체로 정하고 이를 달성후 타대학보다 진보한 수준의 기초·선택·필수과목등을 정해야할것』이라 밝혔다.

추계 농활실시

18일부터 제원군서

88학년도 추계농촌봉사활동이 오는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제원군 일대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실시된다.

농활 참가 신청은 지난 12일부터 출발 당일인 18일까지 받게되는데 농활장소는 지난 하계농활지역이 되고있다.

「정론」 창간

교지편집위원회서

교지편집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라는 제목으로 「정론」 창간호를 지난2일 발행했다.

이책자는 교지의 사회과학, 정치적 성격을 탈피하고 과·단대별 편집부가 동참할수있는 대중토론의 장을 마련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자료집으로 연4회 정기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출판부수는 5백부로 각과·단대에 제한 배부되었다.

趙昌郁 교수

경주에 도서기증

상경대 趙昌郁(경영학과) 교수가 지난1일 경주캠퍼스 도서관에 일본역사서등 일본교양도서 96권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도서는 평소 소장하고 있던 책으로 경영학전공도서를 비롯, 일본역사서, 소설류, 역사자료집, 사전류등으로 일어일문학과학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것으로 보인다.

孫海睦 교수

형사법학회회장 피선

본교 孫海睦(법학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강릉 유스호스텔에서 학계인사 법조인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형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피선됐다.

고시委·CPA 장학생 명단발표

고시위도위원회(위원장 韓相範협대학장)와 공인회계사법위도위원회(위원장 李順龍경상대학장)는 88학년도 제2학기 장학생을 선발, 각각 지난5일과 7일, 그 명단을 발표하였다.

교원자격취득안내

1. 교직과정

이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들이 소정의 과정과 자격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신청과 절차를 밟아 교원자격증(중등 2급정교사)을 수여받을수 있는 과정이다

2. 교원자격증 취득과정

가. 사범대학 각 교육과졸업
나. 해당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 이수

3. 교직과정 설치학과

별첨 2의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참조할것

4. 교직과정 이수방법및 절차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1) 신청서접수 : 1학년말 신청 (공고)
2) 선발인원 : 졸업정원의 30%이내
나. 교직과목이수
1) 사범계 : 22학점 이수 (※별첨 1 참조, 학번구분없이 이수)
2) 교직과정 : 20학점 이수
다.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9학점 이수
(※별첨 2 참조, 학번구분없이 이수)

5. 교원자격증 발급절차

가. 자격요건 :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소정의 교직과목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을 9학점이상 이수하고 교직및 전공과목 전학년 평균성적이 80점이상이어야 한다.
나. 절 차
1) 4학년말 (매년11월중) 사범대학 교학과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후기졸업자의 경우는 6월중)
2) 졸업식날 신분증·인장을 지참하고 사범대학 교학과, 또는 해당학과(사범대의 경우)에서 교원자격증 수령

<별첨 1> 교직과목및 이수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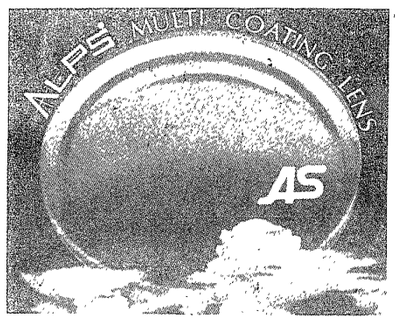
구분	교과목	학점	이수시기 사범	이수시기 대비	이수시기 사대
직	필 교육학개론	2	1—1		2—1
	〃 교육심리	2	1—2		2—2
	〃 교육철학및 교육사	2	1—2		2—2
	〃 교육과정및 교육평가	2	2—1		3—1
	〃 교육사회학	2	2—2		3—2
	〃 교육방법및 교육공학	2	2—2		4—1
	〃 교육행정및 교육경영	2	3—1		4—1
	〃 생활지도 및 지도법	2	3—2		3—1
	〃 교재연구및 교과교육론	2	3—2		3—2
	〃 교육실습	2	4—1		4—1
계			22학점		20학점

<별첨 2> 표시과목의 관련학과및 기본이수영역

표시과목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국어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국문학
수학	수학교육과, 통계학과, 수학과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통계학
과학(물리)	물리학과	일반물리, 전자기학, 원자물리학, 과학일반(생물, 화학, 지학포함)
과학(생물)	농업생물학과	식물학, 동물학, 과학일반 (물리, 화학, 지학포함)
과학(화학)	화학과	무기화학, 유기화학, 과학일반(물리 생물, 지학포함)
사회(일반사회)	법학과, 행정학과, 정외과, 경제학과	법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역사, 지리
사회(역사)	국사교육과, 사회과, 국사학과	국사, 동양사, 서양사, 정치학, 경제학, 지리
사회(지리)	지리교육과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역사, 정치학, 경제학
국민윤리	국민윤리학과	윤리학, 공산주의비판철학, 논리학
체육	체육교육과	학교보건, 체육원리 (실기포함)
미술	미술학과	미술이론(실기포함), 미술사
한문	한문학과	한문해석, 문법, 작문
외국어(영어)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영문학
외국어(독어)	독어독문학과	독어학, 독문학
외국어(중국어)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학, 중국문학
외국어(일어)	일어일문학과	일본어학, 일본문학
가정	가정교육과	영양학, 피복학, 주거학, 가정경영
농업	농학과	농업일반 (작물, 가축사양, 임업, 농업기계 포함)
원예	조경학과	원예일반, 토양비료, 농업경영
임농	임학과	사방및 산림토목, 임업경영, 조림
촌지	농업경제학과	농촌지도
건축	건축공학과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시공
토목	토목공학과	토목설계, 측량, 응용계획
전기	전기공학과	전기이론, 전력계통, 전기기기
전자	전자공학과	전기이론, 전자회로, 전자응용
공화	공화학공학과	화학공업통론, 공업화학, 물리화학
식품	식품공학과	식품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상업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부기회계학, 경영학, 무역학, 상업계산
전자계산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일반, 정보처리, 프로그래밍
교육	교육학과	없 음

사 범 대 학 장

렌즈정보 ALPS 에이에스렌즈



왜? 꼭 "AS렌즈"여야 하는가?

에이에스렌즈는 코팅렌즈의 우수성을 모두 지녔을 뿐만 아니라 렌즈안에 AS마크를 넣어 품질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투과율 극대화 : 아주 선명하게 보이며 눈이 쉬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빛의 반사방지 : 안경이 번쩍거리지 않고 사진에도 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용효과 : 높은 도수의 일반 렌즈는 반사가 더욱 심할뿐만 아니라 눈이 튀어나온것처럼 보이지만 이런점을 모두 해결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 신제품
• AS H-7렌즈 (Super hard coat) : 표면경도를 종전보다 약 3배 강화시켜 흠이 서의 나지않는 프라스틱렌즈
• AS화니렌즈 (Super hard multi coat) : H-7렌즈에다 멀티코팅한 렌즈

눈의 소중함을 아는 AS 한독알프스광학

다시 보는 창간사

Ⅰ

대학은 크나 큰 사회속에서 문화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체이다。그렇다고해서 대학이 사회와 유리된 상아탑이라는 말은 아니다。함상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사회의 무지를 계몽하고 사회의 불평을 해부하며 사회조직의 모순을 걷어내고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한 설계도의 작성을 맡고 있는것이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대학의 권위는 엄연하며 대학의 위신 실추는 곧 국가의 흥망에 영향하는 것이다。따라서 대학은 그 나라 발전의 상징이며 희망인 것이다。솔은 정열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비약의 터전이 대학에서 닦아진다。

Ⅱ

억압적인 언론정책 밑에서 완전히 우민화한 민중이 중세봉건사회에 있어서 농노적인 신분관계를 타파치 못하고 위정자 용단의 희생이된 것은 오로지 철통같은 봉건사회 조직과 그의 엄존한 계급에서 말과 행동의 자유를 剝奪당한 所以라 할것이다。그러나 여하한 봉건사회 조직도 자체내에서 성숙해가는 경제조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세력의 대두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파괴되고 인간의 해방이 왔다。

所謂 政治的·民主主義가 社會發展의 유일한 고올인양 高唱되었던 시대로부터 언론의 자유는 人間의 기본적인 자유권의 하나로서 信奉되었으며 여론의 시대에서 光明의 시대가 전개되고 일부사회의 進展은 눈부신 발전을 보였으나 유독 사상의 진보는 항상 그의 앞장을 섰었고, 언론 사상의 창달에 지도적인 역할을 한것은 新聞이었다。

孤立되고 폐쇄된 사회에서 세계적인 연관을 가진 사회로 변함에 따라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제반사건이 직접적으로 혹은 間接的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나날이 변화해가는 세계의 정세를 민중에게 보도하고 또는 민중의 일반적인 輿論을 환기시켜 도모함에는 전체 복리를 위한 신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Ⅲ

진리의 전당인 大學에 있어서 제기되는 명제는 일상 직접 인류 사회생활과 관계되는 것일 것이다。이곳에대한 학생활의 생생한 움직임이 있고, 불절한 향상이 있으며, 영원한 信義가 있는 것이다。

대학을 마치 사회와 유리되어 있는 존재인 것같이 그릇 해석되었던 옛시대의 관념에는 작금마치 변천을 가져왔고, 진리의 탐구와 그의 실천의 第一戰士인 학도는 社會生活의 중심이 되어있는 것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大學이 완전히 사회와 융합되어 있느것은 아니고 大學은 大學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社會와 깊은 관계에 있으면서 진리의 탐구란 자기 독특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大學의, 大學으로서의 의의가 있는것이다。이 나라에 해방이 온지도 어언六個 星霜, 불행이도 모든 학원은 스스로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치적 혼란속에 휩쓸려 그 혼란을 조장하는 第一人者的활약을 어김없이 해 왔다。

폭력과 모략과 중상이 학원을 뒤덮고, 가장 평탄하고 希望이 있어야 할곳에 알궂이 低迷했으며, 진리 탐구에 대한 의욕은 점차 사라져 가고 퇴폐와 무기력과 발촉만이 제멋대로 跋扈했다。

민족의 탄생과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태풍은 一過했고, 새로운 싹이 트며 시련겪던 희망은 소생하고, 잃어버린 명랑은 옛터로 다시 찾아 들며, 경박은 물러서고 眞摯가 나타났다。스스로 더듬어갈 그 코오스는 결정되었다。더듬어갈 그 코오스를 되도록 빨리 뛰어 고올에 돌진할 때 이와같은 따름이다。本 大學新聞이 지니고 나온 使命은부엇인가。

그러면 한다。

眞理의 전당에서 유동하는 사회의 흐름을 감각한 學徒가 스스로 연마한 진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발표하고, 민중의 지도자로서 자부하는 학도가 사회의 여론을 지도하고 대중을 계몽하는 木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發表機關이며 新聞만이 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本 新聞發行의 목적에 있어서의 본상으로서의 大學의 本質을 천명하고 민족문화선양에 기여하며, 또는 人類가주재하는 역사진행을 정확히 보도함으로써 學生의 生得的·帝王적 學風振作과 여론형성에 이바지 하려는 바이다。

輿論지도와 大衆각성의 사명을 다하는 사회의 木鐸으로

총장 기념사

知性人의 얼을 廣場으로 마련하라

李 智 冠 총장

대학은 學問이 오묵되고 학문이 다원적으로 융성되어야 한다。大學社會가 가지는 기능은溫故知新의 깊이와 폭이 상응할때 학문의 硏鑽과 學術의 이용은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대학이 연구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아니할과 동시에 그 발표를 조직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원용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보면 대학의 얼굴도 커다란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大學言論은 학문연구의 진지성이 실화되면 실화하는 만큼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내면세계의 실천은 바로 대학언론이 갖고 있다고 할 수있다。본교는 술한 발표매체를 갖고 있지만 東大新聞은 知性人의 언론광장으로서 그 몫을 가다듬어 온지 어언 40여개성상이 되었고 또한 그 지령1천호를 制號하게 되었다니 실로 大學言論에 있어서 그 역사가 돌이켜 보면 50년대 초반부터 대학의 얼굴을 개척하기 위하여 몇편안되는 지면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열권지에 버금가는 체제로 대학신문이 大器化되었다는 것은 수喜之感을 금할수없다。

그러나 대학신문은 일반 사회신문과는 상이의 위상을 갖고 있다。사회신문은 正義貫類·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면 大學新聞은 진리·정의·학문·청년·역사등 언제나 학문과 理想에 指標을 잡고 있다고 할것이다。도식적인 고발에 중점을 두는 社會新聞에 비하여 언제나 원인을 탐색하고 해결의 길을 구촉하는것도 도보가 아니될것이다。

대학언론은 역사성의 현존을 간과하는 현안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學問的 言路라고하는 話頭를 놓쳐서는 안될것이다。

우리 신문이 1천호의 역사를 다져오면서 많은 正論이 나왔고 또 학술연구, 논문, 보리수, 대학학화, 문화풍크등등 다양한 대학문화가 만개하였다。

앞으로 이 1천호가 枝擢가 되어 萬萬號가 나와야 할것이다。그리하여 대학언론이 정론이되어 대학은 정신문화대학이 되어야하고 역사를 미래지향역사로, 한국을 통일민족국으로 이끄는 대학미디어가 되어야 할것이다。

끝으로 1천호를 기리기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말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한다」고 일깨우고 있다。

우리의 大學言論이 욕루사미가 되어서는 안된다。시종일관하는 논리와 시종여일하는 愛語가 되어 대학의 진보를 전진으로 개척하여야 할것이다。

오랜 역사동안 동국언론에 이바지한 모든분과 오늘의 대학인 모두에게 부처님의 千葉의 蓮華가 一心蓮으로 개화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紙齡 1千號 기념휘호

鄭 在 哲
총동창회장

동창회장 祝辭

東國一世紀를 바라다보는 이 시점에서 모교의 역사를 기록한 82년의 역사와 전통이 이룩해 낸 또 하나의 영광으로서 가슴이 새기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대신문의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정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당국과 교직원 여러분 특히 동대신문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치하를 드리며 1만5천여 재학생 여러분과 함께 지령1천호를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1950년 창간이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東大新聞이 지령1천호라는 빛나는 榮光을 쌓아 올리한데 어우러져 發展을 계속해온 東大新聞은 東國人 모두의 共有物로서 東國精神의 結集體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령1천호의 짧지 않은 연륜으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균형있게 調和시켜 대학신문으로서 품격있는 편집태도를 지녀온 東大新聞은 오늘의 現實에 안주하지 말고 東國의 지성을 대변한다는 自矜心으로 건전한 學風振作과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며 의연하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學問과 文化를 주도해 나가는데 힘써 줄 것을 기대합니다。

새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또한 보다 높은 이상과 지성을 추구하면서 東國의 참된 발전을 위해 公明正大한 길잡이가 되고 나아가 우리民族의 진로를 밝히는데에도 기여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근래의 大學社會가 구성원의 양적증가와 함께 복잡하고 다양화해지고 있는 추세이나 그 동안 校友와 학생, 동문들의 연탄이

동국과더불어 正論直筆38년…1000호를보는 각계의 목소리

본연의 불을 향하여

김 동 준
<서울 평교협 의장 · 국교과 교수>

흔히 신문은 시대의 철단을 걷는다고 일컬어지고 있다。그러나 조석으로 배달되는 신문의 실상을 살펴보면 사설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시대의 철단을 걷기는커녕 오히려 시대의 뒤안길에 처져서 답보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라는 느낌이 강한 것이다。

신문기사의 세로쓰기 조판은 그 좋은 예의 하나가 된다。독서인구의 압도적 다수는 가로쓰기 세로로 바뀐지 오래다。그리고 그가 한 아나크로니즘에 자리를 느낀 듯 스포츠난에만은 가로쓰기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것은 본질적 개혁이 아닌 호도책에 불과하다。

기사의 배정방식에 있어서도 종합 일간지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보수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1면은 정치기사、2면은 경제기사、3면은 의신기사하는 따위의 역시 일제때부터 내려오는 틀에 박힌 배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문은 독립신문의 그엣날과 다름없이 세로쓰기 조판인 것이다。이 때로 바뀐지 오래다。그리고 그가 한 아나크로니즘에 자리를 느낀 듯 스포츠난에만은 가로쓰기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것은 본질적 개혁이 아닌 호도책에 불과하다。

기사의 배정방식에 있어서도 종합 일간지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보수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1면은 정치기사、2면은 경제기사、3면은 의신기사하는 따위의 역시 일제때부터 내려오는 틀에 박힌 배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제작되어 나오는 신문은 독립신문의 그엣날과 다름없이 세로쓰기 조판인 것이다。이 때로 바뀐지 오래다。그리고 그가 한 아나크로니즘에 자리를 느낀 듯 스포츠난에만은 가로쓰기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것은 본질적 개혁이 아닌 호도책에 불과하다。

기사의 배정방식에 있어서도 종합 일간지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보수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1면은 정치기사、2면은 경제기사、3면은 의신기사하는 따위의 역시 일제때부터 내려오는 틀에 박힌 배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지만 그러한 문제점은 경영을적 정할것없는 대학신문의 장점을 십분 살려 실증취재가 되어야 할것이다。

이 형 기
<동대신문 동인회장 · 국문과교수>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제작방법을 실험해 볼만 하지 않은가

가독이나 줄은 지면에 이런 제약까지 겹치니 기사가 소상해지기 어렵다。그래서 철저히 문제의 뿌리를 파헤치는 실증취재보다 사건의 현상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런한 보수주의의 폐단을 시정하자면 물론 새로운 제작방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 제작방법을 개혁하면 달리진 신문의 낯선 모스에 독자들이 혹시 등을 돌리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독자를 잃으면 경영에 큰 타격을 받으니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개혁보다는 안전한 현상유지를 계속해 나가자는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지령 1천호를 헤아리게 된 東大新聞은 시중 일간지들의 이러한 보수적 제작방법을 본받을 필요가 없다。아무리 파격적인 제작을 해도 결국에 타격을 받을리 없는것이 대학신문이다。그러니 정말 마음놓고 본자 그대로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제작방법을 실험해볼 만하지 않은가? 대학인의 학구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일간신문이 내버린 기사、또는 1단으로 모양만낸 기사중에서도 의외로 큰 문제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당연한 일

편집상의 매너리즘과 독자층의 소극성을 극복, 신문제작의 자율성 키워야

돌째、기다리고 하고、읽게하는 新聞。

기다리게 하고 읽게 하는 신문은 바로 대학의 일이요。대학인의 관심사일 것을 바라는 것이다。학문과、교육도 대학 신문의 기능이지만、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인 것이다。

흔히 관심의 딴돌림이나 관심의 위조로 독자층의 선량한 판단을 오도하는데 익숙해 있다。

설령、학원외적 관심사가 대학인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 치자 그것이 본질적이든 현상적이든 대학내에서 일어난 것이라면、그것은 바로 대학의 것이 아닐 수 없고、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이것들이 대학내의 문제로서 대학에서 축적된 양식적 연륜이나 지성적 이론으로 학생들의 절류 앞에 열마만큼 진정제의 구실을 했는가?

셋째、學生新聞으로서의 〈東大新聞〉。

대학 신문은 교수에게 읽히는 신문이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읽히는 신문이다。

이 때、교수와 학생은 학원의 주체자로서의 명분론적 공동체은 일치하나、대학의 이상의 실현이나、그 구성원의 관계에서는 서로 다르다。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신문의 독자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예산의 독자성이 보장되어야 한다。〈東大新聞〉은 적어도 지금 단계에 이르러서는 독립 예산(책산)이 이루어져야 하고、학교 당국이나 교수의 신문 제작상의 간여가 없어져야 한다。〈東大新聞〉은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지고 〈東大新聞〉이 학생처 소관에서 벗어날 때、발행인:총장、편집인:학생처장、주간:교수 체제의 족쇄에서 벗어날 때〈東大新聞〉도 살고 해방 후 지금까지 원부의 대명사로 여겨진 학생처도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東大新聞 기자생활을 마치진 어느새 19년이 된다。大學캠퍼스를 누비고 다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년이라니…。19년。그동안 東大新聞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인원과 시설은 얼마나 늘었을까。새삼 그동안의 성장여부가 오늘의 大學勢와 함께 떠오른다。

大學이 그 사회의 동맥이라면 大學신문은 그 심장이 할을 해야 한다。심장기능이 왕성해야 大學이 살고 그 사회가 윤택해진다。그렇다면 東大新聞이 얼마나 심장역할을 잘했는지 반성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인지、학생들의 의사를 학교당국에 얼마나 반영시켰는지 지나온길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자세야말로 발전을 위해서 가장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정 정 수
<동아일보편집부 · 70년 경영과卒>

그런의미에서 大學街여론조사를 자주해본다면 어떨까싶다。月1회도 좋고 학기초와 말에 해도 좋다。단지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자세를 취한다는게 중요하다。학생들이 가장 바란다는게 뭔지、교수들이 바라는게 뭔지、東大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뭔지를 알아내고 그에관한 처방을 내려야한다。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나가는 그자세가 바로 大學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아니겠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 총장과 학생의 글을 실어 해결점을 유도하고、4천만 민중의 고통을 진솔하게 알권주고、7천만 민중의 통일염원을 모두에게 아로새기고、사회발전의 원리와 방도들을 실천적으로 제시하고、민족적 정서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동악 공동체 형성을 위해 앞장서온 동대신문!

이러한 동대신문의 위용앞에 부끄럽운 마음으로 몇가지 바램을 합니다。

첫째、타교 신문과 비교해 보았을때 상대적으로 진보적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현재 변혁운동의 발전정도에 걸맞는 진취성을 담보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각인시켜나갈수있는 정치사상적 내용을 강화했으면 합니다。특히 기획물의 수준을 높혔으면 합니다。

변혁운동의 발전정도에 걸맞는 진취성과 정치사상적 기획물 강화를

둘째、신문자체가 더욱 힘을 가졌으면합니다。객관적인 시각속에서 정의에 찬 내용을 거침없이 보도하는 것이 보다 요구되는 것입니다。선배 학형들의 동대신문의 자율성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계승하여 힘을 가졌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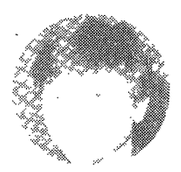
세째、학생회 연대사업에 관한 기사가 너무 부족합니다。바만한도의 연합적 권은 단지 총학생회 임원만이 추구한다고 답보되는 것이 아닙니다。동대가 학생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존재해왔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여 현재에 있어서도 사회발전에 열마나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를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각성하기 위해서라도、천년한도의 단일한 정치적 대오인 서학련·전학련을 내오기 위해서라도 연대사업의 보도는 필수적이라할것입니다。

네째、학생회 사업에 대한 기사가 질적、양적으로 미흡합니다。물론 신문사의 특수한 위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우들의 유일한 조직적 틀인 학생회 사업에대한 안목을 심어주고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야할 것입니다。

지령 천호의 동대신문이 힘찬 내용、진보적 지향을 갖고 더욱 전진할것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동대신문을 바라보는 동대학우의 기대가 학원복귀 사회발전의 이정표를 바라는 것임에、동대신문의 어깨는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전진하는 동대 1만5천학우와 발맞추어 전진하는 학교와 밝은 미래를 향해 몸부림치는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동대신문은 진보의 전도를 밝혀내는 등불이 되리라!



최 재 성
<서울캠퍼스총학생회장 · 불교과4>

우선 지령 1천호를 맞는 동대신문의 성숙한 모습에 축하드리며 지난한 본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반민중적 외세와 일제자무리들에게는 정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바른말의 칼날을 꽂고、민중의 고통을 민족의 이름으로 함께 하고、언제나 전학련 좌표를 제시하여 대학인의 사회역사적 일부를 밝힘과 아울러 동악의 보수의 벽을 허물어 공동체를 재촉했던 그간의 노력은 찬사를 받고도 남는 것입니다。

대학이 사회역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속에서 올바른 인간상을 정립하기위한 탈부와 실천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것은 연관되어 상호작용한다』는 변증법의 대명제로부터 출발하여 대학의 위치를 밝혀내야 합니다。그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참여와 봉사의 역할을 다할때 우리는 대학인으로서、주체성을 갖는 인간으로서 설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대학내에 가장 주요한 대중매체인 신문의 역할은 지대할 수밖에 없고 그 방향 또한 대학의 사회·역사적 원리와 헌실적 제 관계로부터 제시되는것이라 하겠읍니다。

앞제자의 가면을 날날이 벗겨내고 4천만 민중의 통일염원을 모두에게 아로새기고、사회발전의 원리와 방도들을 실천적으로 제시하고、민족적 정서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동악 공동체 형성을 위해 앞장서온 동대신문!

이러한 동대신문의 위용앞에 부끄럽운 마음으로 몇가지 바램을 합니다。

첫째、타교 신문과 비교해 보았을때 상대적으로 진보적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현재 변혁운동의 발전정도에 걸맞는 진취성을 담보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각인시켜나갈수있는 정치사상적 내용을 강화했으면 합니다。특히 기획물의 수준을 높혔으면 합니다。

여론조사 실시와 함께 독자를 생동감있게 만드는 신문이 되도록

또한가지 바란다면 廣州캠퍼스에 방송을 보내주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방법을 모색해볼 단계가 아닌가 싶다。

廣州엔 지역신문이 없다。중앙지나 지방신문이 배달되지만 순수한 廣州지역 신문은 없다。그렇다면 東大新聞이 廣州지역을 카바하는 지역신문 역할까지 맡을수 있고 본다。

인쇄시설을 갖추고 廣州지방소식을 실어주면 東大가 바로 廣州가 되고 廣州가 바로 東大가 되는셈이다。물론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가 큰 숙제로 남는다。그러나 그 점은 연구해나가면 될것이 아닌가。

가만히 있는것보다 시도해본다는 그 자체가 廣州캠퍼스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될것이다。東大新聞의 발전을 빈다。

정 정 수
<동아일보편집부 · 70년 경영과卒>

자주 민주통일로가는 언론의 파수꾼
체제의 족쇄를 떨쳐내야
예산독립으로 제작의 독자성 확보

7천의 뜻을 모두 대변할 수 없으며、단적으로 (신문사의 전화번호가 학생과에 속해있는 것만 봐도) 신문사가 학교 행정으로 부터 독립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이러한 부분들은 7천 동국인 모두가 같이 쟁취해 나가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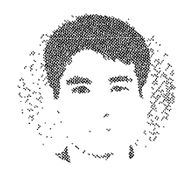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언론창달의 기수임을 자처하며 7천 동국을 대변해 오는 신문사가 실천의 부분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점 입니다。우리들이 지향하는 대학인의 모습은 지식인의 기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지식인 상이 아닐까?이런 부분에서셨을뿐 실천의 장에는 참여가 부족한、실천여론으로서의 위치를 좀더 확고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학 문화의 꽃이며 언론 창달의 기수인 동대신문사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한번 7천 학우를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위에서 지적한 오류점을 시정하여 진정 7천 학우들을 대변하는 기수로서 좀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민족의 양성으로 민중의 주인됨으로 하나되는 모습으로 우리힘차게진군합시다。감사합니다。

민주언론 동대 신문사 만세!

통일염원 44년9월13일



유 재 부
<자대기련 의장 · 건대신문편집장>

정체된 지식인의기자가 아닌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특은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진정 이땅 민중언론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동대신문이 지령1천호를 맞이하였다。

이땅의 언론이 그 본연의 일부인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정권과 결탁하여 「권언복합체」라는 미명아래 철폐와 굴종을 강요당하지 오래되었다。보도지침에 의한 언론조작은 경악을 넘어 슬픔을 느끼게하고 이러한 언론의 상황은대학 신문의 어깨를 더욱더 부겁게 한다。

역사속의 대학、대학속의 대학신문、그 대학신문을 담당하는 기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첫째、「식민지」 조국을 살고있는 청년학도로서의 보편적임무라고 본다。조국에 대한 사랑、민중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사상적 무장이 우선되어야겠다。둘째로 학생운동의 선전·선동 작업의 수행이라고 본다。본단이 지속될수록 민족과 계급모순이 극대화되고 그로인해 대학의 운동논리도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진정 대학신문이 학생들을 대변하고 변혁의 한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면 이 일부의 충실한 이행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역할의 통일적 결합만이 진정 대학신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부단조국 44년、지역하다 다시금 솟아나고/반영하다 두다리가 잘리워도、노래하는 입을 재갈물리워도/뜨거운 피는 폭을 동맥으로 굽이쳐/칼춤을 춘다、낮춤을 추다。

지령1천호를 맞이하는 동대신문이 가야할 길은 너무도 너무나 명하다고 하겠다。대학신문마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라는 피상적이고 자기안정적인 생각으로 이땅 반도의 자주·민주·통일을 외면하는 반동세력과 다를것이 없다고 본다。

조국과 민중에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대학신문 기자가 요구돼

민족과 함께 도약을, 세계와 함께 올림픽을

三星 창립50주년 50 1938-1988

화이팅 코리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韓民族·한우리—
우리 모두 하나되어 88올림픽 성공의 주역이 됩시다.

5천년 비바람치는 모진 역사속에서도 꿋꿋이 민족의 저력을 키워온 韓民族·한우리—
88서울올림픽은 민족의 새로운 신화창조를 위한 시험무대입니다.
민족과 함께 도약을 세계와 함께 성공적 올림픽을—
우리 모두 하나되어 세계로 도약할 때입니다.

민족과 함께, 역사와 함께 커온
여러분의 三星—88올림픽의 성공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1. 다양한 올림픽 문화예술행사 협찬
 ◦이탈리아 라스카라 오페라단 초청공연
 ◦오페라드라마 「불의 아해들」 형가리와 합작공연
 ◦개막 음악제
 ◦런던 컨템퍼러리 무용단 초청 등 국제무용제
 ◦폴랜드 Gardziemca 극단 초청 등 국제연극제
2. 첨단 제품과 기술, 시설 제공 등의 공식후원사업
 ◦삼성반도체통신: 전기통신시설 공식공급
 ◦삼성전자: VTR 카메라 등 전자제품 공식공급
 ◦삼성물산: 캐쥬얼웨어 공식공급
 ◦제일제당: 햄, 소세지 등 육가공품 공식공급
 ◦호텔新羅: 올림픽 본부호텔
3. 올림픽 개폐회식 행사용품(기념품)단독제공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민족 미래 지향하는 언론의 자세로

특별좌담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한 언론의 역할

정직한 통일논의가 분단을 극복한다

언론이 통일의지 분출구 역할해야

「7·4공동성명」과 감상적 취재

「반공국시」하의 통일운동

민중에 의한 통일 사회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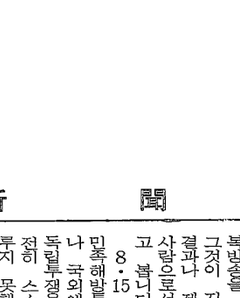
「7·7선언」과 국민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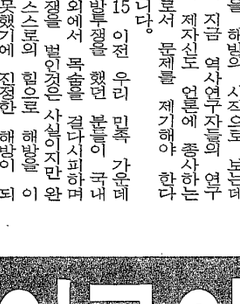
미군과 남북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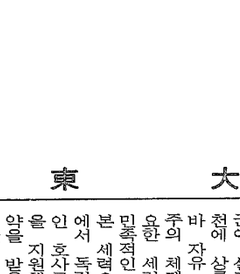
단정수립과 통일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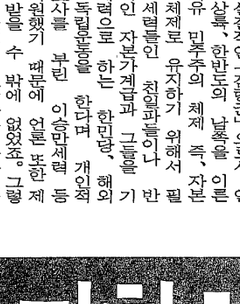
언론의 독재지향성

계급사회 타파과정 없이는 조국통일이 불가능하죠


◇한 상 범


◇김 태 홍


◇윤 용


◇김 종 철

<司會·본교 법과대학장> 한 상 범
<高麗大교수·방송론> 윤 용
<인「말」지 발행인> 김 태 홍
<한겨레신문사 논설위원> 김 종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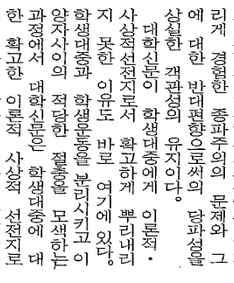
상록수에 앉아가는 태평양화학
좋은 화장품은 피부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첨단피부과학으로 아름다움의 근원을 밝혀가는 아모레
화장품은 최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2, 3년 후나 길게는 10년 뒤,
당신이 간직한 피부의 미래는 어떨까요?
나이따라 피부도 함께 나이를 먹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젊어질까요?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에 따라 피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읍니다.
때문에 피부에 젊음의 가능성,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은 처음 선택이 중요합니다.
좋은 화장품 개발에 앞장서 온 아모레는 피부의 미래까지도
책임지고 있읍니다.
한방물의 물에서 시작되는 아름다움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젊음으로 가득찬 피부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름다운 피부 그때로—'
아모레는 한방물의 물에서부터
젊은 피부, 그 생명력의 신비와 아름다움의
근원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읍니다.
세계 4개국 발명특허의 천연보습인자 P.S.L.과 국내최초로 생명공학을
응용한 BIO-HE연속공정 개발, 초미립자 캡슐화 제조공정의 성공,
천연원료인 월견초유 화장품 응용 등— 아모레는 피부의 미래를 젊게,
아름답게 가꿔 갈 첨단 피부과학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식산업도시 솔을 찾고 식산후도시 이를 넘습니다.

열린 공감대로 변신의 아픔 각오

대학 신문의 발전을 위한 제언

사회변혁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야

욕구와 기대에 부응한 편집을 기대



조 현 우
〈역사비평사 편집인〉

1、머리말

80년대 들어서 우리사회는 그 변화의 폭과 깊이가 더욱 넓고 깊어지는 가운데 진행의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다.

특히 사회변혁을 위한 제반운동세력 및 단체들의 우리사회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실천의 갈도는 이런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사회운동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기층민중운동의 발전에 크게 고무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4·19이래 꾸준히 한국사회변혁의 일익을 담당해온 학생운동과 그 출신자들의 양적, 질적 성장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청년학도들이 갖는 지위와 역할을 일찌기 자각한 학생운동권은 지속적인 반제반파쇼투쟁을 통해 스스로의 생명력을 단련시키고, 그 영향력을 전사회적으로 확대시켜왔다. 특히 올해들어 고양되고 있는 조국통일운동의 세찬 바람은 한국적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청년학도들의 장쾌한 쾌거라 할수있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발전은 이론적 선전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각개별 학교의 「대학신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대학신문 역시 학생운동의 발전과 학생대중의 사회적 의식의 심화와 정치한 이론의 수립에 기여하여 왔다.

이 글은 현재의 시점에서 대학신문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그 상황을 뛰어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을 쓰는 본인이 직접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세한 지적과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미리 밝힌다.

2、몸 말

사회변혁운동의 절적 비약의 계기는 운동역량과 그에 적절한 제반사회환경을 과학적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그에 기반하여 적절한 과제의 설정과, 그 과제의 실현에 의해 주어진다.

80년대들어 한국사회변혁운동은 민족·계급모순의 깊이와 그 상호관련성을 뼈아프게 자각하고 자주·민주통일을 당면 변혁운동의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항쟁이후 각인된 미제국주의의 본질과악과, 작년의 민주화대투쟁및 이후의 노동자 대투쟁의 과정에서 체험한 기층운동의 폭발적 고양에 의해, 실천적 전략전술의 내용을 풍부히 하였다. 이과정에서 사회변혁의 내용과 형식을 밝히기 위한 내부적 이론투쟁의 과제 못지않게 대중운동의 고양과 올바른 지도를 위한 선전의 의미또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하 대학신문의 문제와 그 발전을 위한 제언도 이러한 사회운동 전반에 제기되고 있는 대중운동의 고양과 올바른 지도를 위한 전략배체로서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각대학에서 발간되는 대학신문의 문제점은 학생대중에 대한 사상이론적 선전지로서의 자기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우리운동이 70년대의 소시민적 양상을 극복하고 변혁운동으로서의 자기위상을 정립하면서 학생운동도 그 동안의 여러 편향된 시각과 자세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과거의 잘못된 운동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의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종파주의의 문제와 그에 대한 반대편향으로써의 당파성을 상실한 객관성의 유지이다.

대학신문이 학생대중에게 이론적·사상적선전지로서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대중과 학생운동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이 양자사이의 적당한 절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학신문은 학생대중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사상적 선전지로서의 자기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운동권 논리의 일방적 주입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선전은 각기 그 대상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대상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 때만이 자기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다.

제도적 선전매체가 모두 권력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선전매체를 개발하고, 기존의 것 또한 활용하여야 한다.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학신문이 일방적 대변지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변혁의 선전지로서 학생대중에게 다가가고, 뿌리내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대중선전에 있어서 잘못된 시각은 그것이 (선진적인 논리가) 본질인양 위장되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주입, 전달되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시각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지않는 난해한 논리와 어려운 용어의 범람으로 결과적으로는 선전 그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과거 수다한 논쟁과정에서 특히 사회구성체를 둘러싼 논쟁과정에서, 그리고 변혁운동의 전망을 조망하는 논의과정에서 급조된 신조어들의 범람과 만연에 대학신문이 일조하였다는 사실은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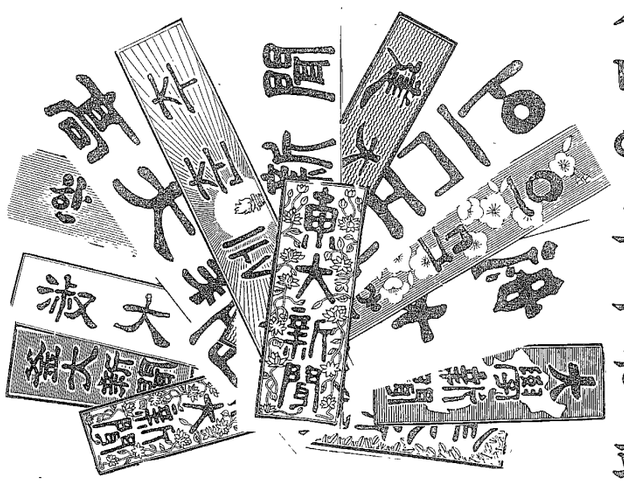
노동조합에서 발간되는 각종의 선전물 혹은 신문들을 보면 오늘날 대학신문이처하고 있는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물론 학생대중의 처지가 노동조합원의 처지와 같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선전물, 신문은 첫째 노동자의 대의에 복무하며, 둘째 현재 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각개별사업장의 수준과 요구에 걸맞게 담겨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제작과 편집과정이 개방되어 있고 또한 노동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발, 명실상부한 개별사업장 운동자들의 신문으로서, 나아가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신문으로서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학생대중, 특히 학생운동가들의 관념적 과격성은 물론 학생운동이 처한 스스로의 상황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부단한 단련과정을 통해 극복해야할 문제이고, 당연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신문과 같은 선전매체를 어떻게 학생대중의 올바른 신문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선진적 논리의 선전, 선동이 아닌 현실에 뿌리박은 대중적 논리가 대학신문의 기본적 성격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변혁의 내용과 현실을 밝히기 위한 내부적 이론투쟁의 과제 못지않게 대중운동의 고양과 지도를 위한 선전의 의미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대학신문이 대중적 선전지로서 자기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의 기획과 내용의 선정에 있어 광범위한 학생대중들의 요구를 수렴할수 있는 방안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학신문의 기고자들의 (학생이건 간에) 충분한 사전학습과 고려가 요청된다. 그리고 대학신문이 현재와 같은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 학생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올바로 담아내는 신문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부단한 연구도 요청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변혁에서 담당하는 선전의 지위와 역할을 인식하며, 대학신문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학생운동 나아가 사회변혁운동의 단단한 지평도 열릴수 있다.

『사람이 말과 글로써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위속에서 변화한다』는 말을 기억하며 대학신문이 말과 글보다 우리의 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바쁜 발걸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현실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3、맺는말

이상 난삽하나마 현재의 대학신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학생대중에 대한 사상적, 이론적 선전지로서의 역할에 국한하여 지적하고 살펴보았다.

특히 이과정에서 지적하고 살핀것은 과도한 양의 정보와 높은 수준의 이론이 일방적으로 전달됨으로써 갖게되는 대학신문의 지위격하의 문제이다. 학생대중으로부터 그 권위와 위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도한 논리가 아니라, 옳은 판단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싶다.

그리하여 대학신문이 일방적인 정보와 소리의 전달이 아니라 학생대중의 의식성장과 발전에 걸맞는 지위를 확고히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이 전적으로 학생대중의 처지에 서서 학생대중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들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되어야 한다.

이상 난삽하나마 현재의 대학신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학생대중에 대한 사상적, 이론적 선전지로서의 역할에 국한하여 지적하고 살펴보았다.

특히 이과정에서 지적하고 살핀것은 과도한 양의 정보와 높은 수준의 이론이 일방적으로 전달됨으로써 갖게되는 대학신문의 지위격하의 문제이다. 학생대중으로부터 그 권위와 위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도한 논리가 아니라, 옳은 판단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싶다.

그리하여 대학신문이 일방적인 정보와 소리의 전달이 아니라 학생대중의 의식성장과 발전에 걸맞는 지위를 확고히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의 기획과 내용의 선정에 있어 광범위한 학생대중들의 요구를 수렴할수 있는 방안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학신문의 기고자들의 (학생이건 간에) 충분한 사전학습과 고려가 요청된다. 그리고 대학신문이 현재와 같은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 학생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올바로 담아내는 신문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부단한 연구도 요청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변혁에서 담당하는 선전의 지위와 역할을 인식하며, 대학신문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학생운동 나아가 사회변혁운동의 단단한 지평도 열릴수 있다.

『사람이 말과 글로써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위속에서 변화한다』는 말을 기억하며 대학신문이 말과 글보다 우리의 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바쁜 발걸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현실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시각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지않는 난해한 논리와 어려운 용어의 범람으로 결과적으로는 선전 그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과거 수다한 논쟁과정에서 특히 사회구성체를 둘러싼 논쟁과정에서, 그리고 변혁운동의 전망을 조망하는 논의과정에서 급조된 신조어들의 범람과 만연에 대학신문이 일조하였다는 사실은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에서 발간되는 각종의 선전물 혹은 신문들을 보면 오늘날 대학신문이처하고 있는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물론 학생대중의 처지가 노동조합원의 처지와 같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선전물, 신문은 첫째 노동자의 대의에 복무하며, 둘째 현재 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각개별사업장의 수준과 요구에 걸맞게 담겨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제작과 편집과정이 개방되어 있고 또한 노동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발, 명실상부한 개별사업장 운동자들의 신문으로서, 나아가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신문으로서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학생대중, 특히 학생운동가들의 관념적 과격성은 물론 학생운동이 처한 스스로의 상황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부단한 단련과정을 통해 극복해야할 문제이고, 당연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신문과 같은 선전매체를 어떻게 학생대중의 올바른 신문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선진적 논리의 선전, 선동이 아닌 현실에 뿌리박은 대중적 논리가 대학신문의 기본적 성격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시대정의 구현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지향논리 여과하는 대학인의 「올림場」 역할을

대폭적 논리개방으로 맹종과 일방결정 추방

토론과 이성과 사색의 광장으로도

時代의 아픔은 곧 젊은이의 고뇌이다. 우리사회 어느 집단보다 순수한 대학사회가 그간 열렬을 앓아온 것도 근본원인은 사회現理에 기인한다. 이렇게 대학의 생각과 정열을 기록하는 대학신문 또한 80년대 들어 진통을겪으며 녹랑운 변모를 가져왔다. 대학신문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흘러가야 하는가.

고뇌하는 젊은이의 아픔은 곧 시대정의 구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뇌가 자칫 현실과 유리된 관념의 유희로 떨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학사회의 젊은 지성들이 현실과 유리된 관념의 유희로 떨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학사회의 젊은 지성들이 현실과 유리된 관념의 유희로 떨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학신문은 학생대중의 정신적 지주로서 학생대중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학생대중의 정신적 지주로서 학생대중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학생대중의 정신적 지주로서 학생대중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학원의 눈에 비친 세태는 한심할 것이고, 따라서 뜨거운가슴에서 뿜어나오는 순수한 열기는 혁명의 색채를 띠게 된다.

5공화국(?)라면 사회 각부문의 성역(聖域)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反美와 統一의라 불수 있다. 대학의 이상과 사회적 현실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광주항쟁이후 각인된 미제국주의의 본질과악과, 작년의 민주화대투쟁및 이후의 노동자 대투쟁의 과정에서 체험한 기층운동의 폭발적 고양에 의해, 실천적 전략전술의 내용을 풍부히 하였다. 이과정에서 사회변혁의 내용과 형식을 밝히기 위한 내부적 이론투쟁의 과제 못지않게 대중운동의 고양과 올바른 지도를 위한 선전의 의미또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하 대학신문의 문제와 그 발전을 위한 제언도 이러한 사회운동 전반에 제기되고 있는 대중운동의 고양과 올바른 지도를 위한 전략배체로서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각대학에서 발간되는 대학신문의 문제점은 학생대중에 대한 사상이론적 선전지로서의 자기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우리운동이 70년대의 소시민적 양상을 극복하고 변혁운동으로서의 자기위상을 정립하면서 학생운동도 그 동안의 여러 편향된 시각과 자세를 극복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과거의 잘못된 운동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의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종파주의의 문제와 그에 대한 반대편향으로써의 당파성을 상실한 객관성의 유지이다.

대학신문이 학생대중에게 이론적·사상적선전지로서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대중과 학생운동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이 양자사이의 적당한 절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학신문은 학생대중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사상적 선전지로서의 자기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운동권 논리의 일방적 주입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선전은 각기 그 대상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대상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 때만이 자기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다.

제도적 선전매체가 모두 권력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선전매체를 개발하고, 기존의 것 또한 활용하여야 한다. 광범위한 학생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학신문이 일방적 대변지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변혁의 선전지로서 학생대중에게 다가가고, 뿌리내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대중선전에 있어서 잘못된 시각은 그것이 (선진적인 논리가) 본질인양 위장되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주입, 전달되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시각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지않는 난해한 논리와 어려운 용어의 범람으로 결과적으로는 선전 그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과거 수다한 논쟁과정에서 특히 사회구성체를 둘러싼 논쟁과정에서, 그리고 변혁운동의 전망을 조망하는 논의과정에서 급조된 신조어들의 범람과 만연에 대학신문이 일조하였다는 사실은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에서 발간되는 각종의 선전물 혹은 신문들을 보면 오늘날 대학신문이처하고 있는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물론 학생대중의 처지가 노동조합원의 처지와 같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선전물, 신문은 첫째 노동자의 대의에 복무하며, 둘째 현재 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각개별사업장의 수준과 요구에 걸맞게 담겨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제작과 편집과정이 개방되어 있고 또한 노동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발, 명실상부한 개별사업장 운동자들의 신문으로서, 나아가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신문으로서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학생대중, 특히 학생운동가들의 관념적 과격성은 물론 학생운동이 처한 스스로의 상황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부단한 단련과정을 통해 극복해야할 문제이고, 당연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신문과 같은 선전매체를 어떻게 학생대중의 올바른 신문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선진적 논리의 선전, 선동이 아닌 현실에 뿌리박은 대중적 논리가 대학신문의 기본적 성격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변혁의 내용과 현실을 밝히기 위한 내부적 이론투쟁의 과제 못지않게 대중운동의 고양과 지도를 위한 선전의 의미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대학신문이 대중적 선전지로서 자기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의 기획과 내용의 선정에 있어 광범위한 학생대중들의 요구를 수렴할수 있는 방안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학신문의 기고자들의 (학생이건 간에) 충분한 사전학습과 고려가 요청된다. 그리고 대학신문이 현재와 같은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 학생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올바로 담아내는 신문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부단한 연구도 요청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변혁에서 담당하는 선전의 지위와 역할을 인식하며, 대학신문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학생운동 나아가 사회변혁운동의 단단한 지평도 열릴수 있다.

『사람이 말과 글로써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위속에서 변화한다』는 말을 기억하며 대학신문이 말과 글보다 우리의 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바쁜 발걸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현실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시각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지않는 난해한 논리와 어려운 용어의 범람으로 결과적으로는 선전 그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과거 수다한 논쟁과정에서 특히 사회구성체를 둘러싼 논쟁과정에서, 그리고 변혁운동의 전망을 조망하는 논의과정에서 급조된 신조어들의 범람과 만연에 대학신문이 일조하였다는 사실은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에서 발간되는 각종의 선전물 혹은 신문들을 보면 오늘날 대학신문이처하고 있는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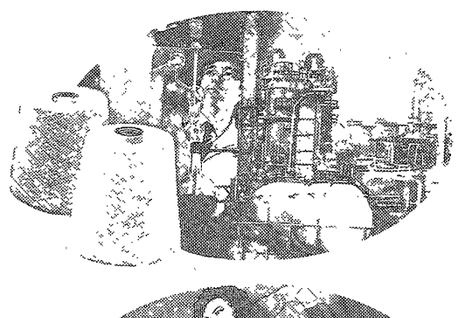
물론 학생대중의 처지가 노동조합원의 처지와 같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선전물, 신문은 첫째 노동자의 대의에 복무하며, 둘째 현재 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각개별사업장의 수준과 요구에 걸맞게 담겨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제작과 편집과정이 개방되어 있고 또한 노동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발, 명실상부한 개별사업장 운동자들의 신문으로서, 나아가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신문으로서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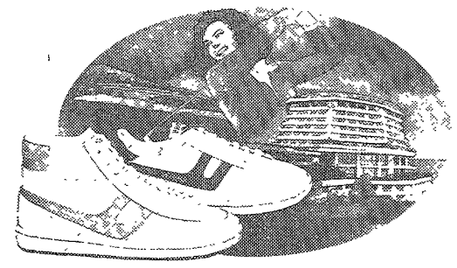
학생대중, 특히 학생운동가들의 관념적 과격성은 물론 학생운동이 처한 스스로의 상황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부단한 단련과정을 통해 극복해야할 문제이고, 당연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신문과 같은 선전매체를 어떻게 학생대중의 올바른 신문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선진적 논리의 선전, 선동이 아닌 현실에 뿌리박은 대중적 논리가 대학신문의 기본적 성격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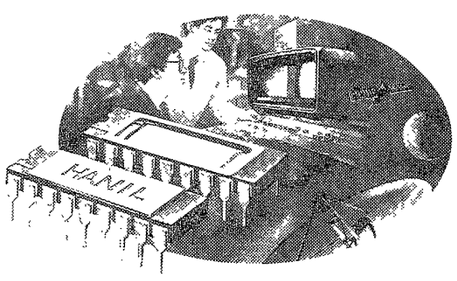
김 택 근
〈同門·경향신문 편집기자〉



섬유·화학을 통해 생활을 풍요롭게
세계 최대규모의 아크릴 생산을 자랑하는 한일합섬,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고급복지 전문메이커
정남모직 등으로 세계속에 섬유한국을 심어 온 한일그룹—
이형단변사·도전성섬유 등을 개발해 화학섬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한일그룹은 신소재섬유·
고분자재료·정밀화학분야에도 적극 참여, 풍요로운
생활을 앞당기고 있읍니다.



레저·스포츠를 통해 생활을 건강하게
스포츠제품과학연구센타를 운영,품질개선·소재개발 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일그룹—
한국의 상표 프로스펙스로 스포츠과학을 실현,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생활분화를 창조해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하얏트 리젠시 제주와 부산,통도컨트리클럽 등의
휴양시설과 레저공간을 갖추고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연구개발(R & D)센타' 설립을 통해 21세기 기술집약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한일그룹—
각종 통신전자제품 분야에 참여하여 국산화를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한일그룹은 국제적으로도 초기기술단계에
있는 갈륨비소(GaAs)반도체 및 광통신소자 생산을
추진, 고도 정보화시대를 겨냥한 편리한 생활을 앞당기고
있읍니다.

한올의 실에서 첨단 반도체까지—韓一그룹

작은 뜻을 모아 큰 일을 이루는 한일그룹의 기업정신이 산업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읍니다.

韓一그룹 ※한일합섬 ※국제상사 ※경남모직 ※동서석유화학 ※부국증권 ※하얏트리젠시-제주 ※하얏트리젠시-부산 ※진해화학 ※통도컨트리 ※한효건설 ※한효개발 ※연합물산

선정과 심층적 분석 시급하다"

지령1000호 기념 독자여론조사

Ⅰ、분석에 들어가며

이번 조사는 총5백부의 설문지 중 4백45부가 회수된 것을 살펴본 것. 응답률은 59%, 학생 3백57명(서울:2백38, 경주:1백18), 대학원생 29명등이었다.

이들중 교수는 모집단의 명부에 기초하여 이명부에서 네번째 사람을 뽑는 系統標集(Systematic)에 의거해 실시했는데 명부는 본교 윤람에있는 서울캠퍼스 재직교수 2백70여명의 명단에 기초했다.

학생들의 경우는 서울캠퍼스는 8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학과별, 단과대별 모집정원에 의거 규모비례확률(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PPS) 標集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했다. 반면에 대학원생들이나 경주캠퍼스 학생들도 조사대상의 문제가 뒤따라 위표집을 택했다.

신분을 비롯한 연론매체가 일반적으로 독자에게 내보이기만 하는 데에 머무르면 스스로의 아집이나 독단에 빠질수 있을것이다. 특히 최근 일반언론매체들이 대학신문을 「이데올로기적 편향설」이나 「급진좌경논리의 전파체」니 하면서 지나친 비판의 대상화 시키고 있다. 한국의 언론, 민중언론과 권언유착언론등 많은 언론에 대한 비관적이고도 부정적인 단어의 출현을 보아왔다. 이렇게 볼때 기성언론과 다른 특성을 지닌 대학언론의 대학신문이 급박한 한국현대사의 급류속에서 대학내 정보지, 상아탑의 학술지내에서 머물러 있을 수 만도 없었던것은 당연하다.

양심세력을 대변하고 열린 문화의 부양, 민중이데올로기의 확산, 한국사회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국의 민주화와 민족해방의 시대를 앞당긴다는 대학신문의 발전을위해 비판의 지적을 해 주신 여러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Ⅱ、서울 캠퍼스

1、우리신문에 대한 관심도

먼저 우리신문사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으로 우리 신문사가 「학생회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는 교수와 학생이 각각 80·8%, 76·3%를, 「동국대학교를 대표하는 언론매체이다」엔 76·3%, 78·7%, 「매주1회 화요일 제작하여 수요일에 배포한다」에는 71·2, 72·4%등으로 비교적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신문의 제작이 「전적으로 학생 기자에 의해 이루어진다」에는 교수와 학생이 각각 42·4%, 40·5%를 보여 우리 신문의 자율제작에는 부정적 의문을 나타냈다.

우리 신문의 질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나은 편이다 30·5%, 별차이가없다가 45·8%를보였다. 교수들은 우리 신문중 가장 관심있게 읽는 면은 취재면(49·1)·학술면(28·8)·기획·특집면(6·8) 시사면(5·1)의 순을 보였다.

우리 신문의 학내 정보수집등력은 보통이다(64·4)고 그저 그렇다(17)·좋은편이다(11·8)를 보였으나 취재기사의 객관성에는 객관적이다에 52·5%, 그저 그렇다에 25·4%를 나타냈다.

학술편의 기능면에는 그저 그렇다(66·1%)、만족한다(20·3%)로 본란이다(6·8)의 순으로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다.

사설에대해서는 66·1%가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있다 고한반면, 객관성을 지키지 못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반면 현재 그대로 좋다가 40·9%에 달해 보수성을 드러냈다. 또 교수들은 앞으로 기사내용에 있어 자연과학(27·1)·기획·특집(25·4)·사회과학(20·3)·인문과학(10·2)기사 순으로 많이 다루기를 바랐으며, 독자의 부관심(49·2)을 우리신문의 가장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수들은 현 대학신문의 위상은 「학교와 학생신문이어야 한다(54·3%)가 높은 반면, 학생신문 학교신문에도 17%와 13·5%를 각각 보였다.

대학신문의 기능에 대해서는 대학문화창달(35·9%) 학문달무의활성화(20·6%) 학교내여론형성(19·6%) 갈등중화 지식전달(15·2%)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같은 일장에서 볼때

"다양한 주제"

또 학생들은 우리신문이 더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로 사회과학(28·5%) 시사·논평(21·8%) 기획·특집(18·4%) 자연과학(15·1%) 기사순을 보였으며 보다 나은 신문제작을 위한 우리신문의 가장 문제점은 독자의 무관심 30·5%(27·6%)으로 교수들의 의견과 같았으며, 이어 제도적 보장의 미비 23·0% 학교당국의 간섭 22·2% 기자의 역량 15·1%등의 순을 보여 자유언론은 실천을 통해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해야한다는것을 암시하고있다.

현대학신문의 위상은 학생신문이어야 한다가 56·5%(48·3%) 학교와 학생신문이어야한다가 34·7%(44·8%)를 보였다.

학생들은 대학신문의 기능에 대해서는 교수들과 상당히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교수들의 56%가 대학문화창달을 꼽았던 것에 비해 학생들은 자유언론 현실비판이 35·4%(35·7%)를 차지, 가장 높았다. 이어 대학문화 창달 26·3%(23·8%) 각종정보와 지식전달 16·2%(16·7%) 학교당국의 여론형성 15·2%(11·9%)의 순을 보였다.

이와같은 맥락에서인지 신문에 있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언론 정립이 41·8%(41·4%)나 차지했고, 대학문화창달도 37·3%(51·7%)에 이르렀다. 그외 여론주도가 9·6% 운동권 논리제공이 각각 7·1%를 보였다.

우리신문의 역할에 대해서도 대학 여론형성기능이 51·1%(55·2%)로 가장 높았고, 학교발전을 위한 홍보가 20·1%(17·2%) 사회민주화에 기여가 8·8%(6·9%)를 보였다.

신문에 투고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가 26·4%(20·7%) 글 쓰는 소질이 없어서 23·8%(17·2%) 관심이 없어서 20·9%(13·8%)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몰라서 13·8%순을 보여 주었는데 대학원생은 시간이 없어서가 24·2%에 달했다.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우리신문의 고정난중에서 매번 읽거나 자주읽는 것은 만화인 여로니가 75·0%로 가장높았고, 이어 독국만평 60·5% 카메라 데상 55·2% 회전무대 46·2% 메아리 45·9% 새책안내 41·8% 동아광장 40·3% 사설 38·3% 동아로 38·1% 보리수 33·1%등의 순이었다.

Ⅲ. 경주 캠퍼스

1. 관 심 도

경주캠퍼스 학생들의 동대신문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이 있는 편이다(50·8%) 그저 그렇다(25·4%) 매우 관심이 많다(18·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신문을 열심히 읽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필요한 부분만 읽는다(70·3) 철저히 다읽는다(16·1%) 대충 제목만 읽어본다(9·3%) 등의 순서로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각자 성향에 맞는 필요한 부분만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 전체적인 평가

우리신문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와 우리신문에 대한 독자의 전체적인 평가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신문이 다른 대학의 신문과 비교할 때, 질은 어느 정도인가의 질문에 별차이가 없다(46·6%), 조금떨어진다(27·1%), 조금나은 편이다(24·6%) 등의 순서로 우리신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내 정보수집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50·6%), 그저 그렇다(24·6%), 부족하다(21·2%) 등의 순서로 답해 우리신문이 학내정보수집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견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기사의 객관(공정) 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이다(50%), 그저 그렇다(24·6%), 대체로 객관적이지 못하다(1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우리신문의 칼럼에 대한 의견은 다소 부족한 면은 있으나 관점은 좋은 편이다(57·6%) 논조가 편향해 보인다(22·9%) 의 순으로 칼럼에 대해서는 관점을 올바로 잡았음에도 시각이나 글내용이 미흡해 독자에게 이질감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우리신문의 필진에 대해서는 학생의 글이 많이 실려야 한다(22%) 타대학 교수들의 글이 많이 실려야 한다(11%) 등으로 응답했다.

이것은 학생들의 경우 본교 교수의 글이 많이 실리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결국 서울캠퍼스에서 나타난 외부교수에 대한 반발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신문에 실리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52·5%), 의미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30·5%), 적절하다(15·2%) 등으로 응답했다.

서울·경주 캠퍼스 기사에 있어 균형적인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서울중심으로 기사가 배치되고 있다가 76·2%나 차지하는 반면,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에는 1·7%밖에 안되어 경주학생들의 기사균형에 대한 불만이 강한것을 알수있다.

우리 사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에서는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있다(74·6%), 객관성을 지키지 못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11%) 등의 순으로 우리 신문의 사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결과는 사설의 집필능력과 주제선정에서 정확함을 일컫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각면에 대한 평가

가장 관심있게 읽는 경우 어느 면인가에 대한 물음에 취재면(27·9%), 시사면(27·1%), 기획·특집면(23·7%) 등의 순서로 집계돼 취재·시사·기획·특집면들이 신문의 가장 관심있는 면으로 평가되었다.

시사면에 대한 물음에서는 적절하다 객관적이지못하다 다(33%) 시각은 좋은데 시각설에 뒤진다(24·6%),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올은 시각으로 분석한다(19·5%) 등의 순으로 주제는 적절한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각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나 시각은 올은데 시각이 없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 등의 순으로 주제선정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나 실도있는 분석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여 주제를분석하는 필자의 선정과 시각에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면(6·8면)에 대한 물음에서는 적절한 문화기사는 실리고 있으나, 학생들의 문예물은 적은 것 같다(44·9%), 학생들의 문예물은 많이 실리나 문화기사가 충실치 못하다(16·9%), 학생들의 적절한 문화기사와 학생들의 문예물 모두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문화활해를 요구한다고 보여진다.

4. 대학신문의 기능과 위상

대학신문의 기능에 대한 물음에서는 대학문화창달(40·7%), 자유토론·현실비판(2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신문의 위상에 대한 물음에는 학교와 학생신문이어야 한다(45·8%) 학생신문 배부방법에 있어서는 현재의 방법이 좋다(66·9%), 학과별 인원수대로 배부했으면 한다(13·5%), 제한배부로 더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해야 한다(12·7%) 등으로 현재 자율 배부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일부 제한배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신문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물음의 결과에서는 독자의무관심(43·2%), 제도적 보장의미비(16·1%), 학교당국의 간섭(14·4%) 등의 순으로 독자들의 관심유도와 제도적 보장의 확보가 우리신문의 가장 큰 문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보았다.

우리신문이 앞으로 더 다루었으면 하고 바라는 기사에 대한 물음에서는 사회과학기사(27·1%), 기획특집(25·4%), 시사논평(22·9%), 자연과학(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에는 그만한 우려와 관심이 많다(18·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신문을 열심히 읽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필요한 부분만 읽는다(70·3) 철저히 다읽는다(16·1%) 대충 제목만 읽어본다(9·3%) 등의 순서로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각자 성향에 맞는 필요한 부분만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 전체적인 평가

우리신문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와 우리신문에 대한 독자의 전체적인 평가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신문이 다른 대학의 신문과 비교할 때, 질은 어느 정도인가의 질문에 별차이가 없다(46·6%), 조금떨어진다(27·1%), 조금나은 편이다(24·6%) 등의 순서로 우리신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내 정보수집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50·6%), 그저 그렇다(24·6%), 부족하다(21·2%) 등의 순서로 답해 우리신문이 학내정보수집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견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기사의 객관(공정) 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이다(50%), 그저 그렇다(24·6%), 대체로 객관적이지 못하다(1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우리신문의 칼럼에 대한 의견은 다소 부족한 면은 있으나 관점은 좋은 편이다(57·6%) 논조가 편향해 보인다(22·9%) 의 순으로 칼럼에 대해서는 관점을 올바로 잡았음에도 시각이나 글내용이 미흡해 독자에게 이질감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우리신문의 필진에 대해서는 학생의 글이 많이 실려야 한다(22%) 타대학 교수들의 글이 많이 실려야 한다(11%) 등으로 응답했다.

이것은 학생들의 경우 본교 교수의 글이 많이 실리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결국 서울캠퍼스에서 나타난 외부교수에 대한 반발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신문에 실리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52·5%), 의미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30·5%), 적절하다(15·2%) 등으로 응답했다.

서울·경주 캠퍼스 기사에 있어 균형적인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서울중심으로 기사가 배치되고 있다가 76·2%나 차지하는 반면,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에는 1·7%밖에 안되어 경주학생들의 기사균형에 대한 불만이 강한것을 알수있다.

우리 사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에서는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있다(74·6%), 객관성을 지키지 못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11%) 등의 순으로 우리 신문의 사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결과는 사설의 집필능력과 주제선정에서 정확함을 일컫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각면에 대한 평가

가장 관심있게 읽는 경우 어느 면인가에 대한 물음에 취재면(27·9%), 시사면(27·1%), 기획·특집면(23·7%) 등의 순서로 집계돼 취재·시사·기획·특집면들이 신문의 가장 관심있는 면으로 평가되었다.

시사면에 대한 물음에서는 적절하다 객관적이지못하다 다(33%) 시각은 좋은데 시각설에 뒤진다(24·6%),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올은 시각으로 분석한다(19·5%) 등의 순으로 주제는 적절한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각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나 시각은 올은데 시각이 없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 등의 순으로 주제선정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나 실도있는 분석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여 주제를분석하는 필자의 선정과 시각에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면(6·8면)에 대한 물음에서는 적절한 문화기사는 실리고 있으나, 학생들의 문예물은 적은 것 같다(44·9%), 학생들의 문예물은 많이 실리나 문화기사가 충실치 못하다(16·9%), 학생들의 적절한 문화기사와 학생들의 문예물 모두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문화활해를 요구한다고 보여진다.

4. 대학신문의 기능과 위상

대학신문의 기능에 대한 물음에서는 대학문화창달(40·7%), 자유토론·현실비판(2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신문의 위상에 대한 물음에는 학교와 학생신문이어야 한다(45·8%) 학생신문 배부방법에 있어서는 현재의 방법이 좋다(66·9%), 학과별 인원수대로 배부했으면 한다(13·5%), 제한배부로 더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해야 한다(12·7%) 등으로 현재 자율 배부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일부 제한배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신문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물음의 결과에서는 독자의무관심(43·2%), 제도적 보장의미비(16·1%), 학교당국의 간섭(14·4%) 등의 순으로 독자들의 관심유도와 제도적 보장의 확보가 우리신문의 가장 큰 문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보았다.

우리신문이 앞으로 더 다루었으면 하고 바라는 기사에 대한 물음에서는 사회과학기사(27·1%), 기획특집(25·4%), 시사논평(22·9%), 자연과학(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에는 그만한 우려와 관심이 많다(18·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신문을 열심히 읽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필요한 부분만 읽는다(70·3) 철저히 다읽는다(16·1%) 대충 제목만 읽어본다(9·3%) 등의 순서로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각자 성향에 맞는 필요한 부분만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 학생및 대학원생 견해

학생들이 우리신문에 신설되거나 주제에 대해 바라는 내용중에는 ▲학생운동을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학내 각 써클에 대한 소개및 현황, 아르바이트안내, 낙서나 스포츠난, 타대학교및 사회일반에 대한 기사, 일반학생고정 칼럼, 취업란 및 동문들의 활동현황, 여성문제에 대한 관련기사, 슬프불, 분신불게시판이 신설됨으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정보제공과 학생들의 신문참여에 놓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경주 캠퍼스에서는 경주만이나 경주지역에 대한 동소이하게 나타났으며, 학술면에 대한 요구와 기획, 연재물을 통한 각 분야 심층분석을 일반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나타났다.

우리신문에 대한 바램에서는 시사성과 혁신적 내용을 요구하거나 폭넓은 독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길 바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신문의 구성이 산만하다 ▲운동권 학생들의 대변지다 ▲객관성을 잃고 있다. ▲기사에 있어 실증적과 해석이 필요하다나 ▲외부의 압력에 용기있게 대처해야 한다. ▲외국의 예를 이끌어야 한다. ▲새책 소개난이 편협하다. ▲배포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요구된다. ▲기자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으로 본다.

요구했다.

또한 우리신문에 바라는 내용중에는 기존사회의 제도 언론들이 간과하는 기사및 내용에 대해 용기와 소신을 가져주길 당부한다는 는 것과 참신한 소재와 늘용정인 취재및 편집,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특정인의 사고만 대변한다 ▲기획이 시사성 위주로 치우친다 ▲학술에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대학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 신문매체로서 노력해야 한다등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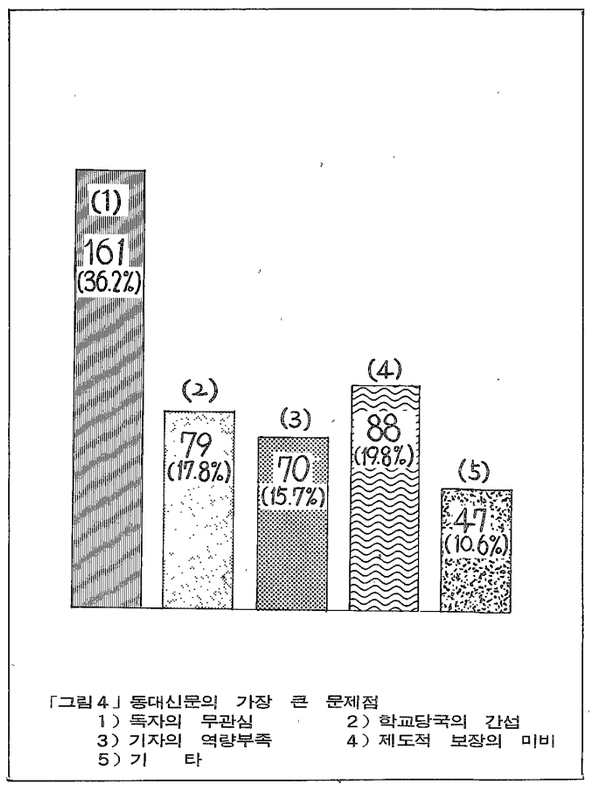
Ⅳ. 요구사항및 기타

1. 교수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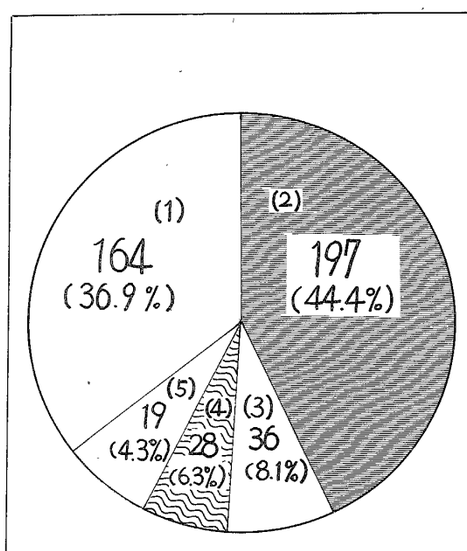
우리신문에 신설했으면 하는 난이나 주제에 대해서 교수들은 각 분야의 국내의 학계동향 및 실로 있는 학술논문,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위상의 여론주도, 특정인의 사고 보다는 객관성있는 내용게재 학문탐구의 활성화를 위한 불포섭, 학생들이 교수·학교등에 바라는 서편의 난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나타났다.

우리신문에 대한 바램에서는 시사성과 혁신적 내용을 요구하거나 폭넓은 독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길 바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신문의 구성이 산만하다 ▲운동권 학생들의 대변지다 ▲객관성을 잃고 있다. ▲기사에 있어 실증적과 해석이 필요하다나 ▲외부의 압력에 용기있게 대처해야 한다. ▲외국의 예를 이끌어야 한다. ▲새책 소개난이 편협하다. ▲배포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요구된다. ▲기자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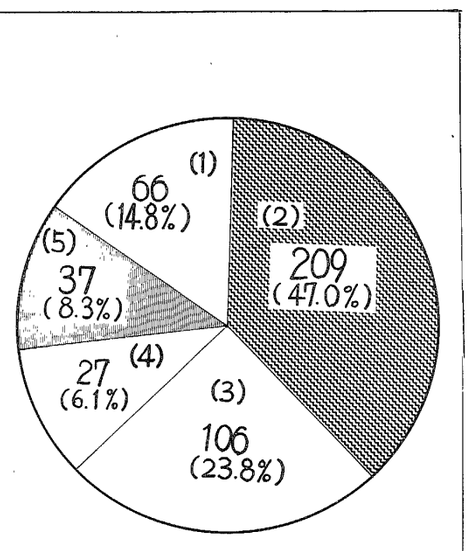
〈조사부〉



「그림 4」 동대신문의 가장 큰 문제점
1) 독자의 무관심 2) 학교당국의 간섭
3) 기자의 역량부족 4) 제도적 보장의 미비
5) 기 타



「그림 3」 동대신문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1) 자유언론의 위상 정립
2) 대학문화의 창달 역할
3) 여론주도
4) 운동권 논리 제공
5) 기 타



「그림 2」 필진에 관한 의견
1) 本校교수의 글이 많이 실려야한다
2) 학생의 〃
3) 외부전문가의 〃
4) 他大교수의 〃
5) 기 타

역할면…"학내여론형성 52.2%" "학교홍보에기여 20.6%"

Ⅴ. 분석을 마치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는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매널리즘에 매몰되거나 대학신문이 현실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인지할 때 새로운개혁의 의지와 독자에 기초한 신문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에 조사방법과 평가에 있어서 부족함에도 노력이라는 의의 하나만으로도 이번 설문조사는 결실이 있었다 하겠다.

이번 설문조사는 특히 우리신문에 보탬이 될수있는 내용이 많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었다.

전체적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는 의미전달의 부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원인은 기본적인 기자의 취재자세에서 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자세가 요구되여지며 추상적, 관념적등의 기사는 가급적 자제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정성내지 객관성의 문제에서는 우리신문의 위상과 학교발전의 연장선속에서 독자가 수긍할 수있는 기사들이 채택되어야한다.

흔히 독자에게 「알권리」와 함께 「선택할 책임」을 신문에서는 부여한다. 신문에서는 모든 정보와 기능, 소식등을 충분한 시각과 객관성을 가지고 독자에게 알려주면서 독자는 발안들이는 정보와 기사에 있어 신문을 비판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신문이 올바로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말이다.

일방적인 강요와 요구만으로는 충분한 만족을 얻지못한다. 독자는 수동적인 기자이면서 가장 능동적인 편집자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학신문의 위상이 건하이 넘이나 그 대학의 목적의식적 노력보다는 기자의 주관성이나 능동적인 독자에 따라 표면적으로 성격이 규정지워지고 있다. 이렇게 대학신문의 위상이 설격지워진 상태에서 학교의 발전과 대다수 수동적인 독자들에게 나타날수 있는 현상중의 하나는 신문과 독자의 실리감 조장이다.

우리신문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은 많은 요구와 기대속에서도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제3자로서의 모습이라 하겠다. 좋은 신문과 많이 읽히는 신문은때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좋다는 것은 많이 읽힌다는 것을 일을함에도 과연 독자나 기자의 과학적 인식과 참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의문이 제기 될 때 보다 정확한 대중과 독자의 의식 (관심도) 파악되지 고않선는 불명확한, 또는 소수에 의한 여론조장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속에 독자의 기호에 가장 적합한 신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분석된 평가들이 이뤄지는데 앞서가 노력해야 할것으로 본다.

코오롱은 저에게는 가정이나 고향과 같은 정을
느끼게하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공채 4기로 입사, 대규모 기업으로 발전해온 코오롱의
모습도 바로 젊음과 정열로 일해온 보람의 기쁨입니다.
특히 입사초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저의 리포트가
후배들에게 좋은 참고서로 읽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뿌듯한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원서라면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구해다 주는 교육에 대한 철저한 뒷받침, 개인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힘껏 밀어주시던 상사들, 그리고 최선을 다한 뒤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 만약 이런 뒷받침과 상사들이 없었다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도 코오롱은 창의적인 인재와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게
성취의 기쁨과 댓가의 보람으로 격려하는 사풍운동을
기업의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는 아낌없는 지원과 혜택을
부여해주는 일터, 그리고 일한 보람의 댓가는 아낌없이
되돌려주는 일터, 저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런 코오롱의
사풍을 이야기하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댓가의 보람을
실현하라고 당부하곤 합니다.

이사 김 원 한

이제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은 스스로 노력하는 인재에게
모든 지원과 보상을 아낌없이 해주는 기업입니다.
코오롱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창의적인 인재에게 댓가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보람의 일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댓가의 보람

미래사회에 투자하는 코오롱

코오롱에 입사한 후 2년6개월의 시간을 정말 정신없이
보내는 동안 차차 업무에 익숙해져가는 제 모습 속에서
커다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1년 전, 신입사원이나 다름없는 저에게 해외영업 Plant
수출이라는 엄청난 일이 맡겨졌읍니다.
걱정으로 가득찬 저에게 최선을 다해보라는 상사의
격려와 더불어 어학, 해외마케팅, 국제계약절차 및
대외자금조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 주어졌읍니다.
그후 해외출장의 기회도 2번이나 갖게 되었읍니다.
그중에서도 금년 2월의 미국, 프랑스, 터어키 및 파키스탄의
출장은 지금까지 국내에 한정되었던 나의 시야를 크게
넓혀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는 실무지식과
국제감각을 겸비한 해외영업부 세일즈맨으로서의 자신감도
갖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늘 기회를 부여해주고,
최대한 능력을 키워주며, 보람찬 일터를 만드는데 아낌이
없는 저의 회사에 감사하며 비록 지금은 해외수주에 대한
씨를 뿌리고 있는 단계이지만, 곧 방대한 양의 프로젝트를
따내어 댓가의 보람을 마음껏
느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임 최 주 명

한·미 행정협정의 문제 ②

주둔지원비…경제발전에 심한 장애

—경제적 의미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기지사용료 정수는 당연

주둔 지원금으로 모든 대학생의 무료수업 가능해

1,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지난 6월7일 열린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분담해 인상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일종의 신경전(?)이 전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잠깐 모은 적이 있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정부의 주장과 너무 많은 것 같으다 약간 깎자는 한국정부의 입장차이는 결국 7천만불 (약 5천억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대한민국은 연간 약 19억6백만불을 「방위비분담」이란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그 규모와 내역은 표와 같다.

그리고 이의 법적근거는 다름 아닌 한미행정협정이며 관계조항은 제5조2항, 제6조2항, 제9조2항, 제10조1항, 제14조1항 「합중국군대는 그가 대한민국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는 조항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지원(12억불)과 CDIP사업에 따른 토지와 시설제공(3천4백만불), 한국군 시설제공(2천1백90만불)은 「한미행정협정」 제5조 2항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중 제2조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는 조항에 의거하고있다. 또한 감세 감면혜택 (7천7백30만불)과 군수지원 (1억6천2백50만불)은 제6조2항 「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타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한다」 그리고 제9조2항 「합중국군대가 합중국군대, 군속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및 비품과 합중국군대가 전용할자재, 수용품및 비품은, 대한민국의 관세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의거하고 있다.

그외에 제10조1항 「어떠한 합중국군대, 군속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자는 결국 7천만불 (약 5천억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대한민국은 연간 약 19억6백만불을 「방위비분담」이란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그 규모와 내역은 표와 같다.

그리고 이의 법적근거는 다름 아닌 한미행정협정이며 관계조항은 제5조2항, 제6조2항, 제9조2항, 제10조1항, 제14조1항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지원 (12억불)과 CDIP사업에 따른 토지와 시설제공 (3천4백만불), 한국군 시설제공 (2천1백90만불)은 「한미행정협정」 제5조 2항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중 제2조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는 조항에 의거하고있다. 또한 감세 감면혜택 (7천7백30만불)과 군수지원 (1억6천2백50만불)은 제6조2항 「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타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한다」 그리고 제9조2항 「합중국군대가 합중국군대, 군속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및 비품과 합중국군대가 전용할자재, 수용품및 비품은, 대한민국의 관세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의거하고 있다.

그외에 제10조1항 「어떠한 합중국군대, 군속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자는 결국 7천만불 (약 5천억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2, 행정협정에 따른 주둔비지원금 19억6백만불은 민중의 희생과 고통

이철희, 장영자부부가 5천억원에 달하는 대형사기를 비롯 각종 대형부정사건이 발생한 탓에 국민들 대다수가 역대가 넘는 돈에는 오히려 무감각하다. 액수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잡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19억6백만불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구체적인 생활상의 요구와 결합시켜 생각해보자.

19억6백만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4천억원(환율 1불당 약 7백20원)이고, 여기에 연리 8%를 가산하면 1조5천억원이 넘는 돈이다. 이돈은 대한민국 1년국정예산의 9%가 넘는 돈이며 (87년 국정예산 16조6백억원), 1년 국방예산의 30·6%에 해당되는 돈이다. (87년국방예산 14조9천154억원)은 국민이 피땀흘려 넌 세금의 9%가, 백만대군이 월급도없이 짠밥먹고 복무하는 우리나라 국방에 30·6%가 투입되는 셈이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약 1백20여군데)가 점유하는 총 토지면적이 3백㎢ (약 9천만평, 논으로 따지면 3만정보) 인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으로 지대만 하더라도 연간 12억불 (약 8천7백억원)이나 된다.

대부분이 옥토인 미군기지를 농업생산용으로 사용할 경우, 통상 지대의 3배에 달하는 생산물을 만든다고 한다. 즉 연간 36억불 (2조6천5백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농산물수입총액이 20억8천4백10만불 (87년통계)임을 감안하다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옥토인 미군기지가 농업생산용으로 사용될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수입총액의 20억8천4백10만불 (87년통계)을 능가하는 엄청난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3, 맺음말

위에서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주둔비지원이 민중의 삶의 요구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자살인가·타살인가

여론에 붙인 의문의 죽음에 붙여 故 박종근씨

"염세주의라는 군당국의 발표는 터무니 없어"

상관의 무리한 보약요구에 「피마른다」며 호소

공권력 관련된 「의혹의 죽음들」도 규명되어야

기획취재

1、취재에 들어가며

지난달 1일 방위근무중인 박종근(본교 한의학과 88년졸업) 동문의 분신자살건에 대해 「자살과 타살, 아니면 안전사고인가?」라는 의문이 대두되고있다.

또한 이사건의 정확한 진상에 대해서 현재 정당및 재야단체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의 전모는 정확히 밝혀지지않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건의 문제성은 사회일반의 불신풍조와도 무관하지 않아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기까지는 뭐라고 단정지을수 없다는 점이다. 한사람의 개인적 죽음이라도 의혹을 사고있다면 그 의혹은 풀려져야한다. 이 사건은 현재 대다수에게 심정적으로 의부적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과 그사건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기자는 당시 목격자및 당사자의 주변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을 추적하면서 몇가지 의문점의 제기를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자 한다.

2、사건의 발단

군당국이 분신자살했다고 발표한 주인공 박종근씨는 지난 2월 졸업후 대구에서 약2개월간 인턴 생활을 하다가 같은해 5월2일자로 방위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6월13일 경주시 중앙동 산부소요에 비군 중대본부에 배치(함토방위)를 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던중 근무 8주만인 지난 8월1일 오전8시15분경 중대본부 창고안에서 분신해 당은 의문점을 남긴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계당국에서는 평소 열세주의자였던 박씨가 애인문제로 비관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가족들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위장자살사건으로 함의하고있다.

이는 평소 예비군 중대장이 박씨가 배치받기전에 이미 소각해버린 예비군훈련계획서 (일부는 복무지침서 책자)를 분실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 영창을 보내겠다며 위협을가했다고 한다. 그후 박씨가 한의과를 졸업했음을 알고 집안이 부유하다고 판단, 고3인 자기 아들에게 줄 녹용이 든 보약 (시가 1백만원)을 지원오라고 요구 해왔고 또 헌병대장 권아두개 (상사)씨 역시 중학생인 아들에게 줄 보약도 함께 요구했다고 박씨어머니는 진술하고있다.

이어 『상이군인 (3급) 인 아버지와 논농사 (약9백평)를 짓는 여머니, 직장에 다니는 여동생과 공부하는 여동생뿐인 집안의 형편으로는 보약상납이 여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편지를 통해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박氏는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피가 마른다. 여기서 계속 근무하다가는 언제죽을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자주 하소연했다고 한다.

그 후 사건발생 이틀전인 토요일 오후에 박氏가 다시 이중대장의 집에 찾아가 호소하려 했으나 『낚시가니 바쁘다』며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어머니와 의논한끝에 돈5만원을 구해 다시 찾아갔으나 낚시갔다 돌아오지 않아 결국 중대장이씨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한다.

3、사건일지

조사에 의하면 사건 당일 박씨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자전거로 평소처럼 오전 7시 50분에 출발하여 근무처인 부대에 5분만에 도착했다.

둘째, 88년 상반기업무를 앞두고 독재정권과 자본가측은 노동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두려워하면서 작년7·8월투쟁과 같은 탈법적 투쟁을 더욱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과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정부차원에서의 협력및 방위병의 근무조건및 실태등의 조사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정성기記者〉

故 박종근氏의 분신 사망후 모습

노조강화로 「전민노련」결성의 토대 마련해야

연대투쟁만이 참사회 건설위한 정치투쟁의 첩경

지역·산업별 「노조협」 구성에 성과 커

대중의 조직과 투쟁이 요구된다

현시기 노동운동 평가와 과제

1、88년 상반기에 투쟁의 목표

6월 민주화 대투쟁, 이를 계승한 7·8·9월 노동자대투쟁과 대통령선거투쟁, 4월의 총선투쟁을 통해서 민중민주운동의 주체로서 자각하기 시작한 노동대중들에게 상반기 일들의 산투쟁은 전진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다. 상반기 일들을 계기로 하는 노동대중의 투쟁은 일들을 비롯한 경제적 요구의 실현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정치적 진출을 담보할 조직적 구상을 건설하는 것이 당면의 목표로 제기 되었다.

그것은 「어용노총에 반대하는 「전국 민주 노조연합」의 건설이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통일된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대중적·의식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2、상반기 노동투쟁의 성과와 한계

상반기 노동대중의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을수 있는 것은 8개지역 (서울, 인천, 성남, 전북, 광주, 마산·창원, 진주, 부산)에 건설된 지역민주노조협의회와 5개업종별노조협의회(병원, 대학, 출판·연구전문기관, 언론)의 건설을 들수있다.

이러한 조직의 건설은 노동대중의 능동성은 작년7·8월이후 불과 1년사이에 노동조합수가 52%나 증가하여 4천8백개에 이르고, 조합원수는 60%이상 증가하여 1백50만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로 부터 주어지고 있다.

각지역 노조협의회가 대규모 전략사업장을 포괄하지 못하고, 비제조업분야의 비중이 높은 한계를 안고있으나, 한국전쟁이후 최초의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의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상반기투쟁에서 각지역 노조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개별사업장을 뛰어넘는 지원과 연대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노동대중의 투쟁의 고양과 결합하여 규명될 때만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다. 하나의 투쟁속에서 노동대중의 의식화가 어느만큼 진전되었는가?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거나 강화하고, 더 높은 투쟁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어떻게 시도되었는가? 하는 것이 투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1、88년 상반기에 투쟁의 목표

6월 민주화 대투쟁, 이를 계승한 7·8·9월 노동자대투쟁과 대통령선거투쟁, 4월의 총선투쟁을 통해서 민중민주운동의 주체로서 자각하기 시작한 노동대중들에게 상반기 일들의 산투쟁은 전진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다. 상반기 일들을 계기로 하는 노동대중의 투쟁은 일들을 비롯한 경제적 요구의 실현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정치적 진출을 담보할 조직적 구상을 건설하는 것이 당면의 목표로 제기 되었다.

그것은 「어용노총에 반대하는 「전국 민주 노조연합」의 건설이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통일된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대중적·의식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2、상반기 노동투쟁의 성과와 한계

상반기 노동대중의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을수 있는 것은 8개지역 (서울, 인천, 성남, 전북, 광주, 마산·창원, 진주, 부산)에 건설된 지역민주노조협의회와 5개업종별노조협의회(병원, 대학, 출판·연구전문기관, 언론)의 건설을 들수있다.

이러한 조직의 건설은 노동대중의 능동성은 작년7·8월이후 불과 1년사이에 노동조합수가 52%나 증가하여 4천8백개에 이르고, 조합원수는 60%이상 증가하여 1백50만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로 부터 주어지고 있다.

각지역 노조협의회가 대규모 전략사업장을 포괄하지 못하고, 비제조업분야의 비중이 높은 한계를 안고있으나, 한국전쟁이후 최초의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의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상반기투쟁에서 각지역 노조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개별사업장을 뛰어넘는 지원과 연대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노동대중의 투쟁의 고양과 결합하여 규명될 때만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다. 하나의 투쟁속에서 노동대중의 의식화가 어느만큼 진전되었는가?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거나 강화하고, 더 높은 투쟁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어떻게 시도되었는가? 하는 것이 투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노동대중의 투쟁은 언제나 조직적 과제와 결합하여 규명될 때만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다. 하나의 투쟁속에서 노동대중의 의식화가 어느만큼 진전되었는가?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거나 강화하고, 더 높은 투쟁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어떻게 시도되었는가? 하는 것이 투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짧은 글은 노동운동의 전모를 살펴보고, 분석평가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상반기 노동대중의 투쟁을 정리하여 이로부터 도출되는 몇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대중의 투쟁은 언제나 조직적 과제와

특별기획

언론노조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편집권 자주공동선언 1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사회 정의 실현 앞장 다짐

사주 퇴진 등 투쟁 성과 거둬

경영 참여 등 과제 산적

〈편집권 자주공동선언〉

우리 언론인은 민족사적 사명과 민주주의 실현이 우리 시대 언론의 최대 과제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고 수호하는 것이 언론인의 최우선 과제임을 선언한다.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 세력을 배격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최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북한에…○
○…종교는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문들이 제기되…○
○…고 있다。이러한 때 북한의 불교관과 불교실태를 살…○
○…펴봄으로써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는…○
○…데 이해를 돕고자한다。〈편집자註〉

1、머 리 말

분단된 조국의 현실은 전 민족의 고통과 아픔의 근원이 「분단」에 있음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반영물로서 남북의 극한적인 대결구조와 장기간에 걸쳐 교육된 반공、반북의식에 의해 별로 자각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

최근들어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노력은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민족분단」의 문제임을 자각케 하였으며、각부문 각계각층에서의 통일에의 열망을 뜨겁게 했다。

우리 민족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불교 또한 이러한 자각을 급격히 확대해 가고 있다。그것은 우리의 혁어버린 반쪽불교를 「찾고」「이해하고」이를 근거로 민족종교로서 「불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존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고 북한불교의 참모습을 이해하여、불교의 민족사적 역할의 내용과 방향을 자각하는데 이글이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

2、북한의 불교관과 불교정책

북한의 불교관은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이와 같은 규정은 종교의 사상적 입장과 관련한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불교의 사회역사적 역할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①종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반민족적인 것이며 ②대중의 자주성과 혁명성을 가로막는 지배도구로서의 아편이고 ③근본 「인민」의 창조성과 과학적인 인식을 제약하여 대중을 우민화하는 미신이다라는 세가지로 정리될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북한사회의 특수성(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과 우리민족의 근·현대에 걸친 경험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특히 ①의 규정은 북한의 종교관및 종교정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북한의 불교에 대한 일장은 ②와 ③의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즉 불교의 사회역사적 역할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불교는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는 반동」이며 노예적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하여 「지배계급에 복무하는 도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①의 규정에 불교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이 것은 우리 민족과 융화된 불교의 오랜 역사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민족 주체성」을 저가 보현사 승려에게 『스님들은 기독교인들처럼 박해를 당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불교는 미국에서 수입된 기독교와는 다르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계속 존재해 왔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것은 북한 사회에서 불교의 민족사적 역할을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취해지고있는 불교정책은 불교사찰에대한 복구관리와 수리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북한의 보현사전경。

북한불교 정치도구나 선전물이 아니다

——북한사회의 불교관과 그 실태를 중심으로

3、북한불교의 현실

(1) 불교의 지위와 역할

북한의 불교는 남한의 불교와 마찬가지로 민족사의 전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민족종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그것은 1950~60년대 탄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를 선언한이래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현재 북한에서 불교의 민족사적 지위와 역할에 관련하여 6·25전쟁중 거의 파괴된 사찰을 1백여개 가량 복구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현재 북한의 승려는 3백여명、신도는 1만여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승려의 존재양식이나 신도의 개념등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다。

특히 보현사는 북한에 있는 대가람으로서 6·25전쟁에 건물이 1백여채나 되었으나 현재는 50여채 가량이 복구되어 원형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북한에 있는 대사찰은、여러개의 법당과 대중방을 갖추고 있는 반면 소사찰이나 암자등은 대웅전이나 미륵전등 특정한 법당만을 갖추고 있다。또 이에 따라 각 사찰의 장엄형태도 차이가 있다。보현사와 같은 대가람은 사불(석、종、목조、운판)을 포함、각종 탱신과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사찰은 그렇지 못하다。

이외에도 법당내부의 장엄、탱화와 단청、불상봉안등과 신앙의례에 사용되는 초나 향등의 공양은、우리와 거의 비슷해 보인다。

북한의 사찰은 대부분 공개활용되고 있으며 그 쓰임새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①북한주민의 휴양소로서 일반에게 공개활용되고 있는 사찰 ②선조들의 창조적 능력을 보여주는 학습장이자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사찰 ③주도승을 위한 사찰등이 그것이다。

①과 ②에 해당되는 사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③에 해당하는 사찰도 약간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사찰활용은 대부분 관련지화된 우리의 실정과 비교해 볼때 비슷한점도 있으나 상업성에 주안점을두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성을 갖는다。

(2) 신앙형태와 승려의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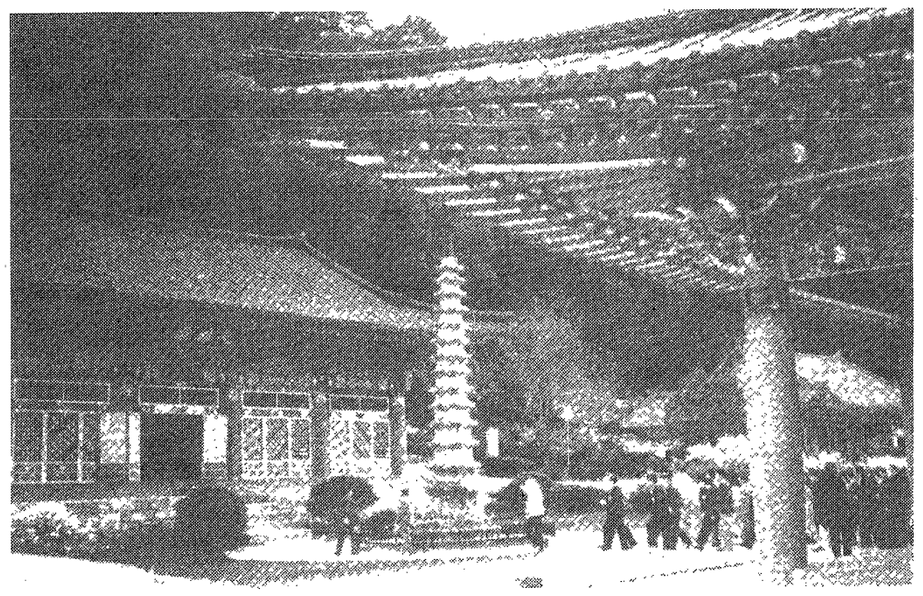
북한의 승려 또한 남한과 같이 의례적으로는 비구승과 대처승이 구분되어 있다。즉 평양시내의 용화사에는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은 대처승이 존재하고、보현사등과 같이 산속에 있는 절에는 전주를 한다。이것은 우리의 사찰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북한불교의 신앙의례 또한 우리와 크게 다른 것이 없다。승려들은 예불을 하고、천수경을 독경하거나 기원을 한다。그들은 때때로 법회를 열거나 모일을 갖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같이 빈번하지는 않으며 내용 또한 우리와 다소 다른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승려의 의식은 다소 주의를 끌만하다。투이제 린저씨가 만난 보현사의 승려는 남한의 비구승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차이에 의한 구분은 그들의 외모나 존재형식에 따른 것으로서 비구·대처간의 정통적인 차이나 종지종풍의 구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비구승과 대처승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주로 일상적인 노동과 사찰관리、예불봉행등 필요한 신앙의례를 행하고 있으며 1988년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를 선언한이래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현재 북한사회에서는 민족사의 과정을 반영하는 불교사찰과 문화재복구와 건설, 관리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보현사전경。

불교의 민족적 역할 나름대로 인정

탱화·단청·불상봉안등 신앙의례 우리와 비슷해

별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조불련」은북한의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하여 국가사업에 동참하는 한편、그 대표자는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참여하여 불교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조불련의 몇몇 간부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한다。또한 조불련은 대내적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적 활동에도 참가하여 북한불교단체를 대표하여 각국불교인과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시작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국제모임과 회의에 참석하여 왔다。1988년 4백여개가 존재했었으며 6、25전쟁으로 거의 파괴되었으나 현재는 1백여개가 복구·재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복구사업으로 재건된 사찰중 중요한 사찰로는 개성의 계곡사、관음사、금강산의 표훈사、신계사、성불사、그리고 묘향산의 보현사 등이 알려지고 있다。

조불련의 활동상황은 대내적인 것보다는 국제적인 대외활동을 통하여 더 잘드러나고 있다。1981년 동남아에 불교대표단을 파견하여 각국불교인과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시작한이래 수차례에 걸쳐 국제모임과 회의에 참석하여 왔다。1988년 6년에는 세계불교도우회에 가입하고 네팔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작년에는 북한불교단체의 대표가 소련불교관계인사와 접촉을 가진바 있다。

또한 올 11월19일부터 8일간 미국 로스엔젤리스에서 열리는 세계불교도우회 제16차 세계대회에 참가신청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불교단체의 활발한 활동은 평화운동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민족종교로서 불교의 사회역사적 역할을 자각하고 이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불교의 「존재」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민족통전을 향한 남북불교인의 자주적 교류와 접촉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4、맺음말

이상에서 자료및 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불교의 제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그러나 이것만이 북한불교의 실태라고 말할 수는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내용과 폭부한 자료들이 발북、연구되고、이를 위해 현지답사나 납북불자의 교류가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북한불교의 전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는 불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내외적 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북한불교의 본질이 「정치도구」라든지 「선전물」이라든지 하는 공격성 발언은 이미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불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기능할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오히려 불교의 또다른 측면、즉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의 사회적 성격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북한사회가 처해있는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야 한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불교의 「존재양식」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불교의 「존재의미」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불교의 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더불어 불교의 사회적 성격과 역할에 대한 연구도 더욱 보강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민족종교로서 남북불교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자각하고 민족사적 과제해결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부엇보다도 남북불교인의 상호이해와 단결을 민족적 차원으로 승화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되어야 할것이다。왜냐하면 남북불교도는 고의 3초가 드리워진 한반도를 해탈의 찰세상으로 장엄해야 할 보살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 원 섭
〈글동국대강사〉

"승려의 존재양식과 신도의 개념엔 많은 의문제기"

축 동대 신문지령 1000호 발간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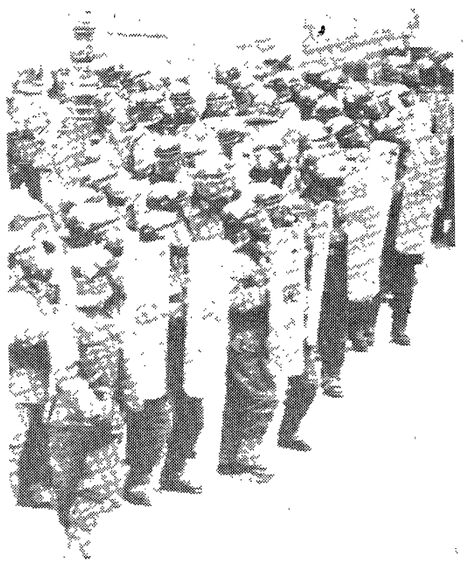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2교구본사 龍珠寺 주지 서정무 무지 총무 교재 규정 신도회장 정각실 ☎0040 ☎0331
제3교구본사 神興寺 주지 김혜법 대중 일동 ☎(0392) ☎7044·7053
제4교구본사 五台山 月精寺 주지 조실 고송 대중 일동 김도명 ☎666115
제5교구본사 法住寺 주지 유월탄 부주지 총무 교무 재무 ☎(0433) ②3615 각성지원 안천원현 종무 각성지원
제6교구본사 麻谷寺 주지 서승운 총무 교무 재무 규정 대중 일동 학성도윤원일인 ☎(0416)53-8004·8012
제7교구본사 德崇總林 修德寺 주지 방재교총주 무무무지장 대중 일동 지지법설원 운만조정담 ☎(0458) ☎6565 ☎6622
제8교구본사 直指寺 주지 조실 강주회 주지 주실 대중 연혜오관 일동 녹원창관 ☎(0547) ☎6174 응
제9교구본사 桐華寺 주지 백혜촌 대중 일동 ☎(053) 954-1010
제10교구본사 海印寺 주지 최규필 부주지겸 총무 교무 재무 팽정오 진담원 대중 일동 ☎(0563) 주지실 ☎1532 종무실 ☎1220
제11교구본사 佛國寺 조실 월산성림 부주지 총무 교무 재무 종천불원 초삼 (051) ☎9913 상
제12교구본사 해인총림 海印寺 방장 李性徹 주지 법전 대중 일동 ☎(059) ☎7242

여기, 시대의 증인으로 일어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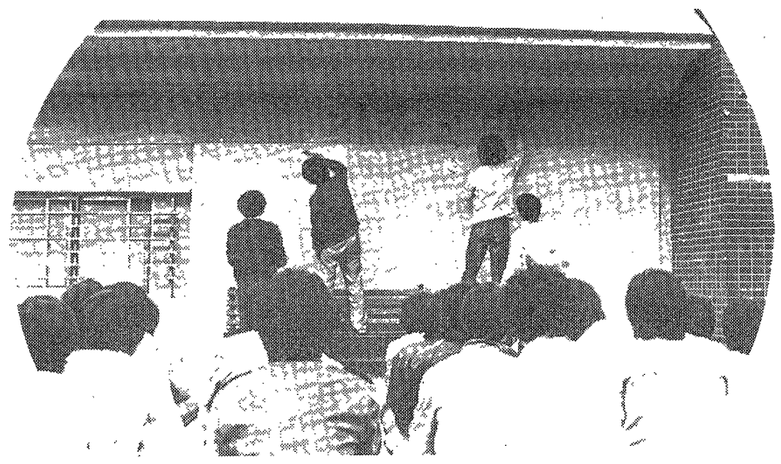
해직교수 60인

○… 80년 광주의 흔이 이 강…○
○…산에 메아리치며 전국곳곳에…○
○…민주를 일깨우고 떠나간지 8…○
○…년。그 이후 한국민족민중운동…○
○…의 선봉대열에 앞장섰던 본교…○
○…학생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알…○
○…리지못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
○…아 재조명해 본다。 …○
○… <편집자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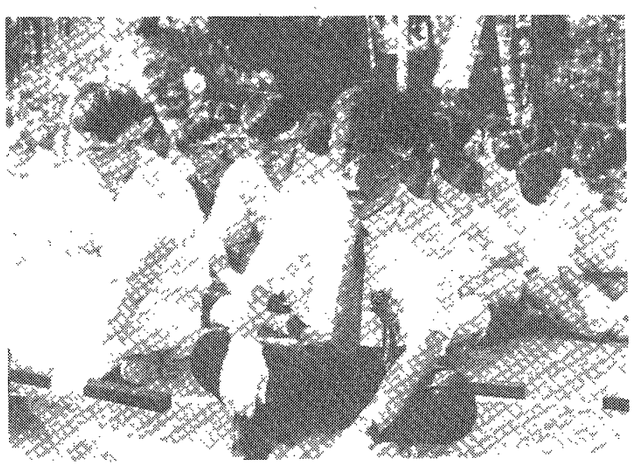
곤충이여 떠나라

신성한 학원의 자유마저 무시하고 무단 난입한 이들에게는 곤충의 양심마저 억제당한 것일까? 떠나라。어서, 떠나라。자유에 땅에서…



이제 입을 열자

침묵의 대중속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까칠한 입술이 못내 답답했던 지난 날。이제 우리 시원스럽게 할말은 하면서 살자。



누가 네 상복을 입어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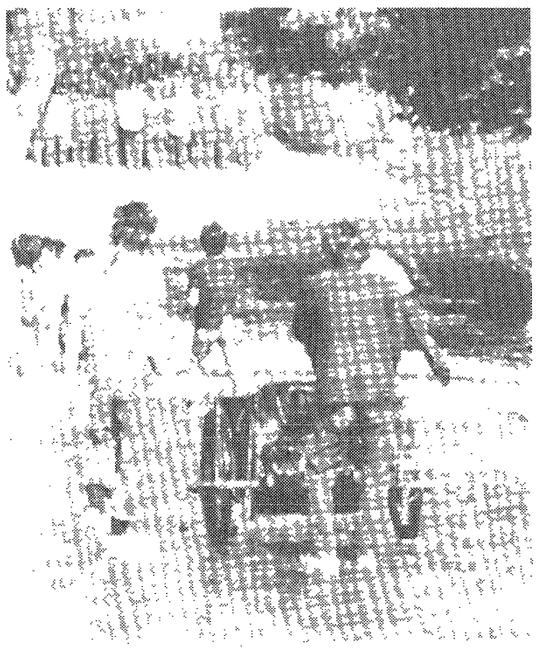
오늘은 네상복을 입어주마。걸은 옷으로 갈아입고 가라는 전송도없이 맨발로 질질 끌려 무참히 떠난 네 상복을 입어주마。

스님! 이젠 돌이라도

두 손에 날선 돌맹이라도 들고 자비와 광명의 참뜻을 일깨우고자 응어리진 가슴을 열며 붙심으로 일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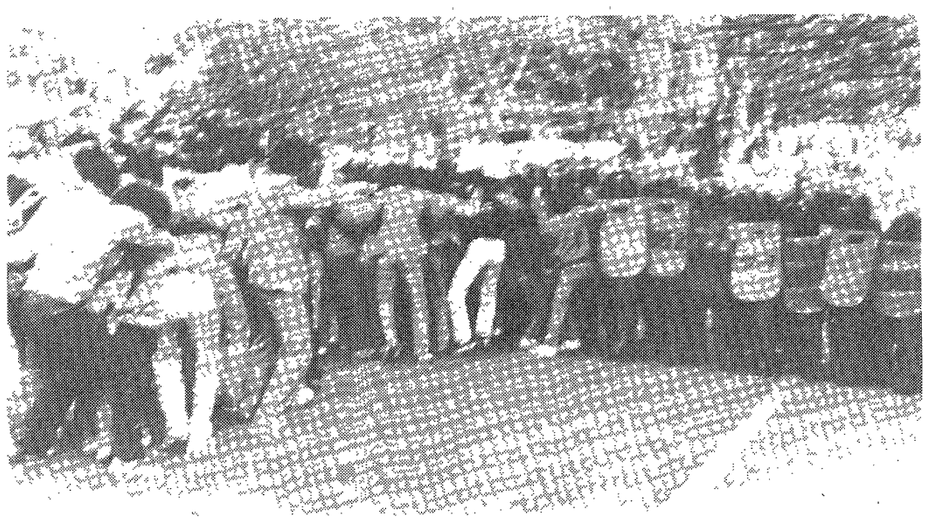
내피를 보아다오

아직도 더많이 흘려야할 피。아직도 더 많이 쏟아야할 눈물。아직도 아물지않은 유혈속에서 천번을 죽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청춘이여。



급하긴 급했어

단 몇이라도 좋다。이수레에 오염된 사회를 실어 비겁한 양심에 문을 열고자 한다。



제발 비켜다오

너는 보았으리라。권력의 달을 부수고 어깨와 어깨를 부둥켜 앞고 어둠을 넘어 자유의 광장으로 가는것을。

어디로 끌려가는가

분노의 가슴을 삭이며 민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대는 어디로 끌려가는가。두추럭 불끈쥐고 흔들던 모습을 뒤로 하며 어디로 가는가。

축 동대신문 지령 1000호 발간 축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덕사 주지 정법인 대중일동 신도일동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산96 ☎56-7790

보광사 주지 김무상 대중일동 신도일동 부산시 북구 덕천2동 산118 ☎332-6305

용화선원 선원장 松潭 대중일동 인천직할시 남부 주안동 16의113호 ☎(032) 82-6061

구룡사 주지 박지형 신도일동 구룡사:경남 창원시 속남동909 ☎55-6359 희관:경남 마산시 남성동142 한호빌딩2층 ☎2-7166

대한불교조계종 법해사 주지 이탄준 신도회장 박남덕 신도일동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6브록2뚜트 ☎514-0055

분황사 주지 박도오 대중일동 경주시 구황동 313 ☎(0561) 42-9922

전등사 조실 서운 주지장 윤대중일동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0349) 4-0125

반야사 (부설 금강유치원) 주지 이태구 대중일동 신도일동 부산시 동구 범일1동1386 ☎68-6237

내장사 주지 이향봉 대중일동 전북 정주시 내장동500 ☎②7965

적멸보궁 오대산 상원사 조실 고송 주지 삼보 기도법사 원주 보현 대중일동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32-6666

奉恩寺 주지 변밀운 총무 수명 대중일동 서울 강북구 삼양동 ☎(545) 1448

수락산 홍국사 녹야원 주지 황일면 신도회장 박평등심 대중일동 (녹야원) 975-3307 971-4737 남양주군 별내면 덕송리 331 ☎(0346) 68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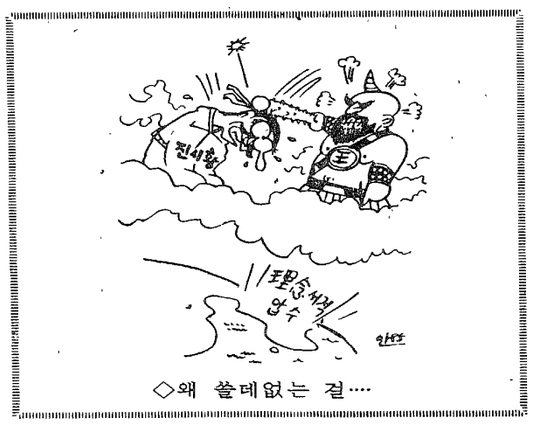
만화·만평…80년대 전후의 풍자 한마당
"붓을 꺾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양심 때문"

○…동대신문에 만화가 선보인 것은 제101호(59년3·26字) 부…○
○…터이다。만화는 풍자와 위트、유우머가 넘치는 또다른 기사이…○
○…다。초창기 캠퍼스 주변문제가 주 소재였던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오늘날은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폭넓게 다뤄지고있다。특히 80…○
○…년대는 만화의 전성기이자 수난기이기도 하다。한편 東國漫評은…○
○…584호(74년5·23字)부터 고정칼럼으로 등장했는데 한컷의…○
○…그림에도 수많은 지성의 웅변이 담기는 등 그 내용이 진지하고 시…○
○…사하는 바가 크다。여기에서는 그중 현대사의 격변기였던 80년…○
○…전후의 만화·만평을 중심으로 풍자무대를 만들어 어두웠던 지…○
○…난날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86년 9월24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렸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민중생존권 압살하는 빚잔치 아시안게임을 결사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었다。이무렵 이를 방지키 위해 소위운동권 학생 격리작전이 한창 진행되었다。<945號, 86년 9월2일字>

▼정부는 이데올로기 비판능력 향상이라는 구실아래 그동안 금서로 묶어두었던 도서가운데 일부 개방조치를 취한바 있다。그러나 민중들의 지적 욕구 성숙에 질겁을 하고 다시태도를 바꿔 5·3금서조치를 내려 대학가 이념서적들을 압수해갔다。<914號, 85년5월 14일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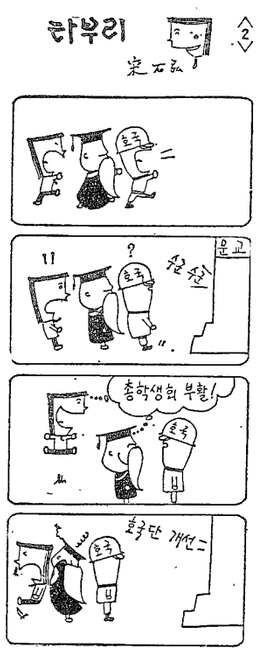
◇왜 쓸데없는 걸….

▲정부는 71년 10월, 위수령을 발동하여 학원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학생을 학원에서 추방시키겠다며 9개항의 조치사항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교내 집회나 소모임 조차도 불법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506號, 71년11월15일字>

▲84년 정부가 학원자율화조치 제스처를 취하더니 85년에는 급기야 학원안정법을 제정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그내용은 독재정권을 유지키 위해 언제든지 폭력과 탄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악법이다」라는 여론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919號, 85년9월3일字>

東國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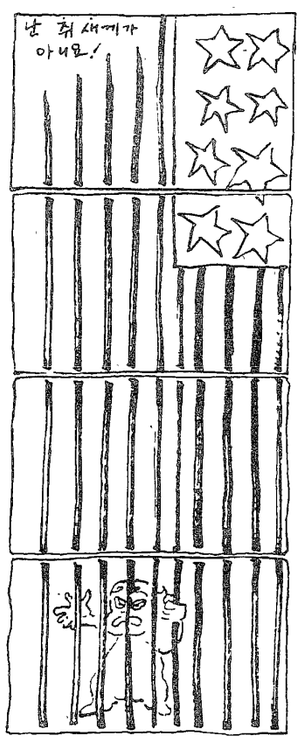
◇평화적 정권세습(?)



▲소위 컴퓨터대통령으로 불리는 현정권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있다。특히 5공화국의 비리가 속출하는 마당에서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이며 全盧協(?)의 결성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러한 시각에서 6공화국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5공화국의 연장으로 보고 있는것이다。
<984號, 88년 3월23일字>

▲80년1월, 30개학과와 29개써클장들에 의해 총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학생자치활동의 완전한 자율보장을 촉구했다。그러나 문교부는 변형된 학도호국단령을 발표하는등 총학 부활을 저지하려 안간 힘을 썼다。<755號, 80년 2월19일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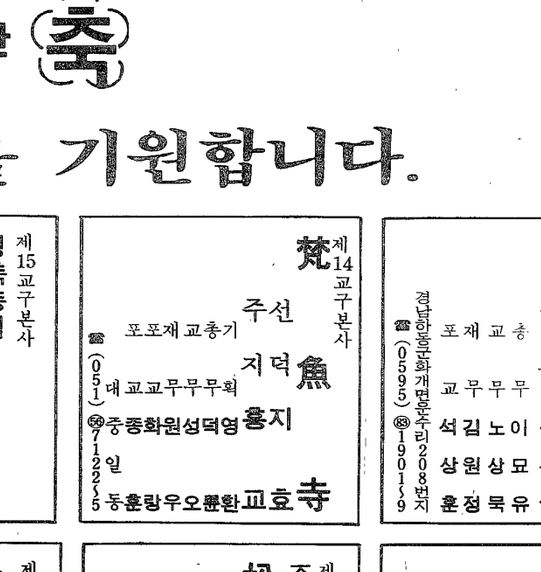
◇글쎄 그걸 실으면 가라앉아요!



▲反美 감정은 미문화원 점거에서 표출되기 시작했지만 최근 양담배·농산물·쇠고기수입의 개방압력으로 그극에 달해있다。우리는 결국 미국의 덫에 갇히고말 것인가?
<916號, 85년5월28일字>

◇ "나가 놀아라~아!"

▲85년5월23일 당시 美문화원 사건으로 반미 문제가 제기되고, 광주항쟁으로 많은 내외국인들의 미국 인식이 새롭게 바뀌었다。그러나 미국측은 광주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앞으로 광주가 80년대를 사는 우리민족의 최대 과제임에도….
<916號, 85년5월28일字>



▲86년 아시안게임때 대학가에서 아시안게임저지, 제헌의회소집 등의 시위가 빈발하자 경찰측은 각종시위로부터 학생및 교육시설보호, 대학연합시위방지책으로 갑호비상령을 선포하였다。그뒤에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휴교조치로 까지 확대되었지만。<946號, 86년 9월9일字>

▲지난해 12월16일 대통령선거때 보통사람임을 자청했던 후보가 당선되어 보통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12·12관련 광주학살의 주범이자 수십억의 재산소유자가 보통사람이 될수 없었다。다시말해 권력비리가 民을 우롱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하고 있다。<979號, 87년11월11일字>

축 동대 신문지령 1000호 발간 축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3교구본사 双磎寺 주지 오고산 총무 이노묘 교무 김상원 재무 유정묵 포교 재무 교무 포포재 교무 교무 대교 교무 무무무 교무 동훈랑우오륜환 경남합동군화개면운수리208번지 ☎(0595) ㉝1901~9

제14교구본사 梵魚寺 주선 지덕 용지 교효 총기 종종화원성덕영 ☎(051) ㉞7122~5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通度寺 방장 月下 주지 圓明 대중일동 ☎(0523) ㉜7181

제16교구본사 孤雲寺 주지 송근일 대중일동 ☎(0576) ㉞2224

제17교구본사 金山寺 주지 송월주 대중일동 (0658) ㊽444~5 전북회관⑤3497

제18교구본사 白羊寺 조실 이서응 선원장 김천장 주지 조학능 주지실(0685) ②7412 종무소 〃 ②7502

제19교구본사 華嚴寺 주지 최종원 총무 명섭 교무 종덕 재무 명완 규정 수령 주지실(0664) 2114150 종무소 〃 2114152

제21교구본사 조계총림 松廣寺 방장 미산일각 주지 현호 대중일동 (0661) ㊽2130~3

제22교구본사 大興寺 주지 임원두 대중일동 (0634) ㊽5501~2 5588

제23교구본사 曹溪寺 주지 조실 황강 현석 주교 총무 교무 신도회장 정무 규정 혐조석석 상진도종 관음사부설 연화유치원 (064) ㉒6830 제주시 아라동387번지 ㉒4821 ㉒2829

제24교구본사 禪雲寺 주지 태허 대중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500 (0677) ㊽1606~7

제25교구본사 奉先寺 대중일동 지로번호 : 7516445 대천구좌 1034401317185929 (0346) ㊽7701~2

데스크칼럼 이제 너는 昇天의 나래를 소유하리라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일이 주된 역할이며 본래의 모습이라 할수있다。만약 대학에서 학문탐구의 역할을 배제시킨다면 이를 어찌 대학이라 일컬을수 있을까。

그러므로 대학이라면 뭐니뭐니해도 학문탐구를하는 向學의 전당이라 할것이다。그렇다고 해서 대학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행위를 배제시킬수는 없다。

이는 대학에서 다루는 학문분야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포함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뿐더러 학문탐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진리추구이며 대학사회의 구

盧 建 煥
〈편집장〉

성원의 사회에대한 비판의식의 고양으로 인해 대학사회의 비판기능 또한 중요기능의 하나라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대학인들의 비판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言論을 들수 있다。그중에서도 대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는 것이라면 역시 대학언론이라 하겠다。

사회언론들이 제도권의 틀속에서 진실을 호도하고 편파·왜곡보도를 일삼을 때 대학언론은 사회적인 병폐와 모순구조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과 대학문화의 창달이라는 두가지 시각에서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간다 할 것이다。

이와같은 대학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온 本紙가 어느덧 38년이란 연륜을 쌓고 이제 紙齡 1千호를 맞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후 조국의 분단으로 나라안팎이 어수선하던 무렵에 창간호를 낸 이후 6.25의 참담함, 자유당정권의 실정과 그로인한 4.19혁명, 5.16쿠데타로 인한 군사정권하에서의 억압과 탄압, 유신치하의 폭압정치와 그의 종말을 고한 10.26, 5.17조치로 인한 군사정권의 재등장, 지난해의 6월항쟁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동대신문의 역사는 실로 한국의 현대사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듯 싶다。또한 동국의 융성과 진통의 과정을 함께 해온 산 기록이라 할것이다。참으로 환희와

쟁이근성으로 自主·民主·統一의 지상과제를 실현하는 自由言論의 기수가 되어…

좌절, 기쁨과 시련이 반복된 연속의 나날이었다。

대학신문에 있어서「아카데미즘」과「저널리즘」중에서 어느 것을 중시해야 하느냐의 물음은 愚問에 가깝다。

왜냐하면 대학사회에서「아카데미즘」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저널리즘」을 결코 경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신문은「아카데미즘」과「저널리즘」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신문제작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신문은 自主·民主·統一이라는 지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한치의 치우침도 없는 바른 논조를 유지하고 어떠한 외부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대학신문에 몸담고 있는「신문쟁이」로서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이는 그만큼 대학신문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東大新聞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다。 <문과대 국문과>

林 秀 炫
〈취재1부장〉

굴절과 오욕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自由·民主·正義의 대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대학。

대학의 역사, 그것은 곧 고난과 시련의 기록이다。반민족적, 반민중적, 비도덕적 군사정권의 폭압은 이땅의 지성의 싹을 짓밟았으며 정의의 기운을 시들게했다。지식인을 지식기사화시키면서 학문을 권력의 안정은 꾀하기 위한 이데올르기를 만들게 했고 대학의 자율성을 온갖 제도와 물리력으로 탄압하여 학문·사상의 자유를 제약해왔다。

하지만 우리 대학인들은 각각의 시대적 상황과 조건속에서도 이 이 땅에 민주와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투해왔다。이러한 지난한 애씀의 결과 현재의 민족·민주·민중세력의 질적·양적 성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이의 정당성을 신뢰하는 국민의식 또한 깊게 뿌리내리면서 참다운 민주화의 새날이 다가오고 있다。

대학은 사회의 모순구조와 결코 별개일 수 없음은 우리는 보아왔다。대학은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니면서도 한국사회의 한부분으로 사회모순의 점예한 충돌지라는 성격을 크게 벗어날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서 대학신문도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

기성언론이 부도덕한 정치권력에 굴복, 그들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자본주의적 언론기업으로 성장했다。

얼마전「신문의 편집권이 경영자측에 있다」는 신문협회의「국민에 대한 폭력적 언사」가 옳은 것으로 강요받아왔던 우리의 현실을 조금만 살펴보아도「제도」와「비제도」라는 용어로 언론이 철저히「民」에 의해 배척당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물론 많은 양심적 기자들의 자유언론쟁취 투쟁도 있었지만 말이다。

대학신문의 역할은『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라는언론의 자유가 절식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여러가지 특수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대학신문이「기성」의 너울을 극복하는 시도가 치열할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이와같은 이유로 우리의 대학신문은 한국사회 모순구조의 진단과 이의 해결을 위한 학문적, 과학적 틀을 제시함과 함께 민민세력에 대한 발언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물론 순수학문의 발전의 통로, 보도적 역할등 대학문화 창달도 소홀히 한것 아니다。

대학신문의 바람직한 방향성이「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라 할때 이 조화의 기준은 일단 시대상황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역사적 통찰력이 결여된 객관성과 중립을 부르짖는 言論은 참언론의 위상일 수 없다。「사물의 도리를 설명하고 잘 잘못을 따지는」論의 의미가 베버적인「물가치성」과 병립하기는 어렵다。

오늘 東大新聞이 짧은 대학신문사에서 지령 1000호의 발행은 6·25 2달전에 창간된지 38년만에 이룩된 금자탑이다。

우리대학사의 한 증인이며 분단과 반민중적 정치상황의 질곡에서 東大新聞 1천호는 결코 자축의 의미만이 아니라「시대의 양심」을 지켜내려는 대학의 성장을 알리는 자기선언으로, 이 기쁨을 결코 本新聞社 기자들만의 영광일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오늘의 1천호가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고일진데 운좋게도「영광의 지면」일부라도 메꾸게됨을 퍽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활자와 함께 고민했던 선배님들에게「1천호의 나이테」의 현물을 후배로서 바치고자 한다。

영원하라！ 동대신문이여！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1천호는 자축의 의미만이 아니라 시대의 양심이 살아있음과 대학의 성장을 알리는 자기선언이다。

현실참여와 학문탐구의 갈림길에서 미아가 되어버린 한마리의 망아지가 이제는 풋풋한 아침을 맞을수 있으리라。

고뇌하고 갈등하는 한 대학인의 심각한 표정과 눈동자에는 이 시대에 풀어야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광주문제, 현정권의 정통성, 수입개방, 민중생존권문제, 그리고 핵무기 철수에서부터 공동 올림픽 남북 학생회담, 통일의 문제등등…

우리는 왜 대학에 들어왔는가。

鄭 星 基
〈취재2부장〉

고된 육체적 노동보다는 편안하고 보수도 좋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인가。

만일 전문적 지식습득에 뜻을 두었다면 학문분야의 장래및 전체 학문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지, 또한 현재의 대학생활에서 깊이있는 교양을 쌓고 있는가。여자의 경우 장래 결혼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서가 아닌가등 스스로 자성해볼 일이다。

파행적 학사운영을 당연시해 온 학교측과 스승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교수, 그리고 시위, 농성 최루탄, 화염병, 연행, 구속등으로 얼룩진 대학가。

외세에 의한 국토분단등의 현실적 아픔이 너무나 컸고, 서러운 조국의 상황과 뜨거운 동포애를 대학인들로 하여금 시대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 개인의 이익과 안락을 찾기보다는 조국과 민중의 편에서 역사와 진리의 수호자로서 가열차게 싸우게 했던 것이다。

그 이념이 너무나 소중하고 절박했기에 수없는 우리 젊음들이 그 염청난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다。

뒤틀린 사회에서 소시민적 안주를 벗어나 대의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대학인에게 죄가 있다면 양심가진 것이 죄고 진실을 깨우치는 것이 죄고 왜곡된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간과하기 보다는 차라리 양심수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왜곡된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간과하기 보다는 차라리 양심수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했던 민주화의 열망처럼 동대신문 또한 이러한 대학가의 숫한 아픔, 슬픔, 기쁨을 지켜본지 어언 지령 천호를 맞았다。

오욕의 역사, 굴절의 역사를 거부하며 오직 정론직필로 걸어온 네가 6·25와 4·19 그리고 5·16을 유년과 청소년시절에 두루겪고 그뒤는 기성세대로 6·3소요, 유신 10·26사태 광주항쟁, 6·10대회 또한 남북학생회담을 목격하면서 살아온지 불혹에 가까운 연륜, 이 어찌 파란만장하다 하지 않으리。

백상의 거보에 따라 새청사를 창조해 다시맞는 아침에는 참 세상의 역사가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져 총격의 역사행진이 멈추어지고 환희의 역사행진이 되어야 한다。그래서 다시는 이땅에 분신, 투신자살이란 용어가 사라지고 진리의 상아탑인 캠퍼스로변모해야 한다。

정의와 평화가 큰 강물처럼 남북으로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게 되는 새역사가 펼쳐질때 먼저간 친구를 불러본다。

젊은 친구여 너는 정말 가려는가… 네가 못한일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니 뒤돌아 보지말고 편히가라。돌아오는 내년 5월에는 진달래향기 가득한 민주주의의 꽃다발을 너에게 보내줄것을 약속하면서…<인문대 영문과>

池 喜 鉉
〈기획부장〉

길지도 않은 기다림이 거짓되크 그것은 오지않는다고 했던가？

昇天, 천번의 외침은 너로하여금 정론이되게 했나보다。혼돈의 시대 너를만나 참다운 너를 구현하는데 무엇을 했던가？벽거머리 어설픈녀석이 마치 애인하나 삼겠다는 심정으로 부작정 마음속에 너를 선택하고나서 시대적 모순과 체제의 한계속에 빈민과 좌절감에 시달렸음을 너는 알고있나？잠결에 핍박당한 억울한자들의 살썩는 아우성소리, 그시간에 어김없이 우린 예쁘게도 일어서야했지。

미이즘의 시대에 까마귀같은 소리일망정 내 목소리를 거부당하고 꾀꼬리 소리만을 허둥지둥 흉내내려 할 때, 자기 모순에 빠져 밤마다 내 목소리가 그리워 실핏줄 속으로 절게 울었음을… 함께 술래잡기를 거부당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나동그라졌을때 언젠가 찾아올 것같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까마득하기만 했던 언론의 늪。그 송진내 나는 잉면를 뒤집어 쓰고 말하고 싶어 검붉은 입술을 가늘게 떨던 기억。그래 그 날은 화요일！

우리 믿을래서 믿었다기보다 외로워서 믿은 녀석들의 화요일, 어느 주당의 독백처럼 화요일은 화가나서 술을 더 마셨는지 모르겠다。우린 이 시대에 We가 아닌 Cage가 되어 집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데 분노하고 말았지, 정당한 노동의 댓가대신 비인간적 대우가 참다운 진리대신 힘과 군화발이 난무하는 이 곳。

× × ×

지금 기진한 폴 우는 소리가 들린다。배고픈자는 양손을 벌리고 기쁨을 돌려달라며 사람, 사람, 사람을 찾는다。내가 이 곳에서 바로 너를 만난것처럼 참다운 그 곳에서 너를 만나고자 한다면 추악한 거짓일까？

이무기도 천년을 기다리면 昇天한다는데 이제 너는 승천의 나래를 소유할 것이라！ 그 땐 모두 우리의 양심을 주고 떠나려무나 내게 남길 그 얘기는 더 이상 종이 위에 하지 말고 가슴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했던 파리한 일술을 열어 보렷이……

나약한 회색빛 대학인들이 도피와 좌절에서 벗어나 이 시대에 관념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너는 주저하지 말고 대변자로서 푸르게 살아 가다오。폭이 한계지워진 너의 현재를 딛고 역사와 대중앞에 감히 나를 대학의 동반자이도록 하게한 사람들의 의미를 되새기자。과학적 인식이 나의 실천을 왜곡하는 구조적 질곡을 타파했다면 너는 나로하여금 알을

나약한 회색빛 대학인들이 도피와 좌절에서 벗어나 이시대에 관념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한 독재의 시대, 외세의 시대에 해야할 일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 × ×

이제 목이 마르다。가야할 곳 저기 저먼곳, 지금 눌린 이 言語는 이 사회의 아픔을 부둥켜 않고 시대의 질곡을 깨트려 나가는 장을 새롭게 열것이다。

<사실 난 네가 필요해！힘들다고 떠난 사람들이 꼭 원망스럽지만은 아닌가 싶어>

세삼 무슨 변명을 더 보탤까 이제 무책임한 말을 책임지는일뿐！그래 나는 자유언론을 외치다 죽어도 좋았다고 하리라！

<농과대 임학과>

南 貞 玲
〈문화부장〉

우리의 東大新聞이 지령 1천號를 맞았단다。이 가을날, 우리는 結實의 기쁨으로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인다。그누가「기념일」이다「몇주년」이다 하면서 주기적으로 어떤 행사의 의미를 되새김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뭏든 유난히 숫자와 의미를 연관짓기 좋아하는 세상의 통념을 따라 우리신문도 지령 1천호라는 결실을 맞이하게 되었고 송구하게도 1천호의 주역으로 발탁된 나는 이 의미깊은 1천호紙上의 한 귀퉁이에 어줍잖은 소감 한마디를 흘려놓아야만 한다。뭐라고 써야 할까…。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동대신문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자。아는 사람은 다 알테니까。眞實이 不在하는 이땅에서 진실의 물꼬를 트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영욕의 세월들 앞에서, 아는사람은 한번쯤 눈시울을 붉히리라。이제는 당당히 38년의 연륜과 지령 1천호를 헤아리는 우리의 東大新聞이, 盛夏의 뜨거운 불볕과 겨울의 혹심한 추위를 견디고 단단하게 얽힌 根茎들을 땅 속 깊숙히 뿌리내리는 거목처럼 大學과 社會의 현실이라는 토양속에 正論으로 뿌리내리는 작업이 계속되리라고 일단 1천호를 맞는 소감을 적어두자。

이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땅에서는 진실을 외쳐볼 숲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

그리고 한 詩人의 싯귀를 떠올려본다。

—어머니, 이땅에서 아름다움은 싸움입니다—오만한 우월감 하나만을 들고 入社해서 1천호를맞는 오늘에까지 나는 東大新聞의 한원소로서 뛰어오면서 지금 1천호를 대하는게 너무나 부끄럽다。닫힐때로 닫히고 박힐대로 박혀서 괴어 썩어있는 이나라의 한 젊은이로서 또래의 젊음들이 구관심과 폭력의 世界를 向해 불꽃을 던지고, 죄도 없이 오도되고 유린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記事 몇줄 끄적대는 나의 가식적인 모습에 또 얼마나 치를 떨었던가。

사이비언론, 제도언론만이 살아숨쉬는 이땅에서 진실을 향한 우리의 미약한 신문쟁이노릇은 또 얼마나 많이 주저앉았던가。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겠다。주저앉고 굴복하고 억울할 수만은 없다고。이 땅에서 아름다움은 싸움이며 변질된 언론의 표정을 싸움으로 되찾아야 한다고。어떤 우화에 나오는 한 이발사는『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댔던 숲이 있었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땅에서는 진실을 외쳐볼 숲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우리의 언론은 마땅히 무성한 숲이 되어야 한다。숲이되어 진실을 받아들이고「임금님귀는 당나귀귀」가 메아리로 되살아나야 한다。

또한 대학언론으로서의 동대신문도 기존의 기성언론들이 보여줬던 왜곡된 모습들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자기검증을 통해 正論의 선두주자로서 계속 줄달음칠 것을 확신해본다。

끝으로 이 기쁜 자리에 동대신문을 아끼는 모든 분들과 함께 축배를 들며 앞으로 2천호, 3천호까지 동대신문의 맥을 잇게될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너희는 살아남아라 날마다 새로 태어나라。<문과대 영문과>

축 동대 신문지령 1000호 발간 축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계사
주지 이오륜
총무 정견향
재무 이보관
신도회장 권유리심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1동 487번지
(904) 3151 (902) 2663

도선사
주지 박현성
도선법보사
월간여성불교
청담중·고등학교
대중일동
도봉구 우이동 264
993-3161~4

수안사
원장 김자운
총무 현종
재무 보순
이사장 서안
대중일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8-12
587-4677·3213

보문사
조실 윤월하
주지 김기봉
대중일동
경남 하동군 악양면 달리바위
(0595) 83-3123

성라암
성라암승가대학
원장 법성
대중일동
성북구 성북동 285
762-2788

青龍菴
주지 金法賢
신도회원 일동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45번지
742-8120

석왕사
회주 고산
주지 영담
대중일동
부천시 원미동 산29의12
(032) 663-7771~2

약사포교원
●불통대:定法大學
(학인 수시입학 가능함)
주지 각성
법사 강도안·박찬규
신도회장 이묘지행
474-0554

삼각산
운문사
주지 정운문
종로구 구기동 230~6
387-9104

대한불교
五峰菴
주지 宋福憲(송암)
신도회장 이애순
무모 순자
신도일동
강원도 원성군 판부면 금대2리1반
(0371) 43-6421

대한불교조계종서부포교원
부처님마을
보리유치원
원장 지거
후원회장 홍명옥
부회장 김남순
부회장 이승혜
서울 은평구 신사동20-26
356-9130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수효정사
(구기원정사)
원장 남현
신도일동
서대문구 충정로3가3-301
393-5169

장편소설 진령 1천호기across

金文洙

◇39년 충북 출생
◇62년 本校국문과 卒
◇조선일보 신춘문예당선
◇창작집 「꽃뱀」, 장편 소설 「바람과날개」 등 작품다수

찾길에서 갈라져 들어오는 그 골목은 한 5백 미터 쯤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너비 2미터 쯤의 개천이 그 앞을 흐르기 때문이다. 아니 개천이 아니라 시궁창이라 해야 옳다. 구릉을 흐르는 물은 그렇게 악취를 풍기며 시커멓게 죽어 흐르는 것이다. 그 개천 저쪽은 산이다. 거대한 짐승이 엎드리고 누워 있는 듯한 민둥산이다. 사람들은 따로 이름이 없는 그 산을 빡빡산이라고 불렀다. 빡빡 밀어붙인 중의 머리를 닮았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역시 산은 산이어서 비탈도 있고 골도 나 있다.

골이 나 있는데 등성이가 없을 리 없다. 그 등성이는 길이기도 하다. 빡빡산 너머에 있는 마을과 통하는 길이다. 그 산길을 찾길에서 갈라져 들어온 골목과 연결시키기 위해 개천에 허술한 널다리가 놓여져 있다. 좀 아터져 위험하기 짝이 없는 다리다.

그곳에 다리가 놓인 것은 작년 여름의 일이었다. 빡빡산 너머에 있는 마을이 3년 전, 이쪽 도시에 속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저쪽 사람들이 차차 이쪽 도시에 출입이 잦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쪽 산너머 마을과 이쪽 도시를 잇는 지름길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내리는 길이 그 지름길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쪽 도시의 골목과 산길을 갈라놓고 있는 개천에 그 허술한 널다리가 걸쳐지게 된 것이었다. 이쪽 도시가 제살을 찢어 위해 저쪽 산너머 마을을 살린 뒤로여러가지 소문들이 나돌았다. 그 소문들 가운데 하나는 빡빡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이었다. 아파트단지를 만들기 위해 민둥산과 통하는 그 골목이 2차선도로의 폭으로 넓혀지게 된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그렇게 된다면 골목 양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은 모두 헐려야만 한다.

그래서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런 소문이 나돌기 전에 집들을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다. 아직도 이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소문이 나돌 때에야 집을 내놓은 축들이다. 집값이 똥값으로 떨어졌고 그나마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전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갔고 또 그만치 화가 잔뜩 올라있다. 그들은 그 화풀이를 빡빡산너머 마을사람들에게 내쏟곤한다. 그리고 공연히 그쪽사람들을 멸시하는듯한것이다. 그래서 그쪽마을에 「비도비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쪽 도시에 편입이 되었으니까 행정적으로는 시민이됐지만 역시 너희들은촌놈이다 하는듯이 그마을에 붙여준 별명속에 잔뜩 배어있는것이다.

비도비촌은 말하자면 非都非村이다. 행정적으로는 촌놈들을 면했지만 그래도 네놀들은 이쪽도시에 사는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그런 멸시가 「도시도 아니요 촌도 아니다」는 그 말속에 잔뜩 배들어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종로에서 빰맞고 한강에 가서 눈흘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마나 그 비도비촌 사람들은 이쪽 도시에 흡입이 잦아졌고 이쪽에는 그들을 바라보고 차린 술집까지 생겼다. 다리목 공단에 세워진 판자집이 바로 그 술집이다. 판자집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쳐도 여찌나 허술한지 옥호(屋號)가 붙는다면 오히려 거추장스럴 지경이다.

흥부분에 붙여있는 손주건만한 유리두장에 「소주 탁주 안주일체」라고 쓰어진 빨강 페인트 글씨조차도 흘부네 아이들 같아 마냥 답답하기만 하다.

판자집 안에는 주인여자가 흑자서 턱을 고이고 앉아 따분한 눈길로 출입문을 지키고 있다. 그녀가 앉아 있는 탁자 옆에는 구멍 하나짜리 연탄난로가 있고 그 위에 엷힌 주전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난로 덕분에 그녀의 얼굴은 붉으레 혈색이 좋다.

그러나 그녀의 야윈 몸집은 아주 자그맣게 보인다. 조리대 위의 형광등불빛을 받은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만 웬지 모르게 을울해 뵈다.

그때 드르르 출입문이 열리며 상고 머리를 한 사내의 모습이 나타난다. 1미터80쯤 됨직한 장신과 그 키에 걸맞게 떡 벌어진 몸집이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직도 소년의 티가 가셔져 있지않다.

출입문이 열리자 활급히 턱 괸 손을 풀고 발딱 자리에서 일어섰던 주인여자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새된 소리를 지른다.

『뭐하러 나왔냐? 이 밤중에!』

『그냥.』

『그냥이라니?』

상고머리는 여 이상 아무런 대꾸를 않고 여자의 맞은쪽 걸상에 앉는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그녀의 말아들이다. 저 자그마한 여자가 어떻게 저렇듯 큰 아들을 낳을 수 있었나 싶다.

『뭐하러 왔냐고 묻잖았니?』

『……』

『가게엔 절대로 나오지 말랬잖아! 하라는 공부는 않고 이 밤중에……』

『또 그놈의 공부, 제발 그 공부 얘기 안할수 없어요?』

『이녀석아, 그게 널 위해 하는 소리지 나 배부르라고 하는 소리냐? 하라는 공부는 않고 밤중에 가게엘 나오니까 하는 소리 아냐!』

주인여자가 화를 내며 소리친다.

『공부가 안되니까 그렇죠』

상고머리의 대꾸도 거친 목소리다.

『왜? 왜 공부가 안돼?』

『지금까지 엄마가 안들어 온데끼 공부가 돼?』

『여이구. 우리 동네에 효자분 서껀 군. 이녀석아, 내가 노느라구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다 네놈을 멕여 살리구 공부시킬라구 이러는 거 아냐!』

『이 시간에 뭔 손님이 있다구 그러세요? 이제 그만 들어가요』

상고머리의 말에 그녀는 털 쉐타소매를 들치고 시계를 읽는다. 두덜고 커다란 남자용 시계는 열두시를 조금지나 있다. 그 시계는 날짜의 유풀이다.

『몰 시간이 지났는데 어째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군』

그녀는 다시 중얼거린다. 그리고는 또 시계를 본다. 시계 위에 그녀가 기다리는 사내의 얼굴이 연형진다. 이북구비가 뚜렷한 30세 안팎의 사내 얼굴은 시계 위에서 냄름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가 그 사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빡빡산 너머에 산다는 것,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월급쟁이인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 그의 월급날이 25일이라는 것,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연로한 삶을 살고 있는 모양이라는 것.

결혼하여 장난꾼을 졸라낼 나이의 사내아이를 둔 사내라는 것등이 그녀에 대해 알고있는 전부이다.

사내의 질고 굵은 눈썹이 무슨 벌레 처럼 꿈틀거리다 멎었다. 그는 양복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시커멓고 반들반들한 권총을 꺼내들었다.

『소주 한병 달라지 않았소!』

사내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진피를 부렸다.

『없어요!』

『술이 없단 말입니까?』

『있어도 벽한테는 안 팔아요!』

『안 판다고 했습니까?』

『그랬어요. 어서 썩 꺼져요!』

주인여자는 악을 있는대로 다 썼다.

『달러러 썩 꺼지라구 했소?』

사내의 질고 굵은 눈썹이 무슨 벌레나처럼 꿈틀거리다 멎었다. 그의 입은 계속해 움직였다. 그 입가에 묘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어떻게 해야 이 집에서 술 한잔 먹을수가 있겠소? 돈을 안낼까봐 그러시오?』

『돈 아니라 돈보다 더한걸 준대도 난 절대로 팩한텐 술을 팔지 않겠다구요. 어서 나가욧 어서!』

『흥, 어디 봅시다. 나한테 술을 안팔고 배기는가.』

사내는 양복저고리 안주머니에 오른손을 찔러 넣었다.

『글쎄 돈이 아니라 금덩어릴 내놔도 난 절대로……』

『절대로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게 아니야!』

사내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는 말을 마치고나서 양복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빼었다. 그 손에는 시꺼멓고 반들반들한 권총이 들려져 있었다. 그것을 본 주인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납빛으로 변했다.

『절대로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냐! 내 말 알아듣겠소?』

『……』

『소주 한 병하고 쉽게 되는 안주 아무거나 한 접시 주시오.』

사내는 권총을 양복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소. 그러나저러나 어제도 못 봤는데 오늘 세운 집이오?』

『……』

주인여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한 것이다. 입이 떨어지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관자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인데 하루에 이렇게 세워 봤으니, 게다가 장사까지 시작했고……. 지나다 보니 술집이 생겼길래 난 혹시 도깨비집이 아닌가 했소.』

사내는 말끝에 니힐로움을 달았다. 그렇게 요란한 옷을 끝내고 그는 다시 술을 재촉했다.

『어서 술이나 주시오.』

주인여자는 그제서야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술상을 보는 그의 손은 아직도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본 술상이라 시간이 꽤나 걸렸다. 탁자 위에 차려진 것은 술병과 술잔 그리고 젤두김치와 오이접시·고추장종지가 전부였다. 오이접시에 깐 마늘과 풋고추가 곁들여 있긴 했지만.

사내는 오이·마늘·풋고추만으로 술 한병을 게눈 감추듯 비워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한병을 더 청하여 그 절반을 눈깜짝할 사이에 마셔버렸다. 그 술은 안주와 마신게 아니었다. 한잔마시고 「개자식들!」 또한잔 마시고 「개자식들!」 하는 식이었다. 나머지 절반의 술도 그는 그렇게 마셨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은 잔이 거듭될수록 자꾸만 커졌다. 들어가는 바람에 의해 자꾸 자꾸 평창하는 풍선처럼. 그리고 그 풍선은 결국 터지고 말았다.

『야, 이 개자식들아!』

사내가 두번째병의 마지막 한잔을 겨놓고 목청껏 고함을 질러댔던 것이다. 그 고함에 주인여자는 자라 목을 만들며 두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사내의 입에서는 잇달아 욕이 터져나왔다. 속에있는 욕주머니가 터져버린듯

서더니 『또 들를지모르니 술한병 달라』고 하고 커다란 소리로 국민학생처럼 인사말을 외치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만 한달만인 그 다음달 25일에 두번째 그 모습을 나타냈다.

그날도 그는 첫번째처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나타났고 술을 마시고 취하자 고래고래 소리쳐 욕설부터 다비운뒤 술값에다 귀찮소리를 얹어내고 사라졌다. 세번째도 네번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합해 여섯번을 들렀는데 그 여섯번 모두 술값 외에다 따로 돈을 더 얹어주고 갔다.

사내는 술값 외에다 따로 돈을 더 얹어주고 갔다.

『술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어쩌지요?』

주인여자는 술값보다 그위에 얹힌돈이 더 크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난 몰랍니다. 욕하러 오는 겁니다. 욕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거다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꼽보다배가 더큰게 당연하잖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난 댁의 기분을 알것도 같으면서 모르겠어요.』

주인여자가 활짝 웃으며 말한다.

『아까도 말씀 드렸잖습니까. 아주 후련하다고요』

『글쎄 그건 알겠는데…』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저 자세히 말씀 드릴까요?』

『말해보세요』

주인여자의 눈이 반짝 빛난다. 그러나 사내는 여짓여짓 냄름 일을 열지 않는다.

『말해 보시란구요』

『솔직히 말씀 드린다면…』

주인여자의 눈동두이가 뒤룬다.

『그렇게 욕 잘 하는 입도 가릴게 있기는 있는 모양이군요』

『……』

사내는 수술은 웃음만 뿌릴 뿐 그래도 입을 열지 않는다.

『말해 보세요』

『싫은 말씀입니다. 여자하고 잠자리를 갈이 하고 난 기분입니다』

『어마나!』

『정말입니다. 꼭 그런 기분입니다』

주인여자의 얼굴이 약간붉게 보인다.

『자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사내는 몸을 돌려 출입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드르륵 문을 밀치고밖으로 나갔다. 주인여자도 사내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간다. 밖은 달빛으로부쳐이나 환하다. 보름달이 묘하게도 빡빡한 위에 높다랗게 떠 있다.

『욕만 하러 오지 말고 더러 술 마시러도 와요』

사내가 널다리를 다 건널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한다. 햇여 자기 말에 대꾸를 하려다 말을 헛딛을지도 모른다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달에나 또 오지요』

산길로 들어선 사내가 손을 흔들어 보이며 대꾸한다.

휘영청 밝은 달이 온 누리에 자갯빛을 내쏟아 민둥산도, 그 등성이를타고 오르는 사내의 모습까지도 환히비추어주고 있다.

사내는 달빛 속에서 동동 떠오르듯 민둥산을 오른다. 술마신 사람의 걸음새 같지가 않다. 그녀는 사내의 그런 모습을 넋놓고 바라본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욕쟁이! 욕쟁이 조심해 가세요』

여자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났을 때 산의 능선에 올라 있던 사내의 모습이 그녀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마치 달이 잽싸게 그 사내를빨아들인 듯한 느낌이다. 사내의 모습이 사라진 빈 능선을 바라보는 여자의 가슴에 찬바람이 스민다.

『욕쟁이, 욕쟁이!』

여자는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라도하려는듯 계속 중얼거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핑 괸다. 그 눈물 속에 보름달이 똥그랗게 박힌다.

사내는 욕을 안주삼아 소주두병을 비웠다 "개자식들"

그의입에서 나오는 욕설은 계속해서 한옥타브씩 높아졌다

그것은 술기운 때문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울화통 때문인듯 했다. 그리고 사내의 욕은 끊일 줄을 몰랐다. 이제는 「개자식들!」 쌍놈의 새끼들!」이 아니었다. 별의별 욕이다 터져 나왔다. 차마 귀에 담을 수조차 없이 험한 욕들이었다.

그의 입에서 욕이 가신 것은 5분쯤 지난 뒤였다. 터진 욕주머니에서 욕이라는 욕이 다 빠져 나와 이제 더 나올 욕이 없는 모양이었다.

사내는 욕 내뿜던 입을 소독이라도 하듯 마지막잔을 한결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 나서 오이를 한쪽 집어 넣고 아장아장 썹어대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주인여자의 얼굴엔 또 다시 핏기가 가시고 말았다. 그녀는 달싹거리는 입으로 급히 말했다.

『그냥 가세요. 술값은 안받았어요』

『술값을 안받는다니 웅?』

사내는 주머니에서 꺼낸 돈뭉치를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툭이며 또 한바탕 욜랑하게 욕을 퍼부었다. 따따따따 따따따, 장난감 총소리가 연발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다시 욘란한 욕을 한 옹큼을 터뜨렸다.

『날 갈보로 취급하시다니 겨참 섭섭하군요』

『누가 그렇게 말했었지요?』

『미안합니다. 하기야 죄는 내게 있읍니다. 후련하고 말고요!』

사내가 말끝에 유쾌한 웃음을 매단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알을쓰며 욕을 해대세요?』

주인여자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왜 그러는지 오늘은 꼭 그 까닭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두 가지 까닭이 있읍니다. 첫째는 내 명대로 살다가 죽고 싶기 때문이고 둘째는 평생토록 나쁜놈들을 욕할 수 있게끔 죄짓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기 때문이오』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치미는 화를 참고만 살면 그게 건강을 해쳐서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잖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자 이겁니다. 그래야 발은 명이 짧던 길던 제 명대로 살다 죽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나쁜놈들에게 욕을 퍼붓부를 수 있다는 건 뭔니까? 그만치 자기는 떳떳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똘물은 돼지가 겨 돌은 돼지를 낚부란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나쁜놈은 나쁜놈한테 욕을 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놈들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을 평생토록 지니고 살자 이겁니다. 나쁜짓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나쁜놈들을 욕하면서 한 평생 깨끗하게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여자는 잠시 죽은 남편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그가 발은 명을 다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어느날, 출근을 하려고 현관에 나가 구두끈을 매다가 쓰러져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간 채 영영 깨어나질 못한 것이다. 뇌출증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남편에게도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녀의 남편은 자기 속을 남에게, 남에게 분만 아니라 한속솔밭을 먹는 처자식들에게까지도 털어놓는 법이 없는 그런 성격이었다. 남편도 저 사람처럼 한번씩, 아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지금 이렇게 지지리 고생하지 않아도련만 하고 그녀는 생각해 본다.

『아주머니, 이건 술값이고 또 이건 청소비입니다.』

사내는 술값 위에다 따로 돈을 더 얹는다.

『늘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어쩌지요?』

주인여자는 술값보다 그위에 얹힌돈이 더 크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난 몰랍니다. 욕하러 오는 겁니다. 욕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거다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꼽보다배가 더큰게 당연하잖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머니, 이건 술값이고 또 이건 청소비입니다.』

사내는 술값 위에다 따로 돈을 더 얹어준다.

『술

민족해방운동의 복원

在日작가 주로 8·15직후 민족사다뤄
항일민족해방운동 묘사 연변작가

교포문학은 국내작가들의 제한된 역사적 경험과 편협한 시각을 극복, 민족문학의 활성화에 자극제역할을 담당한다.

1. 민족문학의 지평 확대

최근에 국내에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해외 동포문학들이 대부분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대목들을 그 소재로 삼고 있어, 올바른 민족운동사를 인식할수 없었고 더구나 그것의 문학적 형상화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동안의 우리 문학에 대한 따끔한 반성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8·15직후 미군정 시기의 자주적 민주국가 수립을 둘러싼 우리 민족의 투쟁사와 일제하 항일민족해방운동은 이들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이 작품들의 소재로 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이런 역사적 대목을 다루고자했던 국내작가들과 작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 역사적 경험의 부족과 밖으로부터의 강요된 편협한 시각 때문에 정면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의 사정이었다。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잃어버렸던 역사적 사건들을 그 민중주체의 시각에서 정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해외동포문학의 역사적 의의는 한층 더 커진다。

이 해외동포문학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쓴 작품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문학이 그 주류를이루고 있다。김달수의 <태백산맥> 이은직의 <탁류>는재일동포문학의 것이고김학철의<격정시대>와 이근전의<고난의 년대>는 조선족 연변 자치주에 사는 우리민족의 작품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 문학에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대목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 문학 형상화에서는 각각 상이한 요소를 가지고있다。재일교포의 작품들은 일본어로 창작된 반면 연변동포들의 작품은 한글로 창작되었다는 점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변 동포들의 작품은 우리말의 풍부하고 정확한사용으로 인하여 그동안 외래언어에 훼손당한 국내 우리 작품들에 일깨움을 주고 있다。또한 재일 동포의 작품들이 대부분 8·15직후의 우리 민족사를 다루고 있는반면 연변동포들의 작품들은일제하 항일민족해방운동을 그리고 있다。이런 상이한 소재의 채용은 작가들의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있다。

항일 민족해방운동을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는 김학철의<격정시대>와이근전의 <고난의 년대>는 각각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차이점을드러내고있다。<격정시대>는 화북지방에서 활동했던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활동상을 그 주된 내용으로하고 있는 반면<고난의년대>는 동만주를 중심으로 한 동북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조선인의 활동상을 그 주된 소재로 삼고있다。

이런 상이한 운동의 양상 때문에 각각의 운동을 다루고있는 이 양소설도 각각 상이한 성격을 띄고있다。<격정시대>는 활동가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는반면<고난의년대>에는 활동가들의 움직임 못지않게 살아움직이는 대중의 모습이 생동감있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2. 「격정시대」: 혁명성장소설

작가 김학철의 자전적 소설인 「격정시대」는 주인공 서선장이 원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와 학교를 다니면서 광주학생의거를 겪고 항일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상해로 가는 과정과 그곳에서 벌어진 갖가지 운동의 개인주의적 성격을 인식하고 대중의 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태항산을 중심으로한 조선의용군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이처럼 식민지 조국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으로 삼고 그 조국의 운명을 건지는데 자신의 삶을 태운 서선장의 의식이 바뀌는 과정을 그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그린 이 소설은 혁명적 낙관주의에기반두고 있다。

원산 총파업을 앞두고 아나키스트와 볼셰비키 사이의 투쟁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런 싸움이 결국 일본제국주의자만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스스로 깨달으면서 싸울을 지양하는 감동적인 장면은 식민지 민중의 적이 누구이며 이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민중의 단결만이 최우선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해에서 벌어지는 항일독립운동이 대부분 개인적인 테러를 통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중적 기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일민족해방운동은 대중의 힘에 기초한 것이어야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는 서선장의 행동을 통해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전반의 항일민족해방의 전환과정이 지니는역사적 필연성을 잘 말해주고있다。특히 후방에서만 활동하던 국민당 군대를 벗어나 팔로군 지역으로 넘어와 태항산을 근거지로 삼고 활동하는 과정은 무장투쟁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잘 전해주고 있다。

혁명적 낙관주의에 입각하여 풍부한 우리말로 항일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한부분을 되살려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대중들의 생생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의결여와 일본 제국주의와 그들의 추구들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작가 자신의 체험에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전투를 마지막으로 그이상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담고있지 못하다는 점등은 작품이 남기는 아쉬움이다。

3. <고난의 년대>: 가족사적 혁명소설

80년대 연변 조선족 문학에서 최대의 수작으로 꼽히고 있는 이 작품은 구한말에서 8·15해방에 이르는 반세기에 걸쳐 만주지방에서 전개된 항일 민족해방운동을 그리고 있다。앞서<격정시대>가 서선장의 여정을 통해 보여준데 반하여 이 작품은 민족해방운동의 전선에 나선 박천수 일가와 친일 매판이라는 반혁명 전선에 안주하면서 동족을 착취하고 수탈하던 오영길 일가의 대조적인 삶의 방식을 통한 가족사적 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혁명성장소설이 한 인물의 의식변화를 잘 보여주는데 반하여 사회전체의 역동적 발전과정 특히 민족해방운동의 발전과정을 그려내지 못한 결점을 이 소설은 극복하고 있다。

국내 봉건 통치배들의 폭정에 시달려 두만강을 건너갔지만 「천하의 까마귀는 다 검다」고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지주와 봉건관료들의 수탈은 여전했다。이런 사회환경을 뚫고 해방된 삶을 찾기위하여 반봉건 투쟁을 벌이지만 차츰 제국주의 침략을 획책해온 일제의 방해로 곤란한 지경으로 빠지자 반봉건 투쟁이 반제 투쟁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필연성을 이해한다。

1920년 무렵에는 이런 반제반봉건 투쟁이 노동자와 농민의 힘을 기초로한 투쟁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 민족주의적 부르조아운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동으로 전환한다。30년대초반 농민협회를 중심으로한 여러 대중단체들이 조직되고 이를이어 추수 춘황투쟁을 겪으면서 항일무장투쟁으로 이행한다。

1935년 이후 광범위한 반일민족통전 시기에 발맞추어 진행된 동만주지역에서의 동북항일연군의 움직임은 이 소설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으로서 당시 반제민족통전의 구체적 실상을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부분이다。이후 해방이 되기까지 주인공 박윤민과 오순희가 겪는 투쟁과정은 잃어버린 우리민족운동사를 깨우쳐 주는데 모자람이 없다。

이 작품에서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항일민족해방운동을 그 역사적 발전과정에 맞추어 그린 것 못지 않게 일제와 그들의 주구를 중심으로한 적들의 모습을 선험적인 차원이 아닌 현실의 구체적 발전과정에 맞추어 그리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이외에도 여자들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악하면 악한대로, 일어서는 여성은 그 긍정적 전망하에서 각각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해방이 민족해방운동의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해방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그리고 우리 민족의 풍부한 생활상의 묘사도 이 작품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격정시대>와<고난의 년대>는 과거 항일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두지역이었던 화북지방과 동만주 지방을 무대로 우리 민족운동사의구체적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 보여주고 있어 민족문학의 지평을 더욱 넓혀놓았다。국내작가들의 제한된 역사적 경험과 편협한 시각으로 인해 부진했던 역사소설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어 앞으로의 우리민족문학의 활성화에 적지않은자극으로 남게될 것이다。

김 재 용
<문학평론가>

大學과 寄附

사립대학교의 재정은 졸업정원제의 폐지로 수입원인 학생수가 줄어듬에 따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등록금을 자율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학부형의 학비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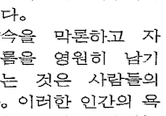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재단이 이렇다 할 수익성 사업체를 못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교수연구시설의 확충, 학생장학금의 증액및 학생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년전에 기부금입학제도를 검토한 바 있으나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실행되지 못하였다。

필자가 몇 년전에 미국의 사립대학교를 방문할기회가 있었다。미국 사립대학교의 건물 즉 도서관, 체육관, 강의동을 보니 모두 사람 이름을 붙여서부르고 있었다。알고 보니 그 건물을 지어준 사람의 이름을 붙여 아무개 홀, 아무개 도서관이라고 부르고있었다。미국의 사립대학의건물 및 시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외부의 기부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세우는경우는 드물다고 한다。미국의 어느 대학교는 미술대학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즉 미술대학 이름 앞에 기부자의 이름을 붙여 아무개 미술대학이라고 해줄테니 미술대학에 기부하라는 것이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이다。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대학발전에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수 많은 돈을 들여 호화묘지를 만드는 것보다 대학교에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이 보다 더 자기 이름을 영구히 남기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인간은 원래 공수래 공수거가 아닌가。이러한 기부제도를 위해서는 학교 기부금을 손비처리해주고 상속세에서 기부금을 공제해주는 세제개정이 필요하다。우리 대학교는 몇년전에 교내외 동문들의 기부를 받아 동문문고를 설치한 바 있다。



錢 昌 源
<경상대교수·무역실무>

東岳路

기밀유지의 최대무기 "학교발전上…"

매년 이맘때쯤 되면 각 대학교에서는 신입생 모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 확정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本校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교부의 대학 정원 조정및 학과 신설에 대한 신청 공문이 하달됨에 따라 각 단과대에서는 단과대의 특성을 살리고 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담당부서의 기획·조정에 따라 지난 7월20일 문교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

공과대에서 몇년전부터 요구해오던 기계공학과의 신설案이나, 신문방송학과가 비록 야간이나마 신설내역에 포함되는등 서울 경주를 합해 15개 여학과의 신설계획안이 학우들간에서는 거의 확정된듯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記者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관계자를 찾아갔다。그러나 「학교 발전상 기밀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취재를 거부당했다。

본교의 특수학과 신설내역이 타교에 알려질 경우 문교부의 방해 공작(?)이 들어와 「다된 밥에 재뿌리는 격」이 될수도 있다는 해명을 달았다。

학교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면 동국의 그 어느 누구인들 마다할까마는 그러나 문제는 관계자가 진정 동국의 앞날을 위해 출입기자에게 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했는지 아니면 그저 책임소재의 추궁에서 벗어 나기위해, 기자의 신분으로 자료를 제공받되 학교의 발전상 저해되는 일이라면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전체를 달았음에도 기어이 함구할수 밖에 없었던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더욱 이해할수 없었던 것은 처음에는 전제를 단 조건에서 응해줄 듯도 하였으나 다음날 돌연 취재 일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이미 몇몇 대학에선 일간지나 학보를 통해 신설내역의 일부를 공개한데 비하여 本校는 本校 특유의 중앙집권적 운영체제의 단면을 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젠 적어도 서울캠퍼스에 한해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돼있는 학과신설이 2·3주후면 확정되어 발표될 내용에 어떤 크고 중대한 폭탄선언(?)이 숨겨져 있을지 記者는 자못 궁금할 뿐이다。

<김경애記者>

지령 1천호기념
전국고교 교지·신문 경연대회 選後評

신문부문

(교지) 학생들의 순수열정 돋보이는 작품 많아
학생들의 참여도·글의 수준이 평가기준 (신문)

1 고등학교 신문은기본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져야한다。그러자면 기사작성과 편집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한다。교사들의 지도는 도움말 정도로 그치는것이며, 원고 역시 학생들 것보다 많지 않게 초절되어야 한다。

2. 학교안에서 일어나는여러가지 소식은 많이 실릴수록 좋다。학교신문도 신문인만큼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필수과제의 하나이다。그러나 소식알리기에만그쳐서는 안된다。소식기사와 함께 학생들의 공동관심사가되는 문제를 골라 집중적인분석을 해본다면 더욱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3,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다。따라서 학생들이 쓴 기사중에는 그들의 공부한 결과가 반영되어야한다。학생들의 문예작품도 그러한 기사의 일종이다。그러나 문예작품만이 그런 기사의 전부일 수는 없다。문학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글도 많이 실리는 것이 좋다。그리고 어떤분야의 글이든 그글의 내용이 신문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신문기사는 문장으로만 되는것이 아니다。 사진이나 그림이나 글씨등도 기사에 속한다。읽는 신문이 되면서 동시에 보는 신문이 될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것이다。

5. 오늘날의 중고등학생은 가로쓰기와 한글 전용세대라고 할 수 있다。이점에서 학교신문은 그러한 세대적 특성을 살려나가야 한다。특히 한글 전용의 문제는 한글로 쓰기가 어색한 한자말을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나가는 힘을 길러준다。그런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말이 그만큼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 말은 한자교육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상의 다섯가지 기준에 따른 평가가 비슷할 때는 그 신문의 지령, 즉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신문이 발행되었느냐 하는 점이 고려되었다。

신문이 오랫동안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평가를 받을만한 일이다。

한편, 비록 입상권에는 못들었다 하더라도 좋은 신문들이 많았음을 부기해둔다。

교지부문

가능성이란 언제 들어도좋은말이다 구체적인 실체로서 들어나느냐에 첫번째의 기준을 설정하였다。그래서 가능한한 해당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이 보다많이 편집의 틀 안에 잡혀 들고 있느냐에 주목하고자 했다。원래 교지라고 하는 성격의 책은 구성원들 모두가 오손도손 한자리에 모이도록 열개짜는 일이 가능성의 폭을 더욱 넓혀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의 기준설정을 우리는 참신성에 두었다。따라서 기성잡지들의 상업적 매끄러움보다 좀 거칠고 영글지 않았더라도 자신들의 생각과 모습이 고스란히 떠올려지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같은 물을 섭취하고도 소는 우유를 만들고 나무는 과일을 만든다는 뜻의 말씀을 부쳐님께서 하신 적이 계신다。인쇄매체와 학생들의 원고가 가진 비슷한 수준으로도 곰살맞게 손을 놀리고 지혜를 짜낼 때 읽고 싶은 마음을 충동하는 편집 디테일의 공간은 확보될 것이다。

등교육과 문화수준이 향상된데 원인의 대부분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편집을 주도한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책의 체제에 그 세번째 강점을 두고자했다。

이같은 안목에서 볼때 전반적으로 컨테스트에 참여한 93개교 교지의 수준들이 월등함에 우리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그만큼 우리의 중등교육과 문화수준이 향상된 것이다。

최우수작 거제고교의 교지 「새빛」 23호 (1987년) 는 우리들의 이런 생각을 가장많은부분 충족하고 있어 쉽게 수상작으로 합의할 수가 있었다。

심사위원

교지부문
- 李 海 浜 <농과대교수·농생물과>
- 李 璜 雨 <사과대교수·경행과>
- 金 善 鶴 <인문대교수·국문과>
- 林 英 正 <본사주간·사범대교수>

실물부문
- 李 炯 基 <문과대교수·국문과>
- 宋 在 雲 <문과대교수·국민윤리학과>
- 金 炳 奇 <본사 부주간·상경대교수>

동악廣場

문화단신

「현장」공연

극단「현장」에서는 박노해作·박인배 각색연출의 노래극「노동의 새벽」을 오는26일부터 10월13일까지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공연한다。

노래극「노동의새벽」은 노동자시인 박노해의 시집 노동의 새벽을 바탕으로 하여 노래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절망과 슬픔, 원한과분노의 정서를 생생히 담아내고있다。공연시간은 매일 오후4시30분, 7시30분 하루 두차례이며 자세한 문의는 313—1256으로 하면된다。

통일문화 큰잔치

우리마당에서는 지난9일부터 오는23일까지 15일간 예술극장「한마당」에서 통일문화내용을 담은「제1회 통일문화큰잔치」를 각 부문별로 개최한다。

통일심포지움

한국불교사회연구소와 민족화합 공공동을림픽추진 불교본부에서는 지난10일 본교학림관 소강당에서「민족통일의 전망과 현단계 한국불교의 방향」이란 주제로 통일문제 심포지움을 가졌다。

국제 학술회의

국제퇴계학회에서는 제10회 퇴계학 국제학술회의를 오는14일부터 21일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갖는다。

영어수강생모집

재단법인 언어교육에서는101기 수강생을 모집 한다。기간은 내달28일까지이고 문의처는 737—4641이다。

민족여성학교 개설

한국 불교사회교육원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저변확대한다는 취지하에 제3기 민족여성학교를 개설한다。이번 강좌는 여성의 과거역사, 현재의 여성현실, 미래의 여성상이라는 내용의 6개강좌를 마련하였으며 오는 21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에 한국불교사회교육원에서 강좌를 연다。

접수기간은 오는20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354—5484로 하면된다。참가비는 1만2천원.

탁아소활동 모집

총여학생회에서는 도시빈민아이들을 돌봐줄 학생들을모집한다。(신청은 총여학생회실로)

회보게재물 모집

자연과학대는 출범과 더불어 회보를 발간함에따라 시론, 문예물, 사진, 각종자료등의 회보 게재물을 전 자연인을 대상으로 자연대 학생회 사무실에서 수시 모집중이다。

에어로빅 강습

경주캠퍼스 여학생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화랑도 중흥회 수련회 권정오 강사를 초빙하여 오후5시30분 체육관에서 선착순에 한해 에어로빅강습을 한다。신청자는 회비 5백원과 간편한 복장으로 운동화 신고 참석바람。

일일 고적 답사

인문과학대 학생회에서는 지난9일 인문과학대 재학생을 대상으로「일일고적답사」를 떠났다。

박물관—보리사—괘능—석굴암—불국사등을 순회한 이번 일일답사는 전 인문인들에게 향토문화의 올바른 인신과 함께 옛선인들의 문화창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실시했다。

논문현상공모

한중문화협회에서는 내달29일까지 대학생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을 모집한다。

<동양사상과 중국의 현대화운동>·<서해안시대와 한·중문화의 새지평>·<한국과 중국의 통일전망과 그비교—문화적 측면에서 본 통일론> 란 주제로 2백자원고지 7~80매 내외의 분량(7~8매 정도의 요약분 별도첨부요)을 서울 중구 명동2가 105 한중문화협회문화부로 보내면 된다(전화문의는 776—5630·756—4934로 하며 발표는 11월9일)

프로그램전시회

전자계산원학생회와 써연주최 제8회 프로그램전시회가 12일부터 5일간 혜화관6층 홀에서 열린다。

사과대풍물패모집

사회과학대학에서는 민족문화에 관심있는 신입회원을모집한다。신청방법은 단대실에서의 접수로하며 정기모임은 매주 토요일 3시30분 단대실서 갖는다。

써클활동

동국문학인 모집

동국문학회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함께 생활할 새사람을 모집한다。(자세한 문의는 학생회관4층 동국문학회 써클룸으로 하면된다)

테니스부원 모집

테니스학생회에서는 2학기를 맞아 신입회원을 모집한다。(자세한 문의는 학생회관 3층 테니스학생회실로할것)

백상응원단 모집

꿈과낭만이 가득찬 백상응원단에서는 착실하고 발랄한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Action남여(○○명) Vocal Guitar, Ⅰ·Ⅱ Bass,Singer (남)로 1학년을대상으로 모집한다。자세한 사항은 백상응원단으로(학생회관5층)。

선무부원 모집

선무부에서는 신입부원을 모집한다。1학년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수련은 선무부부지하에서 한다。

신입부원 모집

생활속의철학에서는 신입부원을 모집한다。접수는 학생회관1층 써클룸에서 한다。

영—리더기념식

경주캠퍼스 영—리더에서는 오는 15일오후3시 옥야실에서 제3주년 창단기념식을 갖는다。

MRA회원모집

동국MRA (학생회관4층위치)는 모임을 이끌 새로운 회원을 모집한다。

유스—호스텔 신입회원모집

유스—호스텔에서는 2학기를 맞아 신입회원을 모집한다。(자세한 문의는 학생회관 4층 써클룸으로)

환경정

국문과 체육대회

국어국문과 등문·재학생은 내달29일 오전8시에서 오후6시까지 운동장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갖는다。

연영과 공연

예술대 연극영화학과에서는 제230회 2학년 실습공연을 지난 6·7·8일 사흘간공연했다。

존보우엔작 이석형연출『트레버』는 하루 두번씩 연극영화학과 스튜디오에서 있었다。

원고 현상공모

관광경영학회는 학우들의 학업성취와 대외적 홍보를 위하여 학회지를 발간할 예정이다。학회지에 실릴수 있는 모든 부분의 원고를 관광경영학과 학과장실로 제출하기 바람。

해당분야: 시는 20백자 원고지 3매이내 수필은 15매이내, 논문은 50~60매이내로 투고바람。

동문알림

동대부고·명성여고 카니발

동대부고·명성여고동문회에서는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지하철1호선 회기역앞 카페 그랑데르에서 동문의인화단결을 위해 카니발을 가질 계획이다。(반드시 파트너 있어야 함)

부산남 동문회

부산남고에서는 오는14일오후5시 불상앞에서 동문회를 갖는다。회비는 3,000원。

대일동문회

대일동문회에서는 오는 17일 강화도에서 8회단합대회를 갖기위한 예비모임을 오는 15일 오후5시 다향관2층에서 갖는다。

명지고 체육대회

광운·명지동문회에서는 오는 18일 오전9시에 명지고 운동장에서 제2회 서울·경인지역 명지동문 체육대회를 갖는다。

올림픽

파랑새의 쪽지

未知氏! 나는 작은사람을 찾아 떠다니는 뽀오얀 물방울 未知와의 이야기만으로 세상을 살수만 있다면…축하해。

—그대를 외롭지않게 하고픈 콩장이—

동악광장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린 공간입니다。학소식, 써클소식, 동문회소식등 여러분 주변의 생활에 대한 각종 알림사항들을 제보하여 주십시오。아울러 各 學科 행사의 광고나「올림방」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本社 문화부로 문의 하시기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유언론" 위상 정립해야

독자의 무관심도 문제점으로 나타나

학생들 「가로쓰기」에 64% 찬성

1000號기념 本社 설문조사

본교의 교수, 학생들을 포함한 우리신문의 독자들은 우리신문의 제작발환에 대해 「자유언론의 위상정립」과 「대학문화의 창달」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현재의 「(68%) 세로쓰기」 편집체제를 「가로쓰기」로 바꾸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8, 9면〉

이같은 사실은 본지 지령1천호를 맞아 우리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 이후의 신문제작 발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9일까지 학생 3백86명(대학원생29명 포함) 과 교수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사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신문에 대한 관심도는 학생의 경우 「매우 관심이 많다」(15.8%) 「관심이 있는 편이다」(53.4%) 등 69.2%가 지적한 것이 학생 39.2%, 교수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당국의 간섭, 2학기사업계획, 신입생 8개분과위원장인사, 회칙개정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본 설문조사는 동아리연합회의 열띤 권한을 주요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동아리연합회는 지난8일 학교측에 4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는데 그 주요내용은 ▲지도교수 지도비의 동아리운영비로의 환원여부 ▲88년도 예산요구서에 책정된 동아리운영보조비의 지급 ▲폐충된 교비지원의 전체동아리 균형지원 ▲동아리연합회 제반 복지시설개선 등이다.

이에 대해 宋在雲학생처장은 지난8일 학생처장실에서 있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과의 간담회에서 복지시설 개선 지도교수비 문제는 곧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동아리운영비로의 환원과 88학년도 동아리운영보조비의 지급, 장학과사무실 이전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교수는 전체의 8.5%로 낮게 나타났고 「대학문화의 창달」을 꼽은 의견은 교수·학생 각각 39.1%와 48%를 보였다.

▲우리신문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학내여론형성」(학생53%, 교수47.5%) 「학교발전을위한 홍보」(학생20.2%, 교수23.7%)사회민주화에 기여」(학생7.7%, 교수6.8%)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의 「세로쓰기」 편집형태를 「가로쓰기」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학생은 63.7%의 찬성과 「가로쓰기면의 점차적 증면」은 10.9%, 「가로쓰기 반대」 20.5%의 견해를 보인데 반해, 교수의 경우는 「가로쓰기」 찬성과 현재의 「세로쓰기」 찬성이 각각 39.3%와 40.6%로 아직은 부정적인을 보였다.

반면 교수는 전체의 8.8%) 기자의 역량(학생16.3%, 교수11.9%), 제도적 보장의 미비(학생20.4%, 교수3.3%) 등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로 드러났다.

▲우리신문의 사명에 대해 학생들은 「자유언론의 위상정립」을 지적한것이 전체의 41%로 가장 높았던 반면 교수는 「대학신문」의 주체상상, ▲대신문의 김일평 연설문, ▲여대신문의 북한기행 수기등 게재로 대학신문이 기성언론으로부터 따가운 비평을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기자나 필자, 출판인이 연행, 구속되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에 예술단체를 불러놓고 꽁연한 다고 요란해 부적 대조적.

본 회전부대주, 「주체」며 「북한」이란 단어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정권의 대처방법이 변하지 않는 것을보면 아직도 군사독재 정권의 흑백논리의 주체 건재(?)를 과시하는것 같아 아직도 민중주체의 폭의 길은 험난하게 느껴진다.

「주체」만 나와도 알레르기를 앓는 속셈은…

진짜 몰아내야할 주체분자는

○…최근 A대 「대학신문」의 주체사상, A대신문의 김일평 연설문, A여대신문의 북한기행 수기등 게재로 대학신문이 기성언론으로부터 따가운 비평을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기자나 필자, 출판인이 연행, 구속되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에 예술단체를 불러놓고 꽁연한 다고 요란해 부적 대조적.

본 회전부대주, 「주체」며 「북한」이란 단어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보이는 정권의 대처방법이 변하지 않는 것을보면 아직도 군사독재 정권의 흑백논리의 주체 건재(?)를 과시하는것 같아 아직도 민중주체의 폭의 길은 험난하게 느껴진다.

修身學友 治綏革天下

○…동아에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코끼리 학력들이 갈광질팡해 걱정…

本紙에 실린 모교수의 글을 돌려산 체교과및 철학과 학생들이 甲論乙駁식으로 맞서 있어 학내 민주화 열풍이 퇴전으로 몰려나고있는 느낌.

더군다나 사건발생의 근거가 된 校內주동문회 사무실에서 있었던 88올림픽전에 양심수의 전원석방및 수배해제촉구를 위해 가진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회자 강성구(연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씨는 성명서를 통해 『올림픽이전에 광주학살진상규명, 5공비리척결, 양심수전원석방등이민주화조치의 선행이 돼야하며 아울러 수배해제, 국가보안법·집시법등 악법철폐와 올림픽을 빙자한 민주화탄압도즉각 중지해야한다』라고 밝힘.

이어 연구(67사학졸) 씨등 본교동문 84명(학졸) 5명및 타학교 6명을 포함한 90여명의 구속자 (민가협통계)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무식한 운동선수들」이란 글과 관련, 지난2일 체육부 학생들과 교수세미나실 접거 농성을 벌인 사실에 대해 『건전한 학생운동을 폭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지난6일 오후4시경에는 교수세미나실에서 黃교수를 비롯, 宋在雲학생처장, 金大중총무처장, 체육부, 체교과 학생들이 참여 주동문회 설립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으나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한채 해산.

한편 黃교수도 지난86년 신작 에세이집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의 「무식한 운동선수들」이란 글과 관련 『학생들의 권리가 폭력 앞에 무너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 그 누구의 권익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논리속에 교내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이번 사태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黃교수는 『학생들이 폭력을 쓰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한편 체육부 학생들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해 『빨갱이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가 집기를 파괴하는 행위는 엄연한 교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

이날 철학과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黃교수 글이 빌미가 되어 교수연구실이 파괴된 것에 대해 학교당국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체육부 학생들은 『교권도 존중할만한 가치가 있을때 존재한다면』 이라며 외부의 사주에 의한 핼롱이란 루머에 대해 『단지 체교과 교수들의 「조언」을 수렴했을뿐』이라고 「휴교령저지」도 일반학생들과 동감한다는 입장이다』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일부학생들은 黃교수의 원고는 「스포츠 정책의 문제점」에 촛점을맞춘 것으로 「부식한 운동선수」라고 표현했다.

이날 총학생회 체육부장 길용진(체교4) 군은 『黃교수의 경우, 운동물을 통해 운동선수들을 보는 눈이나 올림픽관련에 문제가 있다면 교수연구실 부수고 서주장하고 체육부, 체교과 학생들과 교수세미나실 접거 을 확보하지 못한 처사이다』라고 전제한뒤 이 사건에 대해 학교당국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체육부, 체교과 학생들을 비롯, 21개대학연합민주동문회 주최로 지난7일 오전9시, 연대·중대등 6개대학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퇴계로4가에있는 本校민주동문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양심수석방 촉구 민주동문회 기자회견

「양심수석방을 위한 민주동문회합동기자회견」이 本校민주동문회 주최로 지난7일 오전9시, 연대·중대등 6개대학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퇴계로4가에있는 本校민주동문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88올림픽전에 양심수의 전원석방및 수배해제촉구를 위해 가진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회자 강성구(연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씨는 성명서를 통해 『올림픽이전에 광주학살진상규명, 5공비리척결, 양심수전원석방등이민주화조치의 선행이 돼야하며 아울러 수배해제, 국가보안법·집시법등 악법철폐와 올림픽을 빙자한 민주화탄압도즉각 중지해야한다』라고 밝힘.

이어 연구(67사학졸) 씨등 본교동문 84명(학졸) 5명및 타학교 6명을 포함한 90여명의 구속자 (민가협통계)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무식한 운동선수들」이란 글과 관련, 지난2일 체육부 학생들과 교수세미나실 접거 농성을 벌인 사실에 대해 『건전한 학생운동을 폭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지난6일 오후4시경에는 교수세미나실에서 黃교수를 비롯, 宋在雲학생처장, 金大중총무처장, 체육부, 체교과 학생들이 참여 주동문회 설립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으나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한채 해산.

한편 黃교수도 지난86년 신작 에세이집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의 「무식한 운동선수들」이란 글과 관련 『학생들의 권리가 폭력 앞에 무너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 그 누구의 권익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논리속에 교내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이번 사태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黃교수는 『학생들이 폭력을 쓰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한편 최근 올림픽을 앞두고 평화적 시위를 벌여왔던데 이날 집회는, 중문에서의 약1시간가량 피켓을 비롯한 평화시위가있었고 사회과학서가 1만7천8백41권, 기술과학서가 8천3백59권, 역사서가 6천9백67권, 철학서가 6천3백83권, 순수과학서가 6천1백90권, 총류가 5천1백53권, 불교학자료실이 3천2백77권으로 나타났다.

도서분류별로는 문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만4천5백44권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서가 1만7천8백41권, 기술과학서가 8천3백59권, 역사서가 6천9백67권, 철학서가 6천3백83권, 순수과학서가 6천1백53권, 불교학자료실이 3천2백77권으로 나타났다.

도서분류별로는 문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만4천5백44권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서가 1만7천8백41권, 기술과학서가 8천3백59권, 역사서가 6천9백67권, 철학서가 6천3백83권, 순수과학서가 6천1백90권, 총류가 5

"新聞통해 모교애를 키워왔죠"

本紙를 모아온 독자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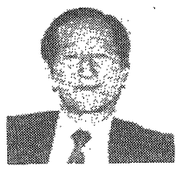
東大新聞 지령 1천호。

우리 신문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일 일뿐더러 東國 82년의 연륜을 반증하는 자랑스런 잔치에 그 감회가 남다른 사람이 있어 1천호의 주인공으로 찾아 보았다。

本紙의 열렬한 애독자인 趙昌元동문(57경제과卒)이 바로 그 사람。

趙씨는 재학시절부터 최근의 999호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우리 신문을 애독하는 한편 수집·소장해온 동대신문의 산증인이다。

『1천호를 축하합니다。대학에 입학하던 51년부터 줄곧 동대신문을 통해 동국의 역사를 보아왔죠』라며 우리 신문과의 인연을 회상하는 趙씨。



趙 昌 元동문

"동대신문을 통해 느낀 후배들의 의기있는 젊음에 동국의 중흥을 믿어보며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부지런히 발로 뛰는 신문이길 바랍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문이 늦거나 할때에는 직접 학교에 찾아와서까지 신문을 모았다』는 趙씨는 65년 가족이 이사할 때 짐을옮기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그이전까지 모아 둔 묶음을 잃어버린것이 지금도 못내 안타깝다고。

또, 趙씨는 주위에서 인정하는 지나칠정도(?)의 東國主義者로 모교에 대한 애정이 우리 신문에대한 열정의 근원인듯。『간혹 신문·방송등의 대학관련기사에서우리학교를 저만큼 뒤로 다루는 경우가있어요。그럴땐 울분이 솟아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지요。82년 전통의 명문민족사학인 우리 동국이 근래에 이르러 교세의 약화로 제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趙씨는 신문을 통해 지난 여름의 학자투 관련기사를 보고 학교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주장과 의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았노라며 의기있는 젊음이 있는 한 동국의 중흥도 멀지 않을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기도。

『동국의 역사와 동대신문 38년의 연륜에 비해 이번의 1천호 발간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신문은 역사의 기록이니만큼 앞으로는 가급적 휴간없이 제때에 발행되는 부지런한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고 당부하는 趙씨의 진지한 표정에서 좋은신문을 만들어야한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함께 되새길 수 있었다。 <碩>

화제의 책

아르바뜨의 아이들

소련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나똘리 리바꼬프의 소설「아르바뜨의 아이들」은 우선 출판사상 최초로 소련의 출판사와 정식출판계약을 맺고 출간된 소련 현역작가의 작품이라는 데서 주목을 끈다。또한 이 소설은 한때 소련내에서 출판금지되었던 작품으로 고르바쵸프의「글라드노스트」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논란끝에 해금, 발행이틀만에 50만부를 기록한 문제작이기도 하다。

총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스코바의 아르바뜨라는 예술의 거리에서 생활하는 반체제대학생들이 스탈린 치하에서 체포·구속·퇴학되는 현실을 치밀하게 묘사하고있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1930년대는「위대한 창조의 시대, 열정의 시대, 그러나 한편으로는 커다란 비극과 상실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스탈린시대로서 스탈린치하에서의 소련의 생활상을 광범위하게 드러내며 소설 속에 스탈린을 등장시켜 역사소설로서도 귀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또한 사실그대로의 스탈린 모습의 기술, 젊은이들의 사랑, 그들의 대학생활을 빠른 템포와 간결하고 유머러스한 문체 속에 수용, 이미 전세계적으로 많은 흥미와 화제를 유발시키고 있다。아울러「아르바뜨의 아이들」은 저작권 계약하에 국내에 처음 소개됨으로써 韓蘇간의 문화교류의 한 기폭제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책들刊>

사회와 사상

「사상의 대중화」를 위한 잡지「사회와 사상」이 올 9월로 첫 창간호를 내었다。우리의 민족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인「사회」라는 구조적 틀과 이러한 사회적 삶의 현상에 대한 주체적 실천논리인「사상」을 대중의 삶 속에뿌리 박기위한 작업의일환으로 발간되는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모순구조의 극복을 위해, 그리고 사회변혁과 역사발전의 동력으로 자리잡아갈것으로 보인다。이번 창간호에서는 을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던「통일」문제에 대해 문익환, 김대중등 각계인사가 내놓은 통일방안인「현단계 민족통일운동의 실천전략」, 남·북한의 통일정책, 이영희교수의「남북한전쟁능력비교연구」등이 돋보이며 최익환교수의 북한기행문,「80년대의 민족운동사적 의미」등이 실려있다。그리고 앞으로도 현단계 민족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게 될 이 책은 또한 변혁의 한지침서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길사刊>

80년대 한국인문사회 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지난 6월3일~4일에걸쳐 개최된 학술단체 연합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모아 발간된 이책은 그동안 분산적, 득립적으로 추구된 학술연구를 총체적으로인식하고 여러각도에서 한국사회를 조명한 연합심포지움의 한 성과물로서 그동안의「학문적 종속화」를 탈피,「민족적 민중적학문」을 지향하는 한국지성의 한 지평을여는 작업이라 평가될수 있겠다。책의내용을 살펴보면 총2부로 나눠 1부에서는「한국인문사회과학의 연구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아래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여성학의 나아가야할 위상설정을, 그리고 제2부에서는「한국사회의 역사적.구조적분석」아래 한국사회의 구조와 사회운동 문학, 문화, 이데올로기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80년대 한국인문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의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역사문제 연구소, 한국근대사연구소, 한국정치연구회등 10여개의 학술연구단체들이 참가, 진보적 학술연구를 위한 학술운동의 계기로서 사회과학적인식의 대중화를 함께 꾀하고 있는 이 책은 현사회의 인문·사회과학적 과제가 총 집약된, 돋보이는 논문집이다。 <역사비평사刊>

<문화부>

메아리

△실로 정중히독자여러분께 네번 큰절의 예를 올리옵고 사의의 말씀을 드리나이다。하도 가슴 벅차옵고 놀랍사오며 그간 쏟아 주오신 관심과 성원을 생각하오매 눈시울이 절로 뜨거워 지나이다。△혹자는「즈른」(千의 순 우리말) 이란숫자가 그리 대수냐라고 할 수도 있다。왠고하니 즈른이란 숫자도 십진법의 일개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기때문이다。또한, 신문에 있어 지령을 따지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물론 지령이나 몇 주년이 그리중요치 않다고 할 수 있다。신문이 기념호라 중요하고 특집호가 아니라서 중요치 않다고 할 수없듯이 매번 만들어지는 각각의 신문 모두가 중요하달밖에 없는 것이다。이같이 매번 정성스레 만들어져 온신문이 창간호에서 999호를 거쳐 1000호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수 없는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고 결작은 못된다해도 力作을 만들게 되니 감회가 남다를 밖에 없는 것이다。△아울러 반가운 일은 이번 一千번째의「결실」과 때를 맞추어 東大역사의 산기

紙齡 一千號

록이 꿈틀대는 역대신문을 모아논「축쇄판」1권의 발간및 역대「칼럼」들을 엄선하여 수록한 칼럼모음집「달하나 千江에」등 발간사업과 아울러「전국대학 신문전시회」「전국고교 신문·교지컨테스트및 전시회」,「보도사진전시회」등 각종 문화사업이 이번 주중에 이루어 진다는 사실이다。이는 대학문화의 창달이라는 또하나의 대학신문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하겠다。△ 지난번 999號(8월30일字)의 筆禍事件은 千號를 맞는 우리 신문사기자들에게 신문제작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뼈아픈 기억으로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다。역시 지령 1千號라고 하는것이 그리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느낄 따름이다。하지만 그와같은 폭력행사에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주장이 정당하다해서 반드시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 없기때문이다。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해도 방법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어느 누가 주장할수 있을까。어쨌든「신문쟁이」노릇하기가 점점 어려워 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가 보다。 <煥>

社告

전국 大學生 대상

제1회 東大文學賞 작품모집

東國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주도해 갈 참신한 文才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本社제정「東大文學賞」이 올해로 제3회째를 맞이하였읍니다。

본「東大文學賞」이 이땅의 정신문화를 주도해갈 가장 권위있는 大學文人의 등용문으로 정착할 것을 기대하며 문학에 뜻을 둔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詩…5篇이상

△小說…2백자원고지 60枚내외

△評論…2백자원고지 60枚내외

◇응모요령

△응모 자격 : 全國에 소재한 4년제대학 재학생

△제출 기간 : 1988년 9월 5일~15일限

△시 상 : 상장및 상금<詩=본상 15만원·가작 10만원, 小說·評論=본상 20만원·가작 15만원>

△심사 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며 당선자발표와 함께 공고

△당선작발표 : 1988년 9월27일字 本紙 紙上

△작품제출처 : 서울 중구 필동3가 26번지(우편번호100—715)

※작품겉봉에「東大文學賞」응모작이라 朱書해 주십시요

※응품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東大新聞社

물을 바라보며

석자명 著

새책 안내

석자명스님(동문·74卒)의 수행글 모음집인「물을 바라보며」가 대원정사에서 출간되었다。「길을 걸으며」「우리는 어디로 떠내려 가는가?」「제자리 서기」「가람의 향기」등의 단락에 47편의 글이 실려있으며 기본적인 불교교의를 누구나 이해할수있게 저술하였다。

<대원정사刊·203面·2천5백원>

소매점 창업과 사업성 분석

박춘엽外 著

중소규모의 소매점 창업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과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소매점 창업과 사업성 분석」이 本校 박춘엽교수(산공과)와 양갑모씨(동문)에 의해 편찬되었다。두편으로 나뉘어져「창업과 사업성분석」과 32종의 사례를 연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도서출판 스몰비지니스刊·303面·4천8백원>

경영과 컴퓨터

방성창 譯

경영자층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이 교재는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기본이론과 응용, 각 기업체의 사용예등을 총5부에 걸쳐 기본부터 실용까지 상세히 기록돼있다。

컴퓨터의 사용과 기업의 경영, 컴퓨터를 이용할때 나타나는 다양한 급성장을 여러 방면에서 다루고 있다。<회성출판사刊·479면·8천원>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바구니를 장독뚜껑으로 쓸 수야 있겠읍니까?
欲速不達이란 말이 있듯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고
아무리 의욕이 앞선다 할지라도
順理를 따르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그르칠 수가 있읍니다.

우리의 생각과 行動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가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지켜나갈 때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社會가
건설될 것입니다.

바구니 하나를 제자리에 놓듯
三養社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산업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
60여년을 한결같이 노력해 오고 있읍니다.

三養社

- 纖維部門 폴리에스텔SF 폴리에스텔FIL 絹紡糸
- 食品部門 雪糖 配合飼料, 水産物, 畜産, 포도糖, 高果糖, 밀가루
- 化学 機械部門 이온交換樹脂 TPA 엔지니어링플라스틱, PET-BOTTLE 産業機械

기업이미지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대학생 여러분들의 취업관과 아울러 저희 회사의 기업이미지를 파악함으로써, 귀중한 채용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설문자료는 효과적인 채용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응답을 요망합니다.

설문조사항목

1. 귀하의 졸업후 예정진로는? ( )
① 일반기업체 ② 금융계 ③ 국영기업체 ④ 언론, 방송계 ⑤ 연구소 ⑥ 진학 혹은 유학
2. 귀하의 희망업무는? ( )
① 기획 ② 재무 ③ 홍보, 광고 ④ 총무 ⑤ 판매 ⑥ 인사 ⑦ 생산관리 ⑧ 연구 ⑨ 해외근무
3. 귀하가 취업할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은? ( )
① 연구개발력 ② 안정성 ③ 대외적 호감도 ④ 해외근무가능성 ⑤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도 ⑥ 회사의 분위기 ⑦ 회사의 성장도 ⑧ 높은 급여 ⑨ 빠른 진급 ⑩ 자질향상을 위한 경력계획 ⑪ 공정한 인사관리 ⑫ 근무시간 준수 ⑬ 복리후생제도
4. 귀하가 특정회사에 대하여 기업 이미지를 갖게된 경로는? ( )
① 선배, 친지, 친구의 소개 ② 회사 홍보자료 ③ 공장견학 ④ TV, 라디오 광고 ⑤ 신문 ⑥ 전문지및 잡지 ⑦ 대학신문 ⑧ 생산품 ⑨ 기업설명회
5. 삼양사의 제품 두가지를 아는대로 쓰시오. ( )
6. 삼양사의 기업 이미지에 대한 귀하의 느낌은? ( )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쁘다. ⑥ 잘 모른다.
7. 삼양사에 대해 귀하의 이미지가 긍정적일 경우, 그 이유는? ( )
① 회사의 견실성 ② 대외적 공신력 ③ 사회적 책임과 종업원에 대한 복리증진 ④ 발전가능한 잠재력 ⑤ 인화중심의 회사 분위기 ⑥ 기타( )
8. 삼양사에 대해 당신의 이미지가 부정적일 경우, 그 이유는? ( )
① 기업의 보수성 ② 홍보부족 ③ 지역적 편중성 ④ 사업부문에 대한 불만 ⑤ 기타( )

응답자 성명		성별	남·여	소속대학	대학교(원)	과	년재학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후 설문내용을 질취선대로 잘라서 9월 24일(토)까지 저희 회사로 우편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에 대하여는 그중 500명을 추첨하여 고급 사은품을 보내드리겠읍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보내실 곳 : 110-4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번지
주식회사 삼양사 총무부 인사과 설문조사 담당자 앞